

전라도 세계화 학술대회
“서양인이 기록한 전라도”

- 주 관 : 전북사학회 · 호남사학회
- 지 원 : 전라북도
- 발표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13시 30분~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2021. 10. 08.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전라도 세계화 학술대회

“서양인이 기록한 전라도”

- 주 관 : 전북사학회 · 호남사학회
- 지 원 : 전라북도
- 발표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13시 30분~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참가자 : 전북대학교 인문대 2호관 402호 세미나실)

<https://zoom.us/j/94138556424?pwd=R3NkQmZBTjJnNmppbE9PRGk3RkVpQT09>

회의 ID: 941 3855 6424

암호: 1234

■ 발표순서

시 간	일정 및 내용	비 고
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13:50~15:10	<p style="text-align: center;">제1부 발표</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이정욱(전주대)</p> <p>(13:50~14:15) 대통령 통해서 본 서로의 얼굴:하멜표류기에 기록된 타자화의 패러독스 - 발표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14:15~14:45) 조지 포크의 전라도 일기 - 발표: 조법종 (우석대 교수)</p> <p>(14:45~15:10) 미국 남장로교와 호남선교 - 발표: 김천식(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특별연구원)</p>	
15:10~15:20	중간 휴식	
15:20~16:35	<p style="text-align: center;">제2부 발표</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김정태 (전남대)</p> <p>(15:20~15:45) 대한제국기 알베르트 드예 신부가 기록한 목포항과 다도해 - 발표 : 최성환(목포대 교수)</p> <p>(15:45~16:10)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 - 발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p> <p>(16:10~16:35) 광주 여선교사가 본 호남의 풍속과 여성 - 발표 : 이정선 (조선대 교수)</p>	
16:35~16:45	중간휴식	
16:45~18:00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토론</p> <p style="text-align: center;">-좌장: 홍성덕(전주대)</p> <p>토론: 김덕진(광주교대), 김윤희(한남대), 김양호(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서중태(신앙문화연구원), 박정민(전북대), 윤선자(전남대)</p>	

목 차

발표문

- [대룡을 통해서 본 서로의 얼굴: “하멜보고서”에 기록된 타자화의 패러독스](#) 6쪽
발표자 :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의 전라도 조사검토](#) 20쪽
발표자 : 조법중(우석대)
- [미국 남장로교와 호남선교](#) 50쪽
발표자 : 김천식(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 [대한제국기 알베르토 드예 신부가 기록한 목포항과 다도해](#) 70쪽
발표자 : 최성환(목포대)
-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운동](#) 97쪽
발표자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광주 여선교사가 본 호남의 풍속과 여성](#) 124쪽
발표자 : 이정선(조선대)

토론문

- 김덕진(광주교대)
- 김윤희(한남대)
- 김양호(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 서종태(신앙문화연구원)
- 박정민(전북대)
- 윤선자(전남대)

대통령을 통해서 본 서로의 얼굴

- “하멜 보고서”에 기록된 타자화의 패러독스 -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목 차>

1. 머리말
 2. 표착 이후의 삶과 기억의 갈무리
 3. 안정과 同化, 고난과 異化의 교차
 4. 맺음말 - 기억의 轉有, 타자화의 시작
-

1. 머리말

“하멜 보고서”는 1653년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이 약 13년간의 조선 체류 실상 및 관련 기록을 정리한 난파 경위서이다.¹⁾ 이 보고서는 하멜이 소속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체불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그 형식은 회사의 보고서 지침을 따르고 있다.²⁾ 이처럼 실용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이 다양한 언어로 대중을 만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은³⁾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동·서양의 조우에 관한 심대한 관심을 방증한다.

-
- 1) “하멜 보고서”의 원제목은 “상선 스페르베르 호가 코레이 왕국 관할하의 켈파르트 섬에 조난당한 1653년 8월 16일부터 그 일행 중 여덟 명이 탈출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1666년 9월 14일까지 이 난파선의 생존 승무원과 평선원들이 이 왕국에서 경험한 바에 대한 보고서 및 이 나라 정세와 지리에 관한 부록”이다. 1934년 이병도가 『진단학보』 1~3호에 이 보고서의 영·불역본을 번역하여 전제한 “蘭船濟州島難破記”가 1954년 『하멜漂流記』라는 제목으로 출간됨에 따라 이후 국내에서는 “하멜표류기”로 널리 알려졌다.
 - 2) Boudewijin Walrave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헨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6집, 2006, 55쪽.
 - 3) “하멜 보고서”가 1668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되었을 때의 표제는 “스페르베르 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Journael van de Ongeluckige Voyagie can't Jacht de Sperwer)”였다. 이후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서양과 동양에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번역·간행하였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양인이 기록한 전라도”라는 주제로 마련된 호남사학회 <전라도 세계화 학술대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필자 또한 1656년부터 1666년까지 전라도 일대에서 체류하였던 하멜의 기록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대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의 조선 견문기와 달리, 조선 사회의 일원으로 오랜 시간 체재하였던 ‘조선인’ 하멜의 견문을 통해 조선 후기 전라도 지역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여실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멜 보고서”는 詳述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저자의 감정을 배제하여 간명한 필치로 작성한 글이다. 근년의 연구를 통해 하멜이 조선에서의 일상을 기록한 일지가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⁴⁾, 아마도 하멜은 이 일지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조선 표착 전후의 주요 사건 시말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정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보고서에 수록된 전라도 체류 기간의 기록은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압축적이며, 이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전라도의 모습을 직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멜이 갈무리한 17세기 조선의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에 관한 견문은 기록 대상에 대한 同化와 異化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채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우연한 계기로 낯선 사회에 발을 디뎠지만, 긴 세월의 동화를 거쳐 조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였던 한 서양인이 손수 엮은 기록은 서양 세력의 도래가 본격화되었던 19세기 중엽 이전 조선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짧은 문장에 압축된 하멜의 조선 체험을 온전히 살피기 위해 문자의 행간에 녹아든 시대적 맥락과 관찰자의 사유를 검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하멜의 표착 경과와 “하멜 보고서”의 저술 경위 및 개요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어 하멜의 표착과 관련한 당대 조선의 기록을 “하멜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영위한 삶의 면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가운데에 전라도에서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훑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하멜의 기록이 거듭된 출판과 번역을 거쳐 다양한 주체에 의해 轉有되고 변주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행위의 결과에 담긴 문화사적 의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본고의 주된 검토 대상 자료는 네덜란드 국립공문서보관소 소장 “하멜 보고서” 필사본이며, 그 내용의 파악을 위해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번역본과 연세대학교 출판부 번역본을 교차 대조하여 참고하였음을 밝힌다.⁵⁾

4) 신동규, 「서양 이국인(異國人) 표착과 근세 조선-네덜란드-일본의 국제 관계사」, 『하멜 보고서』, 중앙 M&B, 2003, 128~129쪽

5)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하멜 보고서』, 중앙 M&B, 2003; 지명숙·알라벤,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2. 표착 이후의 삶과 기억의 갈무리

1) 표착의 경과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헨드릭 하멜은 전근대 시기 조선에 표착한 몇몇 서양인 가운데 단연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그보다 앞서 조선에 온 서양인으로는 1582년(선조 15)에 제주도에 표착한 포르투갈인 마리아(馬里伊),⁶⁾ 1604년(선조 37) 남해안에 표착한 포르투갈인 후안 멘데스(之緩面第愁, João Mendes)⁷⁾가 있으며, 1627년(인조 5)에 경주 근해에서 표류하다 조선 백성들에게 사로잡힌 네덜란드인 얀 안세 벨테브레(朴燕, Jan Janse Weltevree) 일행이 잘 알려져 있다.⁸⁾

주지하듯 벨테브레는 동료들과 함께 조선에 정착하여 박연(朴燕)⁹⁾이라는 이름의 조선인 무관으로 평생을 살았으며, 하멜 일행이 조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착 이후 신속히 중국으로 인도된 마리아나 후안 멘데스는 물론, 박연조차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들이 경험한 조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반면 하멜은 짧지 않은 조선에서의 삶을 문자로 갈무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상 가장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서양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 호린헴(Gorinchem) 출신의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상선 스페르베르(Sperwer) 호의 선원이자 서기였다. 그가 탄 배는 1653년(효종 4) 7월 31일 대만을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해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안에서 난파되었다. 이 배의 선원 64명 중 하멜을 포함한 36명이 생존하여 향후 약 13년간 이어질 조선에서의 체류를 시작하였다. 『효종실록』에는 하멜 일행의 표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藥材)·녹비(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木香) 94포(包), 용뇌(龍腦) 4항(缸), 녹비 2만 7천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중략>… 이어서 가려는 곳을 몰으니 나가사키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¹⁰⁾

위의 실록 기사 내용은 하멜 일행의 수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하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그대로 부합한다.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36인의 선원들은 제주도 해안에 발을 디딘 후 미지의 상황에 대한 혼란과 공포로 가슴을 졸였으나, 곧 당시 제주 목사 이원

6) 『선조수정실록』 16권, 선조 15년 1월 1일 3번째 기사

7) 『臚錄類抄』 8권 「邊事自甲辰至癸卯」 甲辰七月初五日(1604년 7월 5일)

8) 『東萊府接倭狀啓臚錄可考事目錄抄冊』 1666년(현종 7) 3월

9) 『효종실록』에는 그의 이름이 ‘朴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문헌에는 ‘朴延’, ‘朴淵’ 혹은 ‘胡吞萬’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월 6일 2번째 기사

진(李元鎮, 1594~1665)의 호의와 선처 속에 점차 안정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된다.¹¹⁾ 그러나 하멜 일행은 조선에 귀화한 박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귀화를 권하는 박연의 말에 좌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가 제주도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와 심문을 받을 때, 왜 무모한 탈출을 감행하였느냐는 제주 목사의 물음에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던 사실은 당시 그들이 느낀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¹²⁾

이후 제주도에 10개월을 보낸 하멜 일행은 1654년(효종 5) 5월 섬을 떠나 해남, 영암, 나주, 장성, 정읍, 태인, 금구, 전주, 여산, 은진, 공주, 경기도를 거치는 약 2개월의 여정 끝에 한양에 입성하였다. 하멜 일행은 곧 효종을 알현하고 표착 경과에 대한 심문을 받았으며, 어전에서 일본 송환을 간곡히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송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생계를 보살펴주겠다는 효종의 보장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실제 하멜 일행은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박연 휘하의 호위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며, 1인당 백미 약 70근에 상당하는 월봉과 함께 부수적인 생활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점차 경제적·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갔다. 이들이 한양 생활을 시작한 지 약 반년만인 1654년 12월 즈음 몇 명씩 짝지어 살 집을 여러 채 장만하여 셋집살이를 면할 것으로 보아 효종이 약속한 대로 안정된 생계를 보장받았음을 알 수 있다.¹³⁾

하지만 이처럼 조선에 안착하는 듯 보였던 하멜 일행의 삶에 곧 커다란 파고가 일게 된다. 1655년 3월경, 조선을 방문하였다 돌아가는 청나라 사신 행렬에 하멜의 동료 두 사람(南北山·南二安)이 난입하여 본국 송환을 요청하는 돌발행동을 감행하였던 것이다.¹⁴⁾ 이때의 사달로 인해 사건 당사자 두 명은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고, 하멜을 비롯한 나머지 인원들도 流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하멜의 한양 생활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1656년 3월 도성을 떠난 하멜 일행은 전라남도 강진의 전라 병영(全羅兵營)에 인계되어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하멜 일행은 총 33명이었는데 병영의 막사 한 채를 지급 받아 한 군데 모여 살게 되었으며, 난파된 스페르베르 호에서 인양되어 제주에 보관 중이던 鹿皮 등을 돌려받아 거처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라 병사 관할하에서 관청 마당의 풀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의 잡일을 수행하였으며 기타 부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전라 병사의 성향에 따라 심한 생활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왕의 친용비에서 나온 50근의 쌀을 매월 하사받았으며, 승려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댓가를 받는 일종의 ‘부업’을 병행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나 이즈음 조선 사회는 만연한 기근으로 백성 상하가 고통 받고 있었고, 전라 병영 또한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하멜 일행에게 양곡을 배급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하멜

11) 지명숙·알라벤, 앞의 책, 208쪽

12) 지명숙·알라벤, 위의 책, 213쪽

13) 지명숙·알라벤, 앞의 책, 219~221쪽

14) 『승정원일기』 134책, 효종 6년 3월 15일

15) 지명숙·알라벤, 위의 책, 224~227쪽

일행을 남원에 5명, 순천에 5명, 여수의 전라 좌수영(全羅左水營)에 12명씩 분산 배치하라는 왕명이 나오기에 이르렀다.¹⁶⁾ 1663년(현종 4) 3월 하멜은 여수로 거처를 옮겨갔는데, 그간 강진에 이룩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고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이 절망하였다.¹⁷⁾ 물론 여수에서도 지방관의 선처와 완화된 감시 덕분에 그럭저럭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기근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고와 지방관의 성향에 따른 열악한 처우는 하멜로 하여금 조선에서의 탈출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그와 7명의 동료들은 수년간 자금을 모아 배를 마련하였고, 1666년(현종 7) 9월 탈출을 감행하여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함에 따라 고국으로의 귀환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13년 남짓 이어진 하멜의 조선 체류는 마감되었지만, 이즈음 그가 작성한 문건으로 인해 하멜과 한국 사이의 인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 난파 경위서의 작성

하멜은 귀국을 기다리며 나가사키에 체류한 13개월 동안 소속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고할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난파의 경위와 조선 체류 기간의 기록 및 귀환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그동안 밀린 임금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하멜은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도래 경과에 대한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문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¹⁸⁾ 현재 네덜란드 국립공문서 보관소에 소장 중인 “하멜 보고서” 필사본은 1653년 6월 18일 대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1662년까지의 주요 사건의 시말을 연대순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 ‘조선국 기술’이라는 제목하에 조선의 지리와 정치 군사 제도, 관제, 재정, 국민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¹⁹⁾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1663년부터 1666년 탈출 이전까지의 기록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는 반면, 탈출 과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어 나가사키에 도착한 직후 이루어진 나가사키 총독의 심문 조서 내용이 54개 항목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보고서 말미에는 나가사키를 출발해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도착하는 내용이 간략히 부기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하멜은 1666년 9월부터 1667년 10월까지 나가사키에 체류하는 동안 보고서를 집필하였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이 오로지 그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단기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도네시아에서 여정을 시작한 후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사건 시말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1653년 하멜 일행이 조선에 표착할 당시의 정황은 마치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16) 하멜 보고서에는 일행 가운데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 전라도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역병 등의 이유로 11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17) 지명숙, 왈라벤, 위의 책, 256~257쪽

18) 정성화, 『『하멜 보고서』의 서지적 해설』, 『하멜 보고서』, 중앙 M&B, 2003, 110~111쪽

19) 하멜이 나가사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후에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관리들에게 전달되었다. 현재 네덜란드 국립공문서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하멜 보고서”의 필사본은 하멜이 나가사키에서 직접 집필하고 수정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총독에게 제출한 필사본과 동일한 정보으로 인정받고 있다.

있고, 이후의 기록들 또한 조선 측의 사료와 대조하여도 기재된 지명과 사건 관계 서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하멜은 조선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스페르베르 호의 서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일지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기록물을 보고서 작성의 근거로 활용하였을 것이라 상정할 수 있다. 하멜은 네덜란드 귀환 이후 이 보고서를 동인도회사에 제출한 이외에는 조선에 관한 기록을 일체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하멜 보고서”는 하멜이 자신의 조선 생활 경험을 담아 집필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정과 同化, 고난과 異化의 교차

2) ‘이교도’와 ‘서양 괴물’의 만남

앞선 본문의 서술을 통해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한 이후 약 13년간 이어진 조선에서의 삶을 개관하고, 그 여정이 기록에 담겨 현전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가 갈무리한 낯선 세계와의 조우 과정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멜 보고서”의 서두에 기록된 난과 당시의 정황은 공포와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갑자기 배가 해안가에 세 번 정도 부딪히더니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하갑판 선실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올 시간도 없었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배에서 뛰어 내렸고 다른 몇몇은 파도 때문에 사망으로 휩쓸려갔다.”²⁰⁾

함께 배를 타고 있던 64명의 동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그나마 살아남은 인원 또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멜 등 생존자들이 자들이 가까스로 해안에 도달한 이후에도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흩어진 식량을 모아 허기를 면하는 등 생존을 위해 애를 썼지만, 그들 앞에 놓인 미지의 섬은 인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한 지 3일째 되는 1653년 8월 18일의 기록에는 이들을 사로잡은 공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정오 무렵 1, 2천 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들이 우리 주위로 다가왔다. 그들은 텐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런 후 서기, 일등항해사, 이등갑판장, 사환을 텐트에서 끌어내 화승총 사정거리에 떨어져 있던 지휘관에게 데려갔다. 그들 모두의 목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 쇠사슬 아래엔 큰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양의 목에 다는 종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사령관 앞에 내팽개쳐졌다. 그러자 병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큰 소리를 내질렀다. …〈중략〉… 정오가 지나자 그들은 각각 손에 밧줄을 가지고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왜냐하면 우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죽이려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²¹⁾

20)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21쪽

2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위의 책, 2003, 24~25쪽

처음에는 무인도인 줄로만 알았던 섬에 하나둘 인적이 보이더니 별안간 수천 명의 무장 병사가 나타나 쇠사슬을 목에 감고,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질렀다.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도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이는 제주 목사 이원진을 비롯하여 ‘이방인’과 조우한 ‘이교도’들이 날카로운 살의 대신 후한 선의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 목사는 우리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질문하고 기록하기 위해 우리를 자주 불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매우 서툰 말이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향연과 오락을 베풀기도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고, 왕의 서신이 도착하는 대로 우리를 다시 일본으로 보낼 것이라는 말로 매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교도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해주었다.”²²⁾

비록 삼엄한 감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하멜 일행은 관아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지급 받고 번갈아 가며 외출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난파 이후의 공황 상태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어 이들은 제주에 표착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1953년 10월 29일 뜻밖의 인물과 조우하게 된다.

“정오가 조금 지난 후, 목사는 서기와 일등항해사 그리고 이발사와 조수를 불렀다. 우리가 목사에게 갔을 때, 붉은 색을 띤 긴 수염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목사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목사는 웃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았다.”²³⁾

앞서 인용한 『효종실록』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서양인의 표착을 보고 받은 조정에서는 ‘남만인’ 박연을 파견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에 도래한 박연을 만나게 됨에 따라 하멜 일행은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겪게 될 자신들의 미래 또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연은 하멜 일행에게 자신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단념하고 조선인으로 살고 있으며, 자기처럼 풍족한 의식주를 보장 받으며 조선에 정착할 것을 권유하였다.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끝에 비로소 말이 통하는 동포를 만나게 되었으니 눈물이 옷깃을 적실만큼 감격스러웠을 것이지만,²⁴⁾ 이들의 기쁨은 고국으로의 귀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박연의 조언에 순식간 절망으로 바뀌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으리라.

그런데 이 만남을 기록한 “하멜 보고서” 내용 중에 눈길이가는 대목은 따로 있다. 제주 목사 이원진이 일행에게 박연을 소개하면서, 그가 네덜란드인이 아닌 ‘조선인’이라고 소개하였고, 박연 또한 네덜란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실 박연의 경우는

22)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29쪽

23)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위의 책, 2003, 29쪽

24) “하멜 보고서”에는 박연과의 만남을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 측의 사료에는 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옷깃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尹行恉, 『碩齋稿』 권9, 「海東外史」, 朴延, “孝廟四年. 有漂紅泊珍島郡. 舡中三十六人. 衣冠詭異. 鼻高目深. 不通言語文字. 或云西洋人. 或云南蠻人. 朝廷命延往審之. 延見其人. 言語淋漓. 至於泣下霑襟.”) 하멜의 뇌리 속에 동포와 만난 기쁨보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이 더욱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연한 계기로 발을 닦은 사회에 발을 디딘 ‘이방인’이 그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효종의 부마로서 현종 연간까지 궁궐에 출입하며 박연과도 직접 만나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의 저작에는 박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박연(朴淵)은 남만국(南蠻國) 사람이다. 순정(崇禎) 무진(1628) 연간에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는데, 사람됨이 출중해서 지식과 사려가 깊었다. 그가 하는 말은 왕왕 일반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난 점이 있었다.”²⁵⁾

주지하듯 인조 초반에 경주 인근 해안에 표착한 박연은 동료 D. 히아베르츠, J. 피에테르츠와 더불어 조선에 귀화하여 훈련도감에 편입되었으며, 항왜(降倭)와 표한인(漂漢人)으로 구성된 부대의 장(將)이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전선에 나아가 싸우다 동료 두 명을 잃은 박연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25년 가까이 무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왕으로부터 생활비와 의복 등을 풍족히 지급받는 후대 속에 ‘조선인’으로서 여생을 보냈다. 정조 연간에 주로 활동하였던 문신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이 남긴 저작에는 “박연은 병서에 조예가 깊고 정교한 화포를 만드는 데 매우 능하였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²⁶⁾ 남다르게 건장한 체격까지 갖추었던 박연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조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던 인물이다. 이같은 ‘모범적인 이방인’의 사례를 경험한 조선 군신은 곧 박연과 출신이 같은 하멜 일행에게도 높은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효종은 하멜 일행이 박연과 같은 나라 사람임을 확인하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화포를 잘 다룬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도감의 박연 휘하에 배속하였다.²⁷⁾ 그리고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인당 70근에 달하는 녹봉을 보장하였고, ‘남00’와 같이 조선식 이름을 적은 호패도 나누어주었다.²⁸⁾ 하멜 일행을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고 국가 조직 내의 구성원으로 수용함으로써 박연에게서 보았던 ‘효용’을 다시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때 하멜이 경험하였던 조선 군신의 선처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개방적인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즈음 갈무리 된 하멜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장면은 바로 이들을 바라보는 당시 조선 사람들의 시선이 묘사된 부분이다. 1654년 7월 즈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우리는 매일 많은 고관들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그들과 부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매우 신기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또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 생김새가 사람보다는 괴물처럼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실 때는 코를 귀 뒤에 돌린다는 말까지 있었다. …〈중략〉… 사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우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흰 피부를 부러워했다.”²⁹⁾

25) 鄭載崙, 『閑居漫錄』, “朴淵南蠻國人也. 崇禎戊辰年間, 漂到我國, 爲人卓犖有識慮, 所論說往往有高人數等者.”

26) 尹行恁, 『碩齋稿』 권9, 「海東外史」, 朴延, “朴延者, 阿蘭陀人也. 崇禎元年, 漂流至湖南. 朝廷隸訓局, 將降倭及漂漢人. 延初名胡吞萬, 工於兵書.”

27)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8월 6일 2번째 기사

28)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38쪽

29)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39쪽

하멜이 애초부터 조선 사람들을 ‘이교도’로 인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멜 일행을 처음 보는 조선 사람들 역시 이들이 마치 ‘서양에서 온 괴물’인 것처럼 간주하였다. 일찍이 제주도에서 퍼져 나온 ‘이방인’에 대한 소문이 한양에 도달한 즈음에는 엉뚱한 수준으로 과장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같은 소문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멜 일행을 만나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하멜 등은 외출에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차 조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하멜은 그들의 호기심이 결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체감하였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흰 피부와 건장한 체격이 조선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재난으로 인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시작된 조선에서의 삶은 하멜의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조선 군신의 후의와 동포 박연의 도움 아래 조선 사회에 순조롭게 진입하고, 낮은 사회의 구성원들과도 점차 친화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하멜 일행이 청나라 사신의 행렬에 난입하여 일본 송환을 요청하는 들발행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박연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조선인’으로서 안락한 여생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안정’을 선택하기에 이들의 조선 사회 동화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는 전라도에서의 유배 생활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발현되기에 이른다.

2) 끊임없는 생활고와 충돌하는 정체성

하멜 일행은 조선에 체류하는 약 13년의 기간 가운데 초반의 3년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전라도 지역에서 보냈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조선의 말과 풍습을 익힌 후 조선의 일반 기층민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시기인 만큼 이들이 경험한 조선에서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형성한 시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보고서의 전체 분량 중 이 시기의 기록은 매우 간소한 편이므로, 여기에 담긴 기록은 조선 체류기간의 기억 속에서도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요한 순간을 갈무리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656년 3월부터 시작된 하멜 일행의 강진 유배 생활은 번갈아 부임하는 병마절도사의 성향에 따라 극적으로 좌우되었다. 어진 절도사가 재임하는 시기에는 하멜 등이 저야 했던 부역이 경감되고 처신 또한 자유로웠지만, 고약한 절도사가 왔을 때는 삶의 고난이 가중되었다. 1657년 2월의 기록을 살펴보자.

“새로운 사령관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전임자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시켰다. 전임자는 땀감을 무료로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땀감을 마련해야 했다. 땀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산을 6마일 가량 돌아다녀야 했다. 이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9월 그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이후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가혹하게 통치하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다.”³⁰⁾

이 시기 하멜 일행이 경험한 삶의 외형은 ‘이방인’이 아닌 ‘조선인’의 그것과 가까웠다. 악정을 행한 절도사가 병으로 죽었을 때 내심 반가웠던 심정은 지역민들의 마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실제 하멜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친숙하게 어울리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카사키 총독의 심문조서 내용 가운데 37번째 문답을 보면, “강진에서 7년 동안 지내면서 의복과 반찬은 착한 사람들에게 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³⁰⁾ 하멜의 기억 속 전라도는, 인구가 많고 생산량이 남달랐으며³²⁾, 선량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지역민들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승려들이 베풀어준 자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매우 많고 이국적인 것을 기꺼이 듣고 싶어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임시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³⁾

“우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러저럭 잘 지냈다. 당시 우리는 스님들과 사이가 좋았으며, 스님들은 우리에게 매우 관대했고 우호적이었다. 특히 네덜란드와 다른 나라의 관습에 대해 듣는 것을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으며,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그것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³⁴⁾

하멜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구걸로 여기고 저어하였지만, 곧 이곳에서 구걸은 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생계유지를 위해 ‘이야기장사’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탈출하는 데 필요한 배를 시가의 두세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야기장사’를 통해 자금을 모은 덕분이다.³⁵⁾ 이즈음 전북 부안에 거주하였던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저작 『반계수록(磻溪隧錄)』에도 이들과 만나 서양의 화폐에 대해 나눈 기록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³⁶⁾ ‘이야기장사’ 하멜 일행의 명성은 전라도 지역 전역에서 사뭇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멜이 전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조선의 언어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깊은 친분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멜은 기본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이교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후대에 조선을 찾은 서양인이 노정한 조선, 혹은 동양에 대한 편견과 비하의 시선은 하멜의 기록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과 교류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선입견 없이 여실하게 기록에 담았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이교도’들의 후의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느낀 부끄러움과 진심으로 고마운 심정을 담담히 술회하기도 하였다.

30)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46쪽

3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95쪽

32)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96쪽

33)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위의 책, 2003, 46쪽

34)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위의 책, 2003, 48쪽

35)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위의 책, 2003, 81쪽

36) 柳馨遠, 『磻溪隧錄』 권8, 「田制後錄放說」下, 錢貨, “向也, 親達西洋漂流人間之, 其國尙用銀錢云. 西洋國, 蓋古西域諸國之南也. 今我國混稱爲南蠻.”

하멜 일행을 바라보는 조선인의 시선에도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묻어나지만, 이들은 결코 그 ‘이방인’들을 해하거나 이질적인 존재로 소외시키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였다. 국왕의 배려가 두터웠던 한양에서의 생활에 비해 전라도에서의 유배 생활이 실로 고단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조선 시기 일반적인 유배 생활에 비해 특출나게 괴로운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현지 백성들과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생활하였던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멜 일행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고 동화하는 데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전라도 지역민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국적인’ 경험을 들려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간 그들이었지만, 이국적인 경험담을 들려주는 매순간 순간마다 자신들이 조선 사람들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야 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전라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감정의 교차와 정체성의 혼란을 술하게 겪었을 것이다. 1666년까지 생존하였던 16명의 동료 중 하멜을 비롯한 8명만이 탈출을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잔류를 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었던 네덜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충돌을 절묘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멜 일행이 겪었던 이 같은 ‘同化와 異化의 패러독스’가 결국 이들의 삶을 탈출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정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시기에 조선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나카사키 총독의 심문 조서 가운데 38번째 문답을 살펴보자

문 : 왜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는가? 그곳의 지명은 무엇인가?

답 : 1660년, 1661년과 1662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한 곳에서 우리를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1662년 우리들을 여수에 1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씩 분산시켰다.³⁷⁾

기존의 연구를 통해 17세기 중후반 조선을 뒤흔들었던 자연재해와 기근의 실상이 세밀히 분석된 바 있다.³⁸⁾ 냉해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사이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피해를 증폭시키는 재난의 유형은 바닷물이 결빙될 정도로 기후가 한랭했던 17세기 중후반 빈번히 반복되었다.³⁹⁾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의 피해는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⁴⁰⁾ 이같이 유례없는 재난 상황 안에서 하멜 일행은 조선의 백성들과 같

37)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익 옮김, 앞의 책, 2003, 96쪽

38)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2008

39) 17세기 후반의 한랭 기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유럽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으로 대표되는 1670-1690년대의 대기근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김덕진, 위의 글, 2008, 310~326쪽)

40) 이와 관련하여, 명말 청초에 거의 매년 되풀이되었던 심각한 기근 상황과 寬永(1641-1643), 延寶(1674-1677), 元祿(1695-1696) 대기근으로 대표되는 17세기 일본의 3대 기근, 그리고 현종과 숙종 연간의 경신(1670-1671), 을병(1695-1699) 대기근 등 17세기 동아시아 3국(중국, 조선, 일본)의 심각한 기근 상황과 그 정치적 여파를 비교 분석한 김문기의 연구,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이화사학연구』 4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11)이 주목된다.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7년 동안 거주하며 정이든 강진을 떠나 동료들과 뿔뿔히 흩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더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를 버리고 떠날 수 없었던 조선인 이웃들과 달리 하멜의 일행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대안을 찾아 탈출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 기억의 轉有, 타자화의 시작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멜 일행이 경험한 조선에서의 삶, 특히 전라도에서의 생활은 안정과 동화, 고난과 이화가 교차하였던 시간이었다. 그로 인해 하멜 일행이 겪어야 했던 내적·외적 갈등은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멜 일행은 조선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하였지만, 사실 그들을 궁지로 내몰았던 것은 ‘이방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처우나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라, 조선의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었던 자연 재해라는 ‘동등한’ 조건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하멜 보고서”에 기록된 하멜 본인의 관찰에서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술하였듯, “하멜 보고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낯선 외국에서의 흥미로운 견문을 미지의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글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한 하멜의 혹평으로 읽히곤 하는,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다가 속았다고 생각되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사실 ‘조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민족적인 특징이 아니라 조선인의 거래 문화라 불릴 수 있는 특정한 것에 대한 서술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그 의미가 매우 심장하다고 하겠다.⁴¹⁾ 하멜은 낯선 이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에서의 사업 전개가 가능할지’, ‘네덜란드식의 계약 행위가 조선에서도 유효할지’ 여부를 알고 싶었던 동인도회사의 관리들을 위해 이 기록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멜 보고서”의 집필 의도와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하멜의 기록을 읽는 독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과, 거듭된 출판과 번역 과정에서의 왜곡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듯 “하멜 보고서”는 조선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았던 서양 국가들에 조선을 알리는 최초의 저서로서 수세기 동안 깊은 관심을 받아 왔다. 1668년 7월, 하멜이 미처 고국의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하멜 보고서”의 인쇄본이 출판되었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번역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670년경 네덜란

41) Boudewijn Walraven, 앞의 글, 『대동문화연구』 56집, 2006, 56쪽

드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된 ‘길리스 요스틴 사아그만의 판본’에서부터 “하멜 보고서” 원본에는 전혀 언급된 바 없었던 악어와 코끼리의 삽화가 포함된 것을 필두로 하여, 하멜의 견문을 공상적 여행담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거듭됨으로써 독자들의 조선 인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⁴²⁾ 하멜 본인의 기록에서는 조선 사회에 대한 근대주의적 비하와 타자화의 편견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그의 기록과 기억을 轉有한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선이라는 ‘이국적인’ 나라는 심각한 타자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자화가 하멜이 다녀간 조선에서, 하멜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앞선 본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하멜의 표착과 관련한 조선 측의 기록은 대체로 사건의 시말에 대해 단편적이고 여실한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하멜에 대한 기억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임의의 변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관련하여 『다산시문집』에 수록된 네덜란드인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아란타(阿蘭陀)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지는 않으나 또한 뜻밖의 사변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일명 하란(荷蘭)이라고도 하고 홍이(紅夷)라고도 하며, 또 홍모(紅毛)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서남해(西南海) 가운데 있어서 일본과의 거리가 1만 2천 9백 리이며 그 지방은 불량기(佛郎機)와 가깝다. 깊은 눈과 긴 코에 수염과 머리는 모두 붉으며 발은 한 자 두 치나 되는데, 항상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이 마치 개와 같다. 그리고 서양의 야소교(耶蘇教)를 믿는다.”⁴³⁾

위에 인용한 글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가 논평한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備倭論” 중 일부 구절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네덜란드인의 모습이 “항상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이 마치 개와 같다”고 묘사되어 있어, 흡사 하멜 일행을 ‘서양 괴물’로 왜곡하였던 ‘제주도발 헛소문’을 떠올리게 된다. 인용한 구절의 바로 아래에 하멜 일행의 표착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덕무의 언급은 분명 하멜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며, 그가 하멜과 관련된 기록을 접하였을 것이라는 사실도 짐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그가 묘사한 하멜의 모습에서는 비슷한 시기 윤행임이 묘사한 박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멜 일행 혹은 네덜란드인 일반에 대한 타자화와 비하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이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상을 특정한 기록을 통해 만날 때에는 그 문자의 행간에 왜곡과 오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롱으로 표범을 본다(管中窺豹)”라는 말이 지칭하는 대로, 표범의 전체는 보지 못하고 반점 하나만 보았으면서 표범을 다 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과 현대의 한국이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라는 사회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현대의 관점으로 재단하기를 서슴지 않는 한국의 독자들 역시 “하멜 보고서”에 기록된 타자화의 패러독스에 쉽게 걸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독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2) 정성화, 『하멜 보고서』의 서지적 해설, 『하멜 보고서』, 중앙 M&B, 2003, 112~121쪽

43)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22, 雜評, 李雅亭備倭論評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謄錄類抄』,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礪溪隧錄』, 『閑居漫錄』, 『碩齋稿』, 『茶山詩文集』

李丙燾, 「蘭船濟州島難破記(一)」, 『震檀學報』 1, 1934

———, 「蘭船濟州島難破記(二)」, 『震檀學報』 2, 1935

———, 「蘭船濟州島難破記(完)」, 『震檀學報』 3, 1935

박태근, 「李慶濬장군의 統營건설과 唐浦해전」, 『국제한국학연구』 2, 2004

지명숙, 「하멜 일행의 한국 체류, 적응 및 이해」, 『동방학지』 122, 2003

지명숙·알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Leonard Blussé, 「만남과 발견: 극동 아시아에서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활동」, 『동방학지』 122, 2003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기획, 유동의 옮김, 『하멜 보고서』, 중앙 M&B, 2003

한명기,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 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국제한국학연구』 2, 2004,

Boudewijin Walrave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헨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6집, 2006,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2008

이민식, 「17세기 조선에 도착한 네덜란드인 하멜」, 『한국사상과 문화』 44집, 2008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11

보테윈 알라벤, 「하멜의 조선표류와 강진 생활이 함축하는 의미」, 『다산과 현대』 10, 2017

김덕진, 『전라도의 탄생 1』, 선인, 2018

김수연, 「조선후기 ‘표류’에 대한 서사적 기억과 문학적 의미 - 한문 서사와 『하멜 표류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집, 2019

李九義, 「崔溥의 漂海錄과 하멜의 漂流記에 나타난 東西洋의 交涉」, 『동아인문학』 49, 2019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의 전라도 조사 검토

조법중(우석대)

<목 차>

서언

1. 개항기 서양인의 자료 및 포크자료
 - 1) 1880년대까지의 서양인 자료 양상
 - 2) 포크 조사 기록의 특징
2. 미국 외교무관 포크의 조선조사
 - 1) 1884년 포크의 조선 조사
 - 2) 조선 여행을 위한 호조 및 대동여지도 사용
3. 전라도 지역별 조사 개요
 - 1) 전주권역
 - 2) 나주 광주권역
 - 3) 남원권역

결언

서 언

1884년 조선에 부임한 최초 미국 외교무관(해군무관)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는 미국 국무부 및 해군부에 보고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 조선지역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기록을 남겼다. 포크는 조선과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1883년 조선의 사절단으로는 최초로 구미 국가 중 미국에 처음으로 파견된 ‘보빙사’ 일행을 맞아 통역 수행을 맡았던 포크 미국 해군 소위였다. 또한 포크는 미국에 파견되었던 보빙사와 함께 조선 귀환에 동참해 6개월여 유럽지역 등 세계 일주를 하고 1884년 5.31. 제물포에 도착해 조선주재 미국 해군 무관으로 부임하였다.¹⁾ 그리고 부임이후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포크는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여 1차 경기북부권역(1884.9.22.-10.8.)²⁾ 2차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지역(11.1.-12.14.)을 조사하였다.³⁾

1) 손정숙, 2004, 「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연구(1884~1887)」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 Report of Observation made during a Journey in Capital District of Korea, Foulk to Frelinghuysen, Oct 10, 1884. FRUS, 쪽수 미기입 ; 날짜 미기입, Foulk papers, Library of Congress, 1884.

3) 본 자료는 포크의 첫 번째 답사인 경기북부 일월 답사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답사기록임
일기 원본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밴크로프트 도서관(Bancroft Library)이 소장하고 있는 포크 컬렉션

이 과정에서 포크는 일기형식의 조사기록과 사진 촬영을 통해 1884년 조선의 생생한 모습을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정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여 미 국무부 등에 제출하기 위한 조사 기초자료였고 또한 개인적으로 향후 조선에 대한 별도의 책을 저술하기 위한 원본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⁴⁾ 그러나 1897년 포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기록은 100여년 이상 전문이 공개되지 못한 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자료로서 남아 있었다. 다행히 사무엘 홀리교수의 노력으로 이 일기와 편지가 2007년 일반인이 접할 수 있게 정리 소개되었다.⁵⁾

필자는 전라감영복원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도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시대와 출처가 불명한 자료⁶⁾로 ‘全羅道觀察使와 監營 吏屬들의 사진’이란 명칭으로 소개되었던 자료를 추적하던 중 이 사진이 1884년 11월 전주를 방문한 조선주재 미국 공사관 무관인 미국 해군소위 포크(George Clayton Foulk)가 찍은 사진이란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추적하며 이 책을 구입하여 전체 내용을 일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남긴 초기 서양인들의 기록⁷⁾과는 내용과 형식⁸⁾에서 다른 점을 갖고 있다.

본 논고는 기존 서양인의 조선관련 자료와 차별화된 포크 기록 가운데 전라도 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Clayton Foulk collectio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1926-1929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던 Harold J. Noble에 의해 습득되어 1956년 Noble Papers와 함께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한편, 포크자료는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1. 포크 문서의 현황(George Clayton Foulk Papers, 1883~1887 - 국사편찬위원회_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CD로 보관되어 활용할 수 있다.

4) 이 자료를 이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KIM HYUNG-CHAN, 1984, "The Korean Kaleidoscope : American Views of Korea, 1882-1979". Korea Journal, Vol.24 No.6, p.18-26

KIM HYUNG-CHAN, 1986, "George C. Foulk in Korea", Korea Journal, Vol.26 No.12, 27-38

5) 수기로 기록된 포크의 일기를 탈초해 대중에게 소개한 새뮤얼 홀리(Samuel Hawley) 교수는 선교사 부모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퀸즈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2007년 퇴직후 캐나다에 거주하며 책 출판 및 영상자료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료는 다음 참조 <http://www.samuelhawley.com/>)

그의 대표적 역사관련 저술로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임진전쟁'을 출간하였고 Foulk에 대한 Hawley의 관심은 2007년에 출판된 America's Man in Korea 와 Inside the Hermit Kingdom 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Samuel Hawley, 2007, *Inside the Hermit Kingdom : The 1884 Korea Travel Diary of George Clayton Foulk*, Lexington Books

Samuel Hawley, 2007, *America's Man in Korea-The Private Letters of George C. Foulk, 1884-1887*, Lexington Books

한편, 본 자료는 김학준, 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국정치연구』 18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6) 자료유형 : 사진자료

서명 / 저자 : 全羅道觀察使와 監營 吏屬들의 사진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 [발행년불명] 사진; 25.4×20.3cm.

7) 이수기, 2015, 「개항기 서양인의 여행기를 통해 본 한국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학준, 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국정치연구』 18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8) 개항기 서양인들의 기록은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형식도 여행기, 보고서 등 여러 형태이다. 포크의 기록은 여행기간 보고 가마를 타고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 기록한 내용이란 점에서 현장감과 당시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진행시간과 온도, 기압 등 근대적 측정도구를 통해 시간대별 기록을 남겨놓은 기록이란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1. 개항기 서양인의 자료 및 포크자료

1) 1880년대까지의 서양인 자료 양상

개항기 한국을 방문한 기록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기록과 특수한 임무를 띠고 왔던 정치인과 군인, 보도를 위해 파견되었던 언론인, 연구를 위해 찾았던 학자, 그리고 일반 여행자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항기 서양인들의 기록은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형식도 여행기, 보고서 등 여러 형태이다. 이들 기록들은 19세기 후반 서양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서양인의 의식속에 한국에 대한 인식의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당수 번역되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880년대 전반까지 관련 인물의 저술 중 번역된 저술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⁹⁾

방문시기	이름	국적	직업	기간	저서·번역
1870년대 이전	리델	프랑스	신부	1861.3-1866.6/1877.11-1878.6	Felix Clair Ridet, MA CAPTIVITÉ DANS LES PRISONS DE SÉOUL, par ADRIEN LAUNAY,BROUWER, 1901.(리델지음, 유소연옮김,2008,『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그들이 본 우리 006, 살림
	오페르트	독일	사업가	1866.2/1866.6/1868.5	Ernst Jacob Oppert, A Forbidden Land:Voyages to the Corea ,G.P.Putnam's Sons, NewYork,1880. (오페르트지음,신복룡·장우영역주2000,『금단의 나라 조선』 한말외국인기록 20, 집문당
1870년대	달레	프랑스	신부	X	Charles Dallet , HISTOIRE DE L 'ÉGLISE DE CORÉE,PARIS LIBRAIRIE VICTORE PALMÉ , ÉDITEUR , 1874. (샤를르 달레 저 , 안응렬·최석우역주 2000,『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존로스	영국	번역자	X	John Ross , HISTORY OF COREA ,PAISLEY J. AND R. PARLANE. 1879.(존로스지음, 흥경숙 옮김, 2010,『존 로스의 한국사』 그들이 본 우리 014, 살림
	그리피스	미국	교육자	연대미정 / 1926-1927	William Eliot ,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882<1907>.(그리 피스지음, 신복룡역주, 1999,『은자의 나라 한국』 한말외국인 기록 3, 집문당
1880년대	로웰	미국	사절단	1883.12-	Percival Lowell,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9) 이수기,2015,「개항기 서양인의 여행기를 통해 본 한국관」,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과 김학준,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한국정치연구』 18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자료를 재정리하여 필자 작성

전반				1884.3	<i>calm</i> , Harvard University Press,1885. (로웰지음,조경철옮김,2001,『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사람들』 예담
	포크	미국	군인의교관	1884.6.- 1887.6.	Edited by Samuel Hawley ,2007, <i>Inside the Hermit Kingdom : The 1884 Korea Travel Diary of George Clayton Foulk</i> , Lexington Books 사무엘 홀리펀,조법종,조현미 번역주석,2021,『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알파미디어.
	알렌	미국	의료선교사	1884.7- 1905	Horace Newton Allen, <i>Things Korean(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Missionary and Diplomatic)</i> ,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1908. 신복룡 역 , 1979, 『조선견문기』 평민사 (알렌 지음,신복룡역주 , 1999,『조선견문기』 한말외국인기록4, 집문당: 윤후남 옮김·이순자감수, 1996 ,『알렌의 조선체류기』 예영커뮤니케이션
	칼스	영국	외교관	1883.11- 1885.4	William Richard Carles , <i>Life In Corea</i> ,Macmillan Co., London ,1888.(칼스지음 , 신복룡역주 , 1999 , 『조선풍물지』 한말외국인기록16. 집문당)
	다데슈칼리안	러시아	행정관리	1885	ПУТЕШЕСТВИЯ, ПО KOREE PУTESHESTVIA <Illo Kopee>,1885.(다데슈칼리안 지음 A. 이르케바예브·김정화옮김 , 2003,『내가 본 조선 조선인-조선의 현상함에 대한 짧은 기록』 가야넷)
	델로트케비치	러시아	상인	1885.12- 1886.3	P.M.Delotkevicha <Il.M.lerroTKeBwl>, С6опIIIKреорпаф II~eCKIIX , ТоррорпафII~eCKIIXII CТаИИСТИИ KIIX MaТepИaπOB rpo A3ИИИ (71138 집 , 상트페테르부르크) , 1889. (파벨 미하일로비치 델로트케비치 저 , 심지은 편역 , 2006 , 『러시아인 , 조선을 거닐다- '델로트케비치의 여행기』 한국학술정보(주)
	아펜첼러	미국	선교사	1885.4-1 902.6	Henry Gerhart Appenzeller, Bring to the Light and Liberty- H. G. Appenzeller's Daires, 1886-1902,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Seoul, Korea, 1988.(아펜첼러지음 , 노종해옮김, 1988 ,『자유의 빛을 주소서:아펜첼러의 일기』 대한기독교서회.조성환 옮김 , 1999, 『헨리 G. 아펜첼러의 문서』 도서출판 탁사);
	언더우드	미국	의료선교사	1885.4.5 -1916	Horace Grant Underwood,The Call of Korea ,1908.(언더우드 저 , 이광린역 , 1989,『한국개신교수용사』 일조각.
1880년대 후반	길모어	미국	선교사	1886.7.4 -1889	
	헐버트	미국	선교사	1886.7- 1891.12/ 1893.9- 1907.4	
	샤이에 룡	미국	외교관	1887.10- 1889.8	
	커즌	영국	학자	1887- 1888/ 1888/	

				1892-1893	
	게일	캐나다	선교사	1888.2.-1897/ 1898-1928	
	시틀 루이 바라	프랑스	탐험가	1888.10.10-1889	
	언더우드 부인	미국	의사	1888-1921	
	베벨리	러시아	군인	1889.5-7	
	모리스꾸랑	프랑스	외교관	1890-1892	
	셔우드 홀	캐나다	의료선교사	1890-1940	
	새비지-랜도어	영국	탐험가	연대미정 / 1890.12.26-1891.12	

표 4 개항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관련 저서를 남긴 서양인들 (방문시기순)

본고에서 소개하는 포크의 기록은 앞서 관련 연구자료에서 간략히 소개되거나 일부 자료로서만 소개되었다. 포크기록은 책으로 정리되고 번역된 시기가 가장 최근으로, 관련 사진 및 삽화, 지도등이 함께 수록되어 이들 기록과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특히, 미해군 장교로서 체계적 정보수집 훈련을 받았고 여행기간 보교(가마)를 타고 현장에서 그 순간 순간을 기록해 현장감과 당시 상황이 그대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진행시간과 온도, 기압 등 근대적 측정도구를 통해 시간대별 기록을 남긴 자료란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서구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의 기록도 있지만 조선에 대한 객관적 관점에서 기록하려 한 측면이 부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영국 외교관 칼스가 저술한 책에서 사진들과 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1885년 전반기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1883.11.-1885. 4.) 서울 주재 미국공사관의 책임을 맡고 있던 포크 (George C. Foulk) 중위의 도움을 받았음을 기록하였다.¹⁰⁾ 즉, 포크기록은 이같은 정보의 실체를 보여주며 개항기 서구인들의 기록 가운데 비중성이 매우 높은 자료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포크 자료 내용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전라감영 관련 논고¹¹⁾와 번역본¹²⁾을 출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후 이들 개항기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0) 칼스<원저자 머리말> p. 8.

11)조법종,2020,「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전북사학』 60

12)사무엘 홀리펀,조법종,조현미 번역주석,2021,『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 알파미디어.

(원저:Edited by Samuel Hawley ,2007, *Inside the Hermit Kingdom : The 1884 Korea Travel Diary of George Clayton Foulk*, Lexington Books

본 발표는 포크가 조사한 2차 경기, 충청, 전라, 경상지역 등 ‘삼남지방’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 대한 자료 소개 및 정리와 일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포크 조사 기록의 특징

포크가 1884.11.1.-12.14.까지 44일간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2권의 조사기록은 고도로 훈련된 미국 해군장교가 개항이후 조선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답사하고 기록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개항기 조선에 대한 기록은 비공식적인 선교사의 기록이나 특정 목적에 국한된 조사기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포크의 기록은 국가의 공식적 허가를 받아 발급된 護照를 지참하고 해당 지역 관아를 방문해 이를 확인받고 공식적 지원을 통해 행해진 조사과정의 기록이란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관리가 지방 출장사가마를 타고 갔던 방식과 공정 숙박시설(객사 등)을 활용한 내용 그대로 진행하여 조선시대 공적 출장형식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여행자들이 활용했던 주막에서 수식을 해결한 방식도 병행하여 당시 교통, 운송, 숙박 체계를 총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본서의 가치는 관점과 관련 연구자들의 활용에 따라 다채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포크는 방문지역의 특징을 적확히 표현하기 위해 사진기를 휴대하고 직접 촬영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의 모습을 확보하였다. 포크는 일정 진행중 총 24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나주에서 광주 이동중 유리원판 사진을 실은 나귀가 물에 빠져 사진이 상당수 침수 및 파손되었다. 이후 포크의 사진 촬영은 지냉되지 못하였다.

포크는 각 지역 조사과정 및 감사 및 군수, 현령 등 지방관들과의 대화속에서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주제들을 크게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1)조선의 지방실태와 운영방식, 지역관리수준
- 2)조선의 농업실태
- 3)조선의 산업과 광물자원,
- 4)도로 교통상황 및 숙박시스템
- 5)군사거점 산성 및 상태
- 6)인구규모,상업유통
- 7)민간풍습,종교,신앙
- 8)서구 근대문화수용 양상
- 9)화륜선운항 관련 문제 등
- 10)국제정세에 대한 관리의 이해
- 11)사진 촬영을 통한 생생한 이미지 자료 확보

이같은 특징들과 함께 전라도 각지역에 대한 지역별 특징 주제를 필자가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1월 8일 미 군함 Alert호가 좌초되었던 용안지역에 머물다.
 - 용안 현감부인의 성찬을 대접받다.
- 11월 9일 임오군란에서 살아난 용안현감과 작별하고 익산을 거쳐 삼례에서 자다.
- 11월 10일 사수강을 건너 전주에 들어서 전라감영을 방문하다
- 11월 11일 전라감영의 위용과 조선의 전통문화에 감동받다.
 - 조선의 매춘부 이야기
- 11월 12일 전주를 떠나 금구 현감을 만나고 원평에서 맛있는 밥을 먹다.
- 11월 13일 아름다운 태인을 지나 정읍 군령다리 마을에 이르다.
 - 좋은 집을 짓지 않는 이유: 관리들의 수탈이 무서워
- 11월 14일 갈재(노령)를 넘어 여행길을 지켜주는 미륵을 만나다.
 - 조선의 대표적인 주막 모습을 그린다.
- 11월 15일 나주에 도착했으나 준비없이 허둥대는 푸대접을 받다.
 - 잘 생긴 나주사람들
- 11월 16일 포크의 가마꾼들, 나주에서 주막 여주인을 도와 패싸움하다.
- 11월 17일 포크가 찍은 유리원판 사진들, 영산강 나루터에 빠져 깨지다!!
 - 큰 고을 광주에서 한약방 주인의 주막에서 잠들며 사진을 걱정하다.
- 11월 18일 담양의 사찰터에서 만난 석당간의 신비로움에 빠지다.
 -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고추장,된장의 고을 순창을 지나다.
- 11월 19일 남원 만복사 유적에 매료되고 남원사람들의 키 큰 모습을 보다.
 - 광한루 오작교이야기[춘향전]를 채록하다.
- 11월 20일 남원 운봉 여원치를 거쳐 경상도 땅 함양으로 들어가다.
 - 경상도 사람들 말소리가 다르네!

2. 미국 외교무관 포크의 조선조사¹³⁾

1) 1884년 포크의 조선 조사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56. 10. 30. ~ 1893. 8. 6.?)는 1884년 조선에 파견된 초대 미국 공사관 해군무관이며 약 2년여에 걸쳐 조선주재 미국공사관 임시대리공사를 역임한 미국 외교관이었다.¹⁴⁾ 한자 이름은 복구(福久)이며 『고종 실록』에는 ‘포크’라는 한

13) 이 부분은 다음 논고 내용을 활용하였음.

조법중,2020,「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전북사학』 60

14) 문일평,1945, 『한미오십년사』, 호암 문일평 선생 유고, 조광사 ; 이광린교주,2016, 탐구당

손정숙,2003 「구한말 주한 미국공사들의 활동과 개인문서 현황」, 『이화사학연구』 30,

손정숙,2004,『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해외사료총서 7권)

손정숙,2004,「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 연구(1884~1887)」 『한국근현대사연구』31 한국근현대사학회

손정숙,2005,『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한국사학

Samuel Hawley, “Journey in Korea: The 1884 Travel Diary of George C. Foulk”,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80 [2005]: 59-86

손정숙,2007,「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29 韓國思想史學會

이민식,2009, 『개화기의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학술정보

포크는 1887년 6월 미국정부의 소환명령을 받고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 카네코 무네와 결혼하고 요코하

글 명칭으로 기록되었다.¹⁵⁾ 조지 클레이튼 포크는 185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메리에타에서 태어나 1876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의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태평양과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국의 해군 전력인 아시아 함대(Asiatic Squadron)에 복무하기 위해, 철함 증기선인 앨러트(USS Alert) 호의 선원으로 6년을 아시아 함대에서 근무했다.

1883년 서구에 대한 첫 번째 조선 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조선 보빙사와의 통역 역할을 맡아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를 순회하는 사절단과 40여일간 진행된 일정에 동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¹⁶⁾ 미국 여행이 종료될 무렵 보빙사 정사 민영익은 미국에 조선 귀국시 포크의 동행을 요청하였고 해군과 국무부는 포크를 새롭게 만든 직책인 “조선주재 미국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임명해 조선에 파견하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 아서의 특별 명령으로 보빙사 일행은 당시 전기조명장치가 처음 설치된 증기기관선인 트랜튼호(USS Trenton)를 제공받아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이에 보빙사 일행은 2개 팀으로 나뉘어 부사 홍영식과 일행은 바로 귀국하고 정사 민영익과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변수는 12월1일 미국이 마련한 트랜튼 호(USS Trenton)를 타고 뉴욕에서 유럽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최초의 서구 유럽과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세계 여행을 한 후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당시 귀환 여정은 뉴욕-대서양-스페인 지브랄터 해협-마르세이유-파리-런던-로마-수에즈운하-이집트-인도양-인도 봄베이-스리랑카-싱가포르-홍콩-나가사키-제물포 순이었다. 약 6개월에 걸친 세계일주를 끝내고 1884. 5. 31. 보빙사일행과 함께 포크는 제물포에 도착하여 6. 5. 해군무관으로 정식 복무하였다.¹⁷⁾

마주재 ‘미국무역상사’에서 2년간 복무하였다. 1890년부터 교토의 동지사(同志社)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1893년 8월6일 37세의 나이로 휴양기간 중 홀로 산책하다 사망하였다.

손정숙, 2005, 『한국 근대 주한 미국공사 연구(1883-1905)』 한국사학

포크 관련 국내 학계 연구 중 손정숙선생의 연구내용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들이 주목된다. 특히, 손정숙선생의 연구는 본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5) 포크에 대한 연구논저에서 포크는 ‘휘크’ (金基奭, 1997, 「미국내 한국관계 자료 연구」 『국사관논총』 73)로도 표기되었다.

16) 미국정부는 조선보빙사를 안내할 접반사에 메이슨(Theodore B. Mason) 해군대위와 포크(George C. Foulk, 福久) 해군소위를 임명했다. 포크가 조선 보빙사 통역을 맡게된 상황은 포크가 임관 직후 아시아 함대에서 재직할 동안 일본어를 공부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보빙사 일원 중에는 일본인 통역 미야오카 츠네지로(宮岡恒次郎)와 중국인 오례당(吳禮堂), 그리고 역관 변수(집안은 중국어 역관을 지냄. 1882년 박영효의 일본행에 동행한 것을 볼때 일본어도 당시 혹은 후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가 있었다

보빙사 관련 연구는 다음 논문 참조

게리 딘 월터, 1969, 「1883년 미합중국에 파견된 대조선국 특별사절단에 관한 연구, 『아세아학보』 제6

홍사중, 1983, 『상투를 들고 미국에 가다』, 흥성사

김원모, 1985, 1986, 『조선 보빙사의 미국사행(1883) 연구(上)(下)』 동방학지: 49, 50.

邊勝雄, 2002, 「개화정책의 추진」, 『신편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손정숙, 2007, 「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 29 韓國思想史學會

보빙사의 미국여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태평양을 건넌 보빙사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을 거쳐 미국 동부의 세 개 도시인 뉴욕, 보스턴 그리고 워싱턴이 주요 일정 지역이었다. 뉴욕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제정하였고 병원, 전신회사, 신문사, 우체국,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했다. 보스턴에서는 외국박람회, 월코트 시범농장, 학교 등을 방문했다.

17) 홍영식은 1883년 12월 20일, 고종에게 복명하였고, 민영익 전권대신은 6개월 뒤인 다음해 5월말 귀국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사행에 관한 보고하였다. 조선이나 미국 양국 모두는 보빙사절의 미국방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손정숙, 2007, 「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韓國思想史』 29 韓國思想史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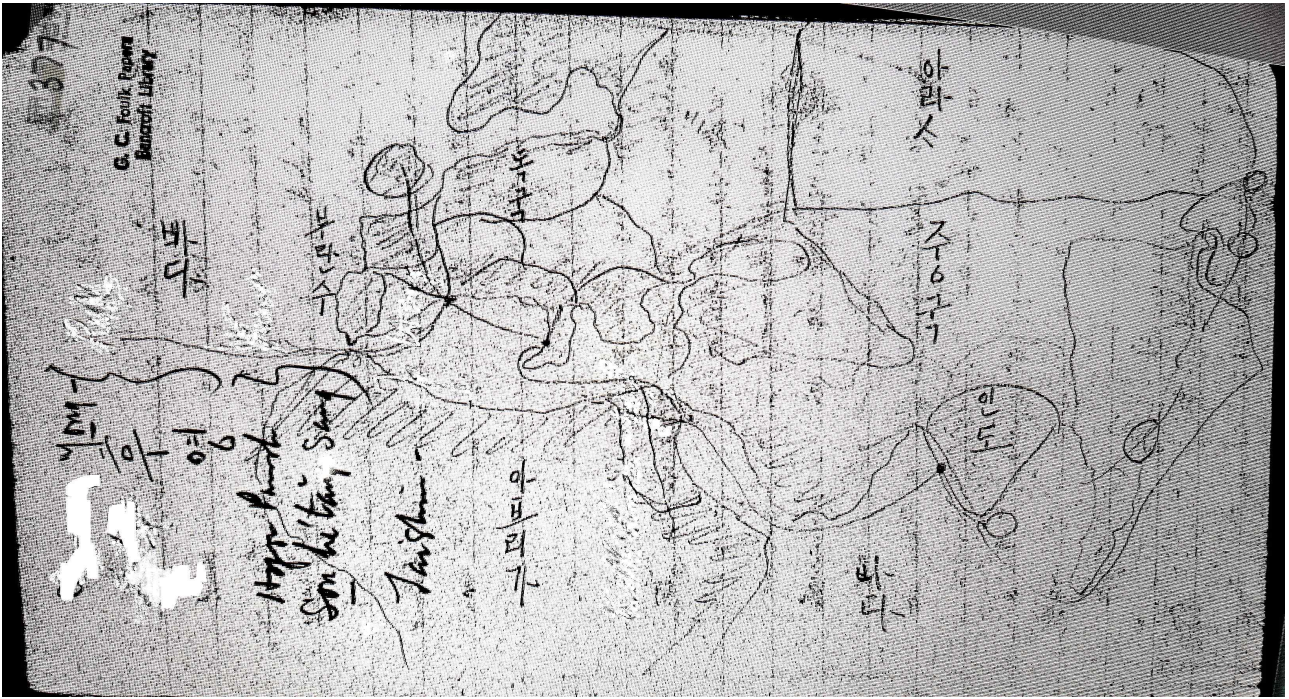


그림 1 포크일기 원본 수첩에 포크가 직접 그린 보빙사 일행중 일부(민영익,서광범,변수)의 세계일주 여행 지도 (포크가 직접 그리고 한글로 지역 명칭 등을 표기한 것으로 보임, 좌측 하단에는 다른 기록이 후에 기록됨)

당시 미 국무부는 포크에게 미국 상업이익 관련 사항보고와 조선정부, 국민과의 우호관계 유지, 해상교역 관련 분야 전문적 충고를 요구하였고 해군부는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 조선의 주요 항구 및 내륙탐사를 진행하여 해군에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미국공사관 무관인 포크에게 부여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국무부와 해군에서 지시한 요지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관계를 유지” 하라는 것이었다. 포크는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조선인과 대화하여 언어 능력을 키웠고 중요 관료와 유대관계를 맺었다. 조선의 문화, 주민에 대해, 또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공부했다. 포크의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포크는 곧 그의 상관이자 첫 번째 조선 주재 미국공사인 루시우스 푸트(Lucius Foote)보다 조선을 더 잘 이해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부모에게 털어놓았듯이 푸트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의 실제 정세를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는 의미였다.¹⁸⁾

한편 포크는 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에 관한 구체적 정보수집을 위해 조선 조사계획을 세웠다.¹⁹⁾ 처음에는 세 번의 조사계획을 세워 1차 경기도 중심부와 2차 조선 남반부를 가로지르는 조사 및, 3차 조선북부 지방을 조사하는 계획이었다. 처음 두 번의 조사는 진행하였지

18)손정숙,2004,「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 연구(1884~1887)」 『한국근현대사연구』31 한국근현대사학회

19) 조선에 대한 조사활동의 첫 번째 사례는 1883년 11월 상하이주재 영국 부영사 윌리엄 칼스(William Carles) 등이 사냥과 광산개발을 위한 표본수집 목적으로 조선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탐험을 하였다.칼스는 그의 여행에 관한 11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출판했다. “1883년 10월 한국 중부 2개 지역의 여행에 관한 칼스의 보고서 ”Report by Mr. Carles on a Journey in Two of the Central Provinces of Corea, in October 1883,” Foreign Office Papers, Corea, no. 1(1884)

만 세 번째 계획은 1885년 1월 푸트 공사의 갑작스런 사퇴로 포크가 대리공사로 임명되며 진행할 수 없었으나 이들 두차례 조사과정에서 많은 조선관련 조사기록을 남겼다.²⁰⁾

1차 경기지역조사는 1884.9.22.-10.6.(15일) 서울 북서부,경기 개성지역을 답사하였다. 이때, 북한산성-고양-과주-장단-송도-강화도-통진-김포-부평-제물포-수원-광주-송파-서울을 조사하였다.

또한 북한산성을 방문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설명하였고 서울주변 도로, 해로 교통사정과 운송수단 조사하여 한강 운행 상선항해정보를 보고하였는데 한강 수심과 관련하여 6피트(180cm) 흘수의 배가 항해가능하며 서울 위 10마일까지는 4피트(120cm) 흘수 선박이 항해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²¹⁾

2차조사는 1884.11.1. -12.14. (44일) 경기남부,충청,전라,경상 충청지역을 조사하였다.이때의 노정은 서울-수원-안성-천안-공주-노성-은진-용안-익산-삼례-전주-금구-장성-월평-나주-남평-광주골-평상다리-담양-순창-남원-운봉-함양-거창-해인사-합천-진주-마산-진해-부산-동래-양산-밀양-청도-대구-칠곡-상주-문경-충주-이천-광주-서울에 이르는 약 1500Km의 거리였다. 포크는 이때 당시 관리나 양반들의 이동방법인 ‘보교(步驕)’ 즉, 가마를 타고 당시 조선의 교통로인 삼남대로(해남로; 서울-삼례-해남)와 통영로(서울-삼례-통영) 등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1885.1. 푸트공사가 주조선 미국공사의 서열을 전권공사에서 일반 공사급으로 강등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임하자²²⁾, 포크가 임시 대리공사를 맡아 1885년 1월 - 1886년 6월까지 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고종의 자문역으로 조선의 외교에 깊게 관여하였다. 1886.6. 파커공사가 부임하였으나 업무의 대부분은 포크가 진행하였고 특히, 고종의 자문 활동에 대한 청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어 갑신정변 연루관련 홍콩신문 보도를 빌미로 원세개의 공식 항의에 의해 미국은 1887년 6월 30일 포크를 무관직에서 파면하였다. 이후 포크는 심신이 쇠약해진 상황에서 1887년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일본인 부인과 결혼하고 도시사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1893년 37세의 젊은 나이에 휴양지에서 산책 중 숨졌다. 묘는 일본 교토에 있다.

서울에서의 포크의 집은 미국 공사관이 있는 정동지역이 아니라 미국여행에서 친해진 서광범의 주선으로 개화파들이 주로 사는 서울 입정동 수표교근처에 마련하였다.²³⁾

20) 『포크문서』의 원본은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알렌 문서의 일부로 ‘George C. Foulk Papers’로 보관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서한(1872~1917), 미해군 함정 Trenton 승선시 기록, 신문기사철(1883~1893) 외에 갑신정변 관련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되어 보급되고 있다.

Ensign George C. Foulk,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December 4~7, 1884,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closure in No. 128(朴日根 편, 『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1866~1886, 新文堂, 1984, 995쪽).

金基奭, 1997, 「미국내 한국관계 자료 연구」 『국사관논총』 73

21) Report of Observation made during a Journey in Capital District of Korea, Foulk to Frelinghuysen, Oct 10, 1884. FRUS, 쪽수 미기입 ; 날짜 미기입, Foulk papers, Library of Congress, 1884.

손정숙, 2004, 「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 연구(1884~1887)」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재인용

22) 푸트(1826.4.10~1913.6.4)는 법률가 출신의 외교관이다. 1883년 5월 미국무부로부터 초대 주한미국공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본국정부의 공사서열 강등에 불만을 품고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1885년 1월 공사직을 사임하고 조선을 떠났다.

손정숙, 2005, 「한·미 수교와 초대 공사 푸트의 역할」, 『한국 근대 주한미국공사 연구』, 한국사학

23) 『美案』 1. 고종 21년 11월 11일, July 2, 1884, June 15 1884, Foulk papers.

이 지역은 당시 개화세력 중 역관 등 중인층이 주로 사는 수표교일대의 공간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한 중인들의 모임인 육교시사의 중심지역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특히, 보빙사로 참여한 변수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鄭玉子, 1981, 「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末期 中人層」 『韓·劾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2) 조선 여행을 위한 호조 및 대동여지도 사용

포크는 당시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발급한 국내 내지여행 허가서인 ‘호조(護照) ‘를 지참하여 자신이 방문한 지역 최고 책임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여행허가를 얻어 여행을 진행하였다. 조선에서 발행한 호조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1883년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에서 명시된 호조 관련 내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한 통행허가증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²⁴⁾

한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조의 경우 포크에 앞서 미국해군사관 버나드(Bernadow, 蕃於道)에 대한 호조가 5월 발행되었고²⁵⁾ 1884년 5월 25일, 6월 26일(음) 黃海兵營의 牒呈자료에서 확인된다.²⁶⁾

이같이 호조의 발행은 일본인과 중국인의 입국이 타국인에 비해 많았기에, 호조 발급은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집중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포크의 호조는 미국공사관 외교관인 포크가 조선정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이를 통한 여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인 여권의 실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호조는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派人護送)’으로써 ‘보호하는 뜻(保護之義)’의 문서라는 점이다.²⁷⁾ 이같은 사실은 포크가 다음 행선지로 옮길 때마다 각 지역의 길나장인들이 나와 그를 맞이하고 매우 소란스러운 행차를 경험하게 된 근거서류가 호조임을 보여준다.

포크는 충청-전라-경상지역 여행허가서인 호조(護照)를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고 각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감사를 비롯한 관리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 갑신년 8월 발급된 호조와 갑신년 9월 발급된 호조 두 가지가 전하고 있다.

이현주, 2018, 『강위의 개화사상 연구』, 선인

24)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최혜국 대우 규정에 의거해서 미국에 앞서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을 균점하여 내지 여행의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한승훈,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 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 52, 2018

25) 八道四都三港口日記 1·2 “關 云云 今者美國軍艦官人 蕃於道氏 爲遊歷東西北內地前往 茲有美國欽差公署 發給 執照 本衙門蓋印畫押 所經各官 以此爲憑 切勿碍阻 俾得隨便遊歷宜當向事 .

黃海江原平安咸鏡沿路各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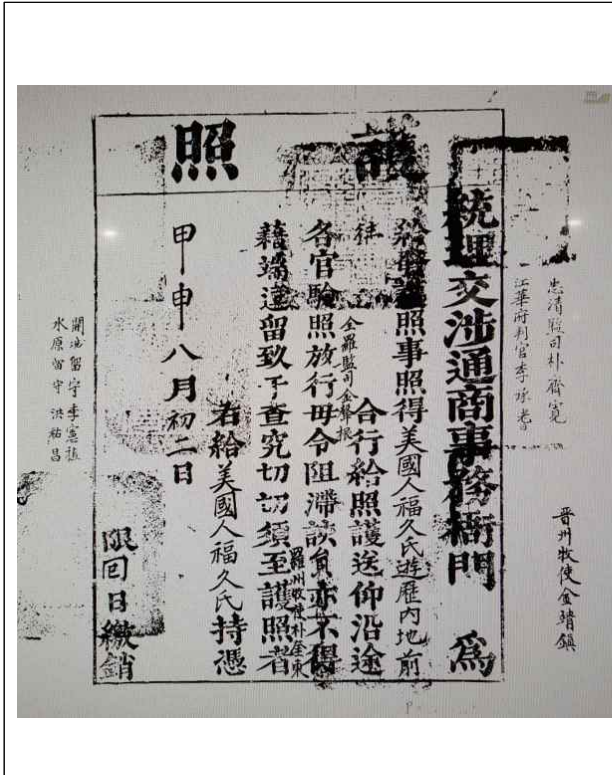
甲申閏五月初一日 關黃海江原平安咸鏡沿路各官 ”

26) “美國人蕃於道, 西北遊覽次, 持通商衙門護照下去” 『各司臚錄』 24, 黃海兵營關牒臚錄 2 甲申閏五月二十五日

필자는 앞서 논문에서 포크 호조가 현존한다는 점에서 미국인을 위한 최초의 호조라고 보았으나 버나드 관련 기록의 확인으로 이를 정정한다.

조법중, 2020,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 『전북사학』 60 p.46

27) 민회수, 2016, 「개항기 査證으로서의 ‘護照’ 제도의 도입과 운영」, 『歷史學報』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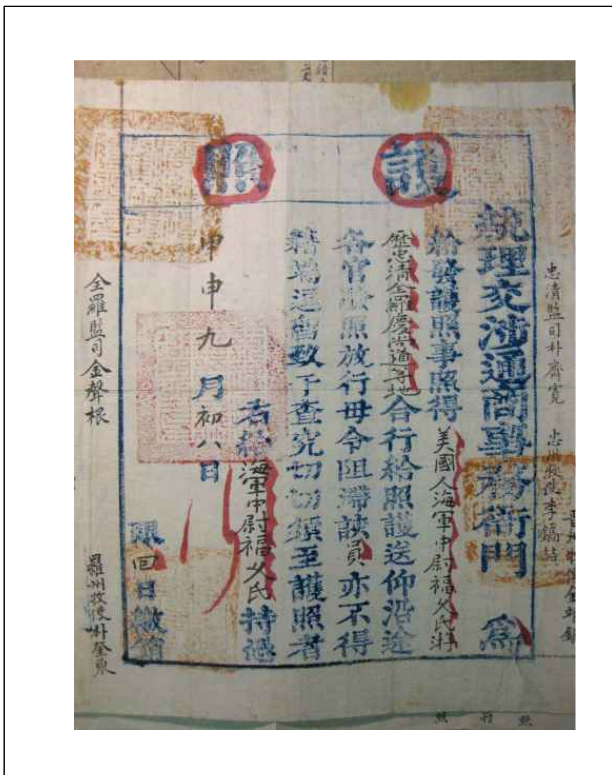


護照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²⁸⁾ 爲
 給發護照事照得 美國人福久氏遊歷內地前往 合行
 給照護送仰沿途各官驗照放行毋令阻滯
 該員亦不得藉端遠留致于事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 美國人福久氏 持憑

甲申八月初二日

限 回日繳銷

忠清監司 朴齊寬
 江華府判官 李承耆
 晉州牧使 金靖鎮
 全羅監司 金聲根²⁹⁾
 羅州牧使 朴奎東
 開城留守 李憲稹³⁰⁾
 水原留守 洪祐昌³¹⁾



護照³²⁾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³³⁾ 爲
 給發護照事照得 美國人海軍中尉福久氏游
 歷忠清全羅慶尙道等地 合行給照護送仰沿途
 各官驗照放行毋令阻滯該員亦不得
 藉端遠留致于事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 海軍中尉福久氏 持憑

甲申九月初八日

限 回日繳銷

忠清監司 朴齊寬
 忠州牧使 李鎬喆
 晉州牧使 金靖鎮
 全羅監司 金聲根
 羅州牧使 朴奎東

28)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조선 고종 19년(1882)에 통리아문을 고친 이름. 외아문.
 29)조선 후기의 문신·서예가(1835~1919).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1862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
 궁내부특진관·의정부참정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국권침탈 때에는 일제에 의하여 자작이 수여되었다. 서예에 뛰어
 났으며, 미남궁체(米南宮體)로서 《근역서화징》에 글씨가 전한다.
 30)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문우(文遇). 본관은 한산(韓山). 부친은 이정부(李鼎溥)이다.
 31)조선 후기의 문관(1819~?). 자는 유성(幼盛). 호는 소운(小芸). 시호는 정헌(貞憲). 1866년(고종 3) 정시문과에 급제
 하여, 홍문관부수찬·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75년 동래부사가 되어, 일본 관리관 곤도와 외교협정을 체결
 - 31 -

포크가 발급받은 호조는 상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갑신년(1884년) 8월달과 9월달 2매가 현재 전하고 있다. 그런데 두 호조에 명기된 지역 책임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충청감사 박제관, 진주목사 김정진, 전라감사 김성근, 나주목사 박규동은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8월 호조에는 강화부판관 이승기와, 개성유수 헌직, 수원유수 홍우창 등의 이름이 수기되어 있어 이는 1차 경기북부권역 여행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9월달 발급된 호조에는 충주목사 이호철의 이름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어 2차 조선 남부지역 조사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포크는 포크는 조선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조선 정부에 관련 지도를 요청하여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지도는 국가중요 정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조선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휴대가 가능한 조선 전국지도가 필요하였을 것이며 당시 확보 가능한 가장 정밀한 전국지도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³⁴⁾였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대동여지도를 포크가 휴대하고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였던 점이다. 즉, 서양인으로서의 최초로 대동여지도를 직접 활용하여 전국을 조사한 최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³⁵⁾ 또한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에 보관된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 관련 지도들을 볼 때 매우 체계적인 지리정보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여지도(여지도)의 경우 모든 지명을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하여 전국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최초의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하였고, 이후 도총부부총판·예조참판·형조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32)갑신년 9월 발급된 호조 사진은 위스콘신 밀워키 주립대(UWM) 도서관 소장 자료임

33)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조선 고종 19년(1882)에 통리아문을 고친 이름.

34) 김기혁, 2018. 「대동여지도 신유본 판본의 변화 단계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7-109

35) 포크가 활용한 대동여지도 원본이 2009년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주립대(UWM)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동여지도 곳곳에는 포크가 조선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듯한 메모와 표시가 남아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지도는 1895년 뉴욕에 본부를 둔 미 지리학회가 포크의 지도와 지도책, 43장의 조선 관련 사진 등을 포크의 아버지로부터 사들였고, 이후 UWM 측이 위스콘신 주정부와 공동으로 미국 지리학회 소장품을 모두 구입함에 따라 UWM도서관이 이를 소장하였다.

이 대동여지도에 대해 UWM은 2009년 11월 20일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AGSL)에서 `한국의 날` 행사와 함께 `19세기 한국의 지도-한국의 보물 대동여지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대동여지도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美 위스콘신대 도서관서 대동여지도 발견”, 연합뉴스 2009-11-11

3. 전라도 지역별 조사 개요

1) 전주권역: 용안, 전주, 금구, 정읍

1884	출발	도착
11.1.	서울	수원
11.2	수원	소사평
11.3	소사평	천안삼거리
11.4	천안삼거리	공주
11.5	공주	공주
11.6.	공주	은진
11.7.	은진	용안
11.8.	용안	용안
11.9.	용안	삼례
11.10.	삼례	전주
11.11.	전주	전주
11.12.	전주	원평
11.13.	원평	군령다리
11.14.	군령다리	영신
11.15.	영신	나주
11.16.	나주	나주
11.17.	나주	경양(광주)
11.18.	경양(광주)	개고개(순창)
11.19.	개고개(순창)	여원치(운봉)
11.20.	여원치(운봉)	사근역(함양)
11.21.	사근역(함양)	권빈(합천)
11.22.	권빈(합천)	해인사

11.23.	해인사	야로(합천)
11.24.	야로(합천)	평구(삼가)
11.25.	평구(삼가)	진주
11.26.	진주	반성역
11.27.	반성역	마산포
11.28.	마산포	김해
11.29.	김해	부산
11.29.	부산	부산
11.30.	부산	부산
12. 1.	부산	부산
12. 2.	부산	통도?
12. 3.	통도?	이창점(밀양)
12. 4.	이창점(밀양)	남촌주막
12. 5.	남촌주막	대구
12. 6.	대구	장내거리(인동)
12. 7.	장내거리(인동)	성골(상주)
12. 8.	성골(상주)	신원(함창)
12. 9.	신원(함창)	조령(문경)
12.10.	조령(문경)	충주
12.11.	충주	장해원
12.12.	장해원	이천
12.13.	이천	광주
12.14.	광주	서울미공사

표 7 포크 전체 일정표

(1) 11월 7일-9일: 용안, 금강에 좌초한 미 군함 앨럿호 도움 준 용안현감에게 사례

1884년 11월 7일 포크는 강경을 지나 용안에 도착해 숙박하고 11월 8일 용안현감을 찾았다. 포크가 용안을 방문한 이유는 앞서 11월 5일 공주에서 충청감사에게 질문하였듯이 미 군함 앨럿(Allert)호가 좌초되었을 때 도움을 준 용안현감을 찾아 사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앨럿 호(USS Alert)는 미국 해군의 1,020 톤, 전장 60.88m 전폭:9.8m의 철제 증기선으로 1883년 10월부터 아시아에 배치되어 1884년 2월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동중국해와 황해 등에서 활동하였다. 아마도 1884.2-1884.11, 사이에 금강에 진입하다 조수 간만차에 의해 좌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도움을 준 용안현감에 대한 감사인사 전달이 삼남지역 조사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용안현감은 김노완(金魯莞)이었다.³⁶⁾ 김노완은 이에 앞서 1881년 統理機務衙門事에 임명되었고³⁷⁾ 1882년에는 砥平縣監이었다가 1884년 용안현감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앨럿호가 아시아함대에 배치된 시기와 중첩되어 앨럿호 좌초시 도움을 준 현감이었다. 포크기록에는 김노완이 평안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서광범 집에 유숙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서광범은 김노완을 동지로 묘사³⁸⁾ 했다. 또 일본에 건너가 군사훈련 받고 돌아온 군인으로 1881년 4월 별기군 조련을 위해 일본측과 연결된 내용을 보여주었으며³⁹⁾ 1882년 임오군란때 관통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한 존재로 이후 회복되어 용안 현감을 맡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노완은 서광범의 친구이자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와 별기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임오군란때 살해대상으로 대표적인 개화파 인물로 파악된다. 특히, 전주의 80대 노인에게 문명화와 개화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한편 용안에는 조선 후기 조창인 용안 덕성창과 관련된 공간에 ‘타시카의 동생’으로 표현된 존재가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다. 당시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데 포크와 친한 존재로 언급된 ‘Tashika’로 불린 존재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⁴⁰⁾

(2) 11 월 10-12 일: 전주, 전라도 농경 개선방안, 전라감영 묘사 및 관련 문화, 사진소개

포크는 근대적 기록과 측정도구 즉, 사진기, 나침반, 시계, 온도계, 기압계 등을 소지하고 근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전주의 정황을 가장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전라감영에 대한 기록은 기존 논문에서 전라감영에 대한 매우 세밀한 묘사, 전라감영에서의 환영연회와 기생들의 춤, 전라감영의 어마어마한 음식 대접⁴¹⁾ 등 내용과, 전라감사의 환생담과 관련된 문제, 해외무역 및 농업 문제 등에 대해 다루었다.⁴²⁾

36) 용안현감 金魯莞은 高宗 21년(1884, 甲申) 1월에 임명되어 1886년 1월까지 재임하였다.

이동희, 1995, 『朝鮮時代 全羅道の 監司·守令名單』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37) 經理統理機務衙門事 閔謙鎬를 館伴에 임명하고, 또 兪知中樞府事 韓聖根을 參劃官, 前府使 姜潤·金在亨, 前中軍 尹雄烈, 副司果 金魯莞을 아울러 統理機務衙門事에 임명하다.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5月 7日

38) 서광범이 말하기를...이현우, 윤용렬, 윤영렬(尹英烈), 전석두(田錫斗), 김노완(金魯莞) 등은 모두 동지이다.. 사료 고종시대사 10 1881년(고종 18년) 3월 15일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일본 외무경에게 서광범과 이현우를 면담한 내용을 보고함

한편, 김노완은 1896. 1. 서재필일기에 그의 친구로 언급되고 있다.

39) 무위별군관(武衛別軍官) 윤용렬(尹雄烈)·김노완(金魯莞)이 병졸을 이끌고 우리 육군 소위(少尉)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및 어학생(語學生) 다케다 진타로[武田甚太郎]에게 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모두 건장하고 강경하여 자못 가르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종시대사』 10 1881년(고종 18년) 4월 11일

일본 변리공사, 군사훈련 장소를 정해 줄 것을 청하는 서계를 보내음

40) 이와 관련하여 한남대 김윤희 교수는 개화파 중 일본 이름을 가진 3인의 존재로 김옥균은 이와다슈사큐(암전조작), 이와다 산와(암전삼화), 박영효는 야마자키 에이순, 육종윤은 다마다 등을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교수는 ‘Tashika타시카’를 田麿로 추정하였으나 특정키 어렵다고 하였다. 당시 포크가 용안에서 Tashika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볼 때 상당히 가까운 존재로 추정된다.

41) 송영애, 2019, 「포크(Foulk)의 일기에 기록된 전라감영의 접대문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42) 조법중, 2020,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 『전북사학』 60

1884년 11월 10일, 포크는 삼례를 떠나 사수강(泗水江)(Sac-su-gang=현재 만경강)을 건너 전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하루 동안 머물렀다. 그는 고을을 돌아보고 통역인 전양묵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전라도 감영에 가서, 하루 종일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다. 포크는 자신의 일기에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전라도감영을 11월 10일 그리고 11일 두 차례 공식 방문한 포크는 전라도감사 金聲根을 만나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전라도감사 김성근은⁴³⁾ 서재필의 外叔으로 그가 7살 때부터 한양의 김성근집에서 지냈다. 김성근과의 대화내용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는 데 그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크는 자신의 전라도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서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첫째, 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많은 미경작지를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조선이 농업국가로서 쌀을 비롯한 농업생산에 국가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라도 관찰사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농업생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둘째, 나주지역 방문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 서양식 증기선 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양선으로 상징되는 증기기관선의 도입을 통해 조선의 조세운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라도 관찰사 및 조선의 입장에서 환영할 내용이었다. 특히 전라도지역의 많은 쌀이 서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운선의 난파와 여러 문제로 인한 원할치 못한 세금 운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트랜트호를 제공하여 보병사를 귀국시켰던 사실과 연결되어 미국의 해운항만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 확보차원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주지역에 대한 관찰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역방문 목적이 이같은 여러 목적을 포괄한 조사활동임을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미국 등 서양문물에 대한 소개와 비교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카메라 촬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때 촬영한 사진 2장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1884년 당시 전주 전라도감영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점이다. 한편, 전라도감사 김성근은 사진 촬영 요청시 앞서 금강에 좌초되었던 미군함 Allert호의 사진을 포크에게 제시하였다. 미군함 사진의 입수경위를 묻자 독일인을 통해 얻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상황은 당시 조선의 지도부세력들이 화륜선 즉, 증기선 확보에 큰 관심이 있었으며 관련 사진 등을 통해 서양의 화륜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43)김성근은 (1835(헌종1)~1919)은 조선 후기의 문신·서예가(1835~1919). 자는 仲遠. 호는 海史,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에서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고종시대사』 2집 高宗 20年(1883) 1月 11日(癸巳) 趙康夏를 慶尙道觀察使兼慶尙道兵馬水軍節度使, 金聲根을 全羅道觀察使兼全羅道兵馬水軍節度使, 鄭基勉을 吏曹參議, 閔泳穆을 弘文館提學에 任命하다.

포크는 전라감사에게 근대적 기자재인 사진촬영을 요청해 카메라로 상징되는 근대문물을 전주에 소개하였다. 특히, 이미 근대 과학적 발명품을 대변되는 시계가 감영에 존재하며 미국 전함 Alert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전라감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를 시연하여 근대문물을 처음으로 경험케하는 새로운 문화충격을 선사하였다.

이같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 문물의 전라도지역 소개와 전라감찰사의 서구 근대의 관념들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였다. 특히, 김성근은 자신과 관련된 고승의 환생이야기⁴⁴⁾를 전하며 불교적 윤회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서양과 동양의 인식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포크가 기록한 영에서의 활동은 전라감영이 새로운 문물 수용의 중심이자 전파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포크는 자신에 대한 환영연회후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춤이 끝난 후 나는 카메라를 꺼내놓고 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조명이 무엇인지, 유리컵에 든 신비로운 약이 무엇인지 따위와 같은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참석한 대인들 전체가 아이들처럼 순진한 표정을 짓고 내 지식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감사는 신문물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부하 관리들과 더 친밀한 태도를 보여줬다. 나는 기생과 감사, 전체 군중을 사진에 담았다. 모두 6장의 사진을 28-35초, 1/2-3/4인치 노출로 찍었다.”

또한 전라감사가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게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분명 우리가 도착한 때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목과 수일은 나와 여행의 마치고 전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질 것이다. 나는 우리의 사고방식 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수일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리, 제 몸 안에 빛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 손에는?”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알지?” 그는 온기가 있다고 말하며 몸짓(자신의 손을 가리키며)을 했다. 손을 문지르며, 그 온기와 움직임이 빛이 된다고 했다. ...이제 그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3) 1884년 11월 12일-13일: 금구, 태인, 정읍

-금구(金溝)(Kumku)

포크 방문했던 금구의 縣令은 金炳肅으로 高宗 19년(1882, 壬午) 11월 임명⁴⁵⁾되어 1885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⁴⁶⁾ 포크의 인상은 “옷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얀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그가 내 모습이 맘에 들며 예절을 갖춰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44) 전라감사 김성근과 관련된 원등사 승려 해봉의 환생담

45)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년) 11월 8일 경인 8/21 기사

○ 尹弘善啓曰, 卽者吏曹郎廳來言, 金溝縣令金炳肅, 金化縣監李哲永, 長連縣監申錫孝等, 當爲署經, 而兩司前望未下, 不得署經云, 何以爲之? 敢稟。傳曰, 除署經。

46) 김병숙 현감은 천안군수로 재임할 때인 1896년 2월 을미의병시 제천의병에 의해 처형되었다.

『신편 한국사』 43 국권회복운동 IV. 항일의병전쟁

관리는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서양 세계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과 능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하여 전형적인 국제적 인식이 결여된 조선관리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또한 포크는 금구지역에서 민족적 특징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금구(Kumku)에서 몇몇 인상적인 얼굴에 주목했는데, 더 둥그렇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선인과 달랐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까만 눈동자와 두꺼운 속눈썹이었다. 또한 매우 **말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라고 기록해 인종적 특징 파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원평에서는 전주에서 50리, 나주에서 200리, 태인(Thani) 읍내에서 20리, 장성(Changsong)에서 120리 떨어진 원평(Wonpyong)으로 묘사하고 “커다란 장터로 주막의 마당이 넓었다. 훌륭한 방이 많았는데 내부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깔끔했다. 밥이 내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나왔고 맛도 좋았다. 이 길을 따라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는 말이 있다.” 라고 소개하였고 “오늘은 날씨가 줄곧 이상했다. 아침에는 바람이 불고 흐렸는데 이상하게도 기온은 따듯했다.(70-73F° : 21-23°C-) 그러더니 낮 동안에는 하늘이 파랗고 추워졌다. 오늘밤은 더 따뜻하고 지금은 비와 눈이 함께 내리고 있다.” 라고 기록해 온도와 기압을 기록하였다.

태인에 대해서는 “태인(Thani)은 크고 예뻐다. 넓은 계곡의 맨 앞부분에 곡선을 그리며 위치했다. 당당한 관청 건물이 많았고 지름이 450피트(135m)인 연못이 있었다.⁴⁷⁾ 연못 서쪽 끝 중간 부분에 섬이 하나 있었다.” 라고 묘사했다. 특히, 태인 ...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따라 과거에는 길이 잘 관리됐던 흔적이 보였다. 길을 따라 소나무가 일정하게 심어졌고 너비가 균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들만 남았다. 불규칙하게 좁아지고 너비는 대략 8피트(2.4m) 정도 되는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여 도로 양상과 관리상태에 대해 기록하였다.이곳을 지나 영지원(迎支院)(Yon-chu-won)주막에 머물러 점심을 하며 ” 음식은 매우 깔끔하고 좋았다. 하지만 음식의 가격은 전주에서 보다 약간 더 높았다.(30푼 정도) 서울 근교와 송도(Songto)에서는 70, 80, 100이었다. 또 말과 관련해서 언쟁이 있었다. 오후 3시 40분, 기압은 30.51, 기온은 48F° (9°C)다. “라고 하여 역원의 상태와 역말 징발 관련 언쟁등을 기록하였다.

한편, 갈재를 넘는 마을인 군령다리(Kunyong-tari) 마을에 대해서는 큰 주막이었지만 끔찍하게 더럽고, 벌레가 많았으며, 진흙투성이의 무너져 내릴 듯한 가축우리 같은 오두막을 모아놓은 곳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감히 좋은 집을 지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관아의 관리가 그들을 붙잡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냉혹한 강도들이라며 조선 관리들의 문제를 적시하였다..

또한 오전부터 계속 평야지대로 이어진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부터 쪽 뺀 커다란 계곡안의 평야지대를 지났다. 그리고 앞쪽에는 우리가 따라왔던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산맥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곳의 조선 지도[대동여지도]는 거의 정확했다.라고해 대동여지도의 우수성을 적기하였다.

또한 곡식저장 방식인 ‘노적거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 나는 쌀알이 달린 벼줄기가 들판이나 마을 근처 여기저기에 높게 쌓여 있는 것에 주목했다. 보호 시설이 전혀 없는데도

47) 전라북도 태인 피향정 연못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특이했다. 사용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래서 타작은 당장 사용할 만큼만 이루어졌다. 이제야 나는 쌀이 이렇게 보관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집에 그 양을 저장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읍 갈재를 지나며 기압은 30.23, 기온은 73F° (23℃)였다. 고갯마루 20피트 아래는 (기압 29.632, 56F° =13.3℃)이었다. 북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노출 22초).를 기록해 온도, 기압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2) 나주, 광주권역

(1) 1884년 11월 14: 장성- 월평장, 영신역원

포크는 장성(Changsong) 월평장(Wolpyong chang)에 대해 ” 한 곳은 장터였고 다른 곳은 관리의 집처럼 느껴지는 백성들의 가옥이 모여 있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이 이런 집에 사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라고 서술해 일반백성의가종기 훌륭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 외딴 주막으로 표현된 永申驛院을 모델로 조선의 역원 평면구도 모습을 스케치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현존 역원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일한 구조도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영신역원의 공간구조는 전형적인 □자형 공간으로 이 구조는 19C말-20C초에 활동한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에 나타난 ‘넉넉한 객주’ 모습이나 ‘촌가녀막’ 과 기본적 구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신역원의 경우 넉넉한 객주 모습과 기본 구도가 거의 유사함을 보여준다. 특히, 김준근의 그림은 앞서 포크와 같은 시기 근무한 영국 외교관 칼스의 저술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시기 상황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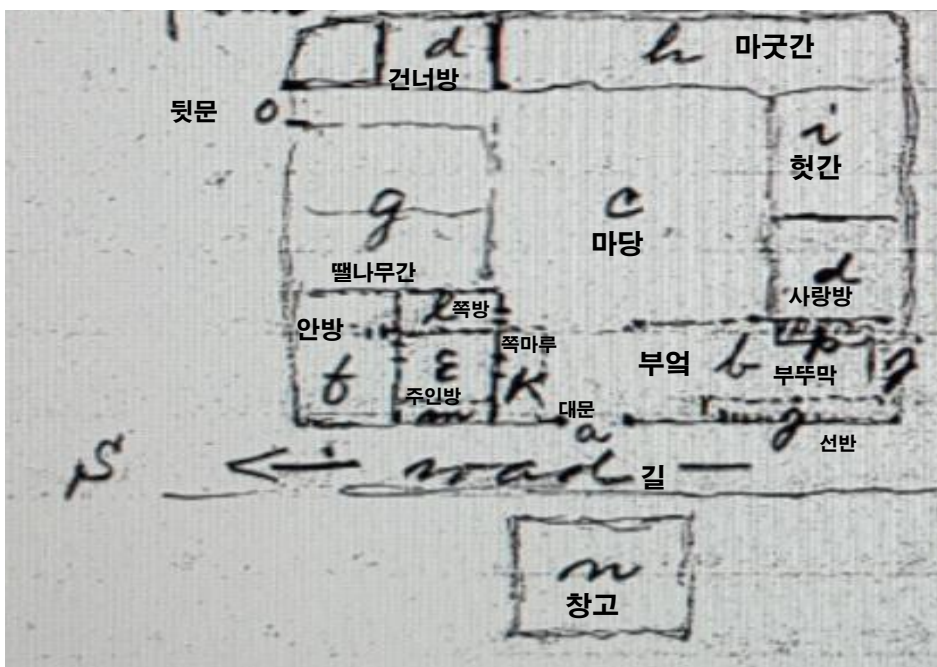


그림 4 포크묘사 영신역원 구조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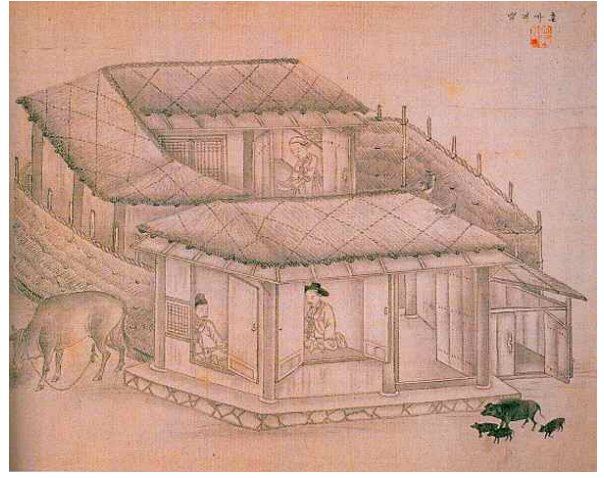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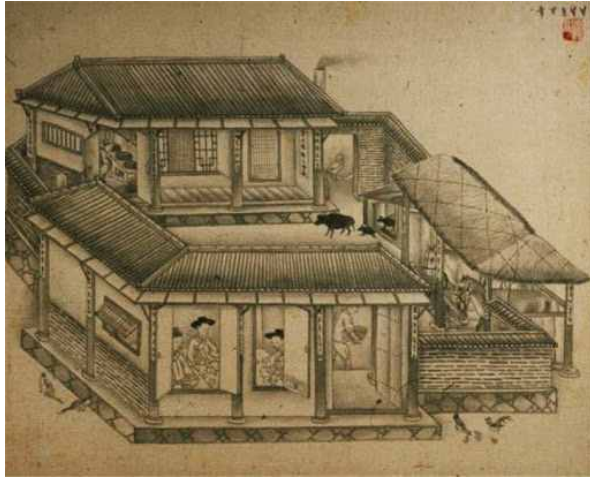


그림 5 김준근 《기산풍속도첩》〈넉넉한객주〉(좌),〈촌가녀막〉(우), 1890년대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MARKK) :국립민속박물관,『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p.62-63

조지 포크가 붙여 놓은 명칭들은 아래와 같다.

- a. main entrance(대문)
- b. kitchen(부엌)
- c. open center-yard(마당)
- d. guest rooms(건너방)
- e. host's room(주인방)
- f. anpang, wife's room(안방)
- g. shed for wood(땨나무간)
- h. stables(마굿간)
- i. shed(헛간)
- j. shelves for dishes(그릇 놓은 선반)
- k. porch(쪽마루)
- l. little room(쪽방)-sleep or rest
- m. front porch(앞 베란다)
- n. a shed-open for luggage & (창고)
- o. back gate(뒷문)
- p. cooking place heats room d
(부뚜막: 부엌에서 d방에 군불을 땨다)

또한, 주막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는 데 이 집은 보통 시골 백성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소유고 (주인의) 배필(beppin)로 언급된 첩이 함께 운영하는 역원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 그녀는 첩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주인의 ‘배필’ 이 사는 여기처럼 안락한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의 진흙 구덩이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

또 역참관련 언급으로 말 사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소란을 일으킨 내용과 역원에 토지 지급 내용도 기술하였다. “역말(yokmal)에 정부는 관리들의 말 사료를 위해 특별히 토지를 할당한다.” 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자료도 소개하였다.

(2) 11월 15일 나주

나주에 도착한 포크는 나주 성곽(성벽에 둘러싸인 지역은 1/2- 3/4마일(800-1200m) 에 관심을 갖고 성곽내 대도시를 기대했으나 내부진입을 통해 서쪽과 남서쪽에 있는 작은 구역에만 집들이 지어져 있었던 점에 실망하였다. 또 나주관아 건물들은 조선의 다른 곳과 비교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숫자가 많았으며 영문에서 그와 면담했다. 커다란 공간 같은 건물이었다. 높긴 했지만 다른 곳의 영문처럼 거대하지는 않았다. 이곳의 모든 관청 건물이 가진 특징이었다. 그의 숙소는 관아 북쪽의 커다란 관청인 나주 객사 금성관(錦城館) 이었다.

한편, 나주목사⁴⁸⁾에 대한 평을 기록하였는데 ” 50세쯤으로 키가 크고 강인해 보였다. 그는 이곳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초록색 옷을 입고 다른 이들처럼 줄을 바짝 댔다. 그의 하인들은 살벌한 그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절을 갖추지 않고 부주의하게 대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만난 다른 모든 조선인들처럼 그는 조선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도 더했다...목사는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센스가 전혀 없었다. 그는 나에게 거의 고래만큼 큰 물고기와 종이를 담은 커다란 바구니 등등을 보냈는데 당연히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농민 태생으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오직 엄청난 대식가로만 유명했다. “⁴⁹⁾라고 기록해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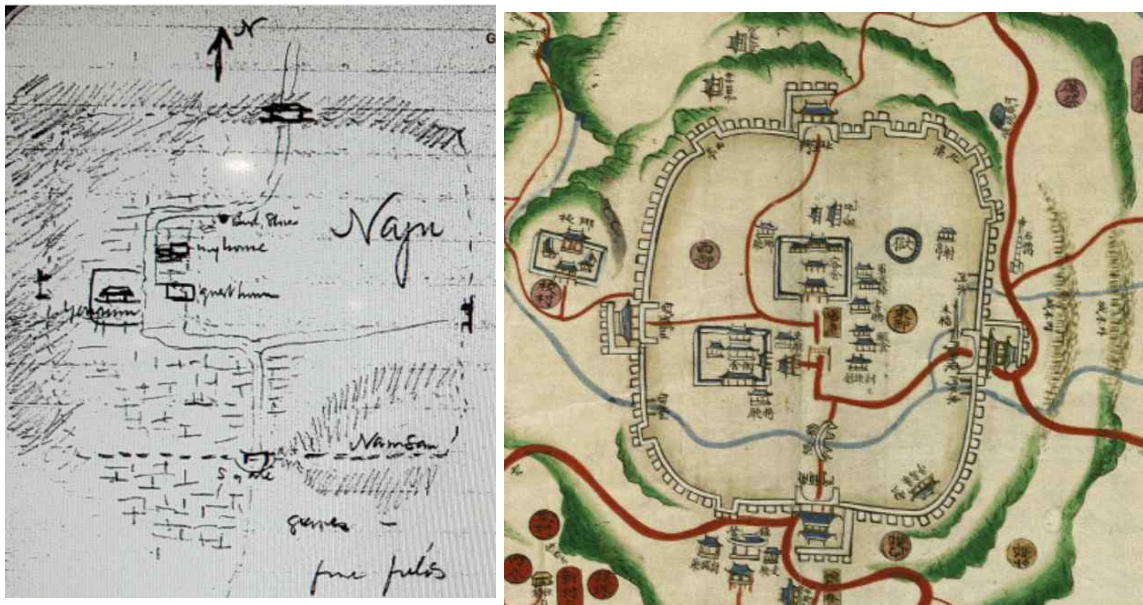


그림 6 1884.11. 포크목사 나주읍성도와 1872년 나주지방도에 나타난 나주읍성
포크는 위쪽 북문으로 진입해 가운데 객사에서 머물렀다. 지방도에는 모든 문에 옹성이 그려져 있지만 포크 지도에는 남문에만 옹성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8) 나주 목사는 박규동(朴奎東)은 고종21-23년(1884.9.20.-1886.6.19.)까지 재임하였다. 고종21년 1884년 錦城館을 중수하였다.

49) 일반 참고사항: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관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선혜청 당상(S’hon-ha-nang-ch’hong)’이고 다른 자리는 나주 목사라고 했다. 가치가 높은 많은 물품이 그곳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한편, 나주지역의 산업에 대해서는 나주의 제조업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서 상점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주생산품으로 소반,베개,서반,등잔,옷칠,최상품 부채가 언급되었다. 즉, ” 주로 작은 밥상인 소반(小盤)(sopan), 베개, 책상과 결상, 양초 따위였다. 대개 이런 물건들에는 옷칠을 했다. 칠기(漆器)는 오직 나주 고을에서만 만들어졌다. 검은색이거나 불그스름하거나 갈색이었다. 내가 본 모든 물건들은 얇은 칠이 되어 있었고 고르지 않았다. 칠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매끄러웠다. 나주는 또한 최고의 부채가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다. 통영(統營)(Tongyong), 대구(大邱)(Taku) 등 다른 곳도 부채로 유명했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다. 집안이나 거의 모든 다른 물건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기계적인 솜씨를 보여준다. 무언가 일본을 닮은 듯도 하나 분명 품질이 더 좋지는 않았다. “

서울 관리들의 집에 쓰일 제일 좋은 물건들은 오직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은 자신들의 헛간에서, 한 명은 여기, 다른 사람은 저기 흠어져 각자 조금씩 만들어냈다. ...나주 전역에 걸쳐 몇몇의 불품없는 상점만을 볼 수 있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정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다. 소고기와 과일 혹은 국수, 아니면 약간의 품질이 좋지 않은 종이 상자를 팔았다. 짙은, 종이 따위와 밝은 색의 작은 비단 제품들이 있었다. 면직물을 만들면서 장대기를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많은 양의 면직물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주의 농업은 밀농사(2모작)가 많이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나주의 내륙수로에 대해 남쪽으로 1마일(1.6km) 거리쯤에 폭이 좁은 강(江[영산강]이 있었다. - 지도 50)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강이었다. 이곳에는 조수가 있었는데 조수간만 차이가 대략 4-5피트(1.2-1.5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는 나주에서 10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고을 서편의 언덕 기슭 부근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는 꽤 큰 배들이 쌀 따위를 싣기 위해 들어왔다(서울 세미(稅米)선은 아니었다). 개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내가 볼 수 있는 한도에서, 몇 마일 거리로 뻗었다. 강둑은 비옥하고 넓은 평야로 모두 경작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동쪽 방향으로만 마을을 9개까지 세다가 멈췄다.

-동쪽 둑의 나루터에 왔다. 이곳의 강(江[영산강]은 중심부가 4피트(120cm) 깊이고 물살은 3-4노트(5.5-7.4km/시속)로 북쪽에서 흘러들었다. 아마도 나주 이전에 우리가 따라왔던 물줄기들이 이 강의 지류일 것이다. 뱃줄, 배, 그리고 나무다리가 있는 깔끔한 나루터였다. 남쪽 둑은 15피트(4.5m) 높이로 점토로 이루어졌고 양옆으로는 훌륭한 들판이 있었다. 길은 평탄했다.

나주사람들에 대해서는 ” 이곳 사람들은 서울이나 충청도의 사람들과 다른 면을 보여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소 조선에서 보던 것보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더 검다는 것이다. 앞머리는 칠흑 같이 검고 두꺼웠고 속눈썹도 마찬가지로였다. 일본 사람들도 많이 그랬다. 전주부터는 키가 큰 남자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각 장소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았다. 때때로 나는 이곳에서 매우 부드러운 타원형의 얼굴과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어 놀라곤 했다. 무척이나 잘생겼다. 이들은 보통의 조선인들보다 더 작고 동그란 매우 검은 눈을 가졌다. 분명하게 구분됐다.

50) 포크는 일기에 그런 지도가 아니라 자신 소유의 지도 [대동여지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에서 사진 촬영기록을 남겼다. 남문에서 우리는 벽을 따라 대략 100피트(30m) 높이의 남산까지 갔다. 이곳에서 나는 고을(노출 17초)과 목사와 군중의 사진(노출 17초)을 찍었다. 남문에서도 나주고을 사진을 두 장 찍었다. 각각 16-17초의 노출을 사용했다.

남평지역의 경우 광대한 농경지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었다. “ 광대한 평야가 펼쳐졌다. 마룻바닥처럼 평탄하고 모두 경작지였다. 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15-20마일(24-32km) 정도까지 내다보였고 거의 4마일(6.4km) 넓이였다. 완전무결하게 끊어지지 않는 벼농사의 지평선이 펼쳐졌다.... 평야는 훌륭하게 배수가 이뤄졌으며, 그 안에는 발작물을 재배하는 돋워진 평평한 땅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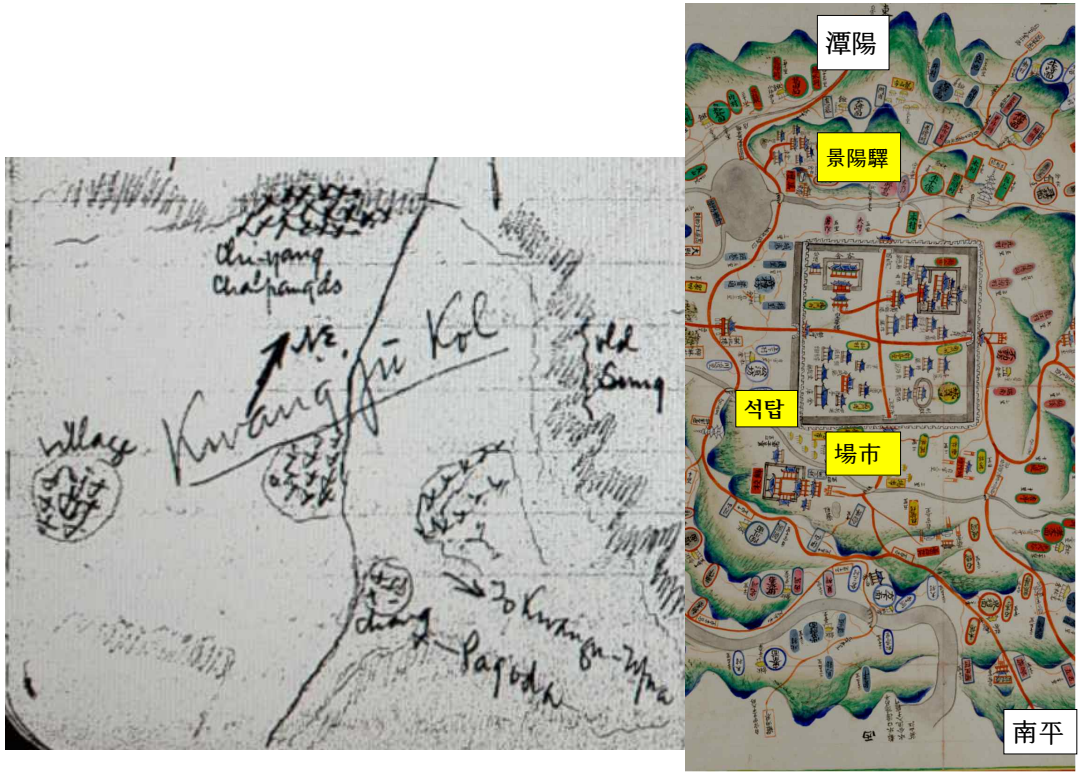


그림 7 포크묘사 광주지형도와 1872년 광주지방도에 나타난 광주읍성

이에 대해 포크는 “이곳은 조선에서 지금껏 본 가장 훌륭한 평야” 라고 평가하였고 고지대 산물과 봄밀, 배추와 무, 목화밭 등에 대해 언급하며 조선 농업지대중 가장 좋게 평했다. 토양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평야의 땅은 갈색으로 비옥했고 약간의 모래가 섞인 밭도 있었다. 윗부분은 작지만 뿌리가 실하게 달린 무가 자랐다. 나는 감탄할 정도로 참외와 고구마에 적합한 토양이라고 판단했다. 장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고구마를 봤다.” 라고 파악하였다.또 소금관련 기록을 통해 영광(靈光)(Yong Kang)의 법성(法聖)(Papsong)에서 생산된 소금의 운반상황을 기록하였다.

광주 일대에서도 적갈색 토양에 대해 언급하고 논농사와 밀, 목화재와 유통에 대해 기록하였다. 평상다리(Phyong S'hang-tari) 주막의 경우 운영자가 약제사임을 기록해 주막운영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포크는 담양에서 특히, 불교유적지에서 접한 석당간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 “11시 30분 담양 관아로 갔다.. 11시 40분에 상태가 좋은 6층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멀리서 볼 때 커다란 장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있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매우 특이한 기둥이었다. 불교 유물이었다. 높이는 40피트였고 작은 종이 매달린 이중으로 구조된 반지 모양의 쇠고리가 얹혀져있었다. 그 위는 쇠스랑처럼 뽀족하게 갈라졌다. 전체 기둥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부분이 서로 묶여 있었다. 커다란 철제 밴드로 마디를 두르고 조였다. 하지만, 위쪽 세 번째는 나무였는데 원통형으로 구조된 철로 꼭대기까지 덮었다. 돌로 된 부분은 8각형이었고 상당히 잘 깎았다. 석조 부분은 6개가 세워졌고 나머지는 철이었다. 밑단은 두 개의 커다란 돌기둥 사이로 엄청나게 큰 철제 쇠테가 조여져 돌기둥이 고정되었다. 줄무늬 따위가 새겨진 장식이 보였다. 두 번째 묘비석 같은 돌에는 이 기둥의 기원을 알 수 없다는 비문이 남겨졌는데 220년 전에 강풍에 무너진 석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맨 윗부분 철조 부분이 세워졌다고 했다. 기둥은 오래되어 닳은, 작은 돌판 혹은 주춧돌 위에 세워졌다.

이 기둥은 탑 가까이에 있었다. 기둥과 탑 서쪽에, 다시 말해 북동↔남서 방향의 담양 쪽으로는 오래된 나무들이 두 줄로 뒤얽혀 쪽 심어져 있었다고 하여 관방림 조성 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기록은 현존하는 담양 석당간과 주변 석탑 및 옛길 관련 상황을 종합하여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상세한 묘사와 삽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그림 8 1872년 담양지방도에 묘사된 담양석당간과 5층석탑, 1884년 포크가 그린 석당간모습 (석탑의 경우 포크는 기단까지 포함에 6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3) 남원권역

포크는 담양을 거쳐 순창에 이르러 순창의 규모가 공주나 나주보다 컸다는 언급과 함께 백성들의 집이 잘 지어지고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 순창은 미소(miso, 일본 된장)를 만드는 소스인 된장과 빨간 고추로 만드는 고약 같은 혼합물로 유명했다. 조선에서 최고였다.라고 기록해 순창고추장이 조선 최고의 명성을 이미 이 당시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순창 체계산 미륵바위 또는 화산옹바위로 전하는 신앙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남원에서 포크가 주목한 것은 읍성이 새롭게 단장되고 잇는 모습과 남원 사람들의 키가 크다는 점이었다. “남원 주변에서 나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특이할 정도로 많이 봤다. 그리고 키가 무척 큰 남자들도 많았다. 일부는 완전히 유럽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곳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남원읍성과 남문 주변에 적어도 10,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성벽 바깥쪽에는 집이 없었다.)” 라고 언급해 남원 지역사람들의 특징 및 인구 규모가 큰 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남원 만복사지에 대한 관심과 기록이다.

“11월 19일 1시 20분에 우리는 길 왼편으로 황량한 폐허에 도착했다.51) 언덕 뒤편으로 400피트(120m) 정도를 왔다. 아래쪽에는 작은 사찰이 있었고 땅에는 수많은 불교 유물들이 있었다. 나는 네장의 사진을 찍었다. 시간은 11-13초(해가 밝고 날씨가 좋았다)였다. 유물은 다음과 같았다. 절터로 다가가는 길의 왼편 들판에 두개의 커다란 화강암 기둥이 있었다. 네모난 단면으로 두 쌍의 중심이 같은 구멍이 뚫려있었다. 18인치(46cm) 크기로 서로 2피트(60cm) 떨어져 있었다. 그 앞으로 화강암 석상이 있었는데 팔은 위쪽으로 구부리고 남쪽을 바라봤지만 몸은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정상에 3피트(90cm) 높이, 4피트(120cm) 직경의 대좌(臺座)가 있었고 둥그런 기초석이 놓였다. 한 곳에 네 개가 있었고 다른 곳에 더 많았다..... “

포크의 기록은 현존하는 만복사지 유적의 양상을 전한 역시 최고의 기록이자 남은 사진에 의해 가장 중요한 기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룡고개(Piryong Koga)(여원치)를 넘으며 산정상 주막 근처에 새겨진 마애불상 스케치도 남겨 놓았다.

또한 남원에서 별도로 ” 이도령의 일생에 관한 아주 긴 노래 “라는 설명과 함께 ‘ 남원 광한루 오작교 이야기 ‘ 즉, 춘향전의 전체 내용을 요약 기록한 자료가 기록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춘향전 관련 내용의 마지막 어사출도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춘향전 제목이 광한루 오작교 이야기라는 측면으로 부각된 점이다. 또 전라도에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 많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판소리관련 상황과 현존 최고의 춘향전 영문번역 소개 자료로 파악된다.

51) 전라북도 남원 만복사지

4. 포크 촬영사진 자료




포크는 충청,전라도 지역 여행기간중 총 26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사진 가운데 현존하는 사진은 총 7장으로 전라도의 사진은 전주 전라감영 2장, 남원 만복사지 1장이 남아 있다. 이중 전라감영 사진을 활용하여 전주에서는 선화당 내부 복원시 용호병풍⁵²⁾, 전라감영 감사의 자, 득기(纛旗)⁵³⁾ 등을 복원하였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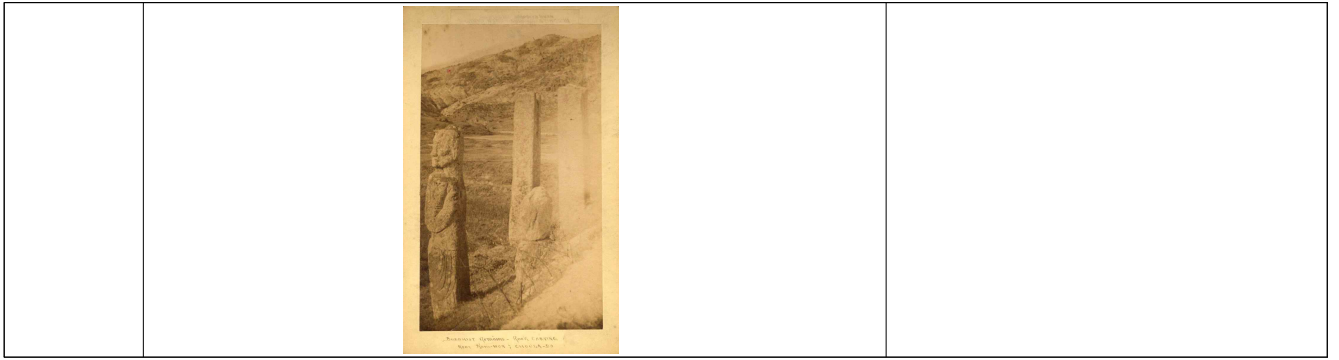
<p>11.5. 공주</p>		<p>1)공산성내 남쪽마을: 2장- 12초, 15초 2)공주감영 중군 오진섬(吳鎭暹)과 아들 3)공산성사찰:23초 1/2 4)공주 중군: 11초 1/2</p>
<p>11.7. 은진</p>		<p>관촉사 은진미륵 6장사진 중 1</p>
		<p>관촉사 은진미륵 6장사진 중 2 (칼스 자료)</p>

52) 윤진영,2020,「전라감영 선화당내 병풍가리개 고증」,『전라감영 선화당 사진자료 검토 보고서』

53) 장경희,2020,「전주감영 선화당 내 기물 고증 연구」,『전라감영 선화당내 포크사진자료 고증연구』

54) 조법종,2020,「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전북사학』 60

<p>11.7. 강경</p>		<p>강경에서 바라본 논과 들</p>
<p>11.11. 전주</p>		<p>전라감사, 사진에 대해 알기 원함. 사진 촬영 요청</p> <p>모두 6장의 사진을 28-35초, ½-¾인치 노출로 찍었다.</p>
<p>11.14. 장성</p>		<p>전라감영 승리의 춤</p>
<p>11.14. 장성</p>	<p>북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노출 22초).</p>	<p>정읍 갈재 정상</p>
<p>11.16</p>	<p>나주읍 전경, 목사와 군중, 남문에서 나주고을 2장</p>	<p>나주 남산,나주 남문 높이 약 100피트. 나주사진 (17초) 목사와 군중 (17초)</p>
<p>11 / 19 남원</p>		<p>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와 화강암 석인상사진 4장 11-13초 (bright sun and clear)</p>



5. 결 론

포크의 기록은 1884년 11월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경기남부와 충청, 전라, 경상지역을 조사한 기록으로 현존 서양인의 기록 가운데 가장 최근 번역 소개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큰 자료이다. 특히, 현장의 모습을 유리원판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가 남아 당시의 생생한 조선사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포크는 근대적 조사도구인 나침반, 기압계, 온도계 등을 이용해 특정지역 특정시간의 측정수치를 기록하여 근대 과학적 조사자료를 남겨놓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본고는 전체 조사일정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 해당하는 11월 8일 용안에서 11월 20일 남원 운봉지역에서 팔만대장경을 찾기 위해 경상도 함양지역으로 이동한 시기까지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기록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크의 조사일기 기록은 포크가 진행한 2차례의 조선 조사중 2차조사 전과정을 가마타고 일정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기록한 것으로 여과되지 않은 기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 느낀 그의 감정과 구체적 정황을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진정성과 의미를 확인케 한다.

둘째, 포크 기록은 세밀한 시간대별 일지형식으로 매일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즉, 기상 이후 여행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30분-1시간 단위로 짧게 세분하여 휴식한 사실과 각 상황이 발생한 위치와 내용을 기록하여 어떤 조사기록보다 시간적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별 시간이 명시되어 당시의 교통로와 거리 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는 점에서 교통로 및 숙박시설 위치 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셋째, 포크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남 지역에서 1880년대 한국 중남부 지역의 기후(가을, 겨울)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서양식 온도와 기압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점이다. 특히, 기압계를 이용해 해발고도를 추산하고 온도계를 통한 과학적 측정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과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이다.

넷째, 포크는 조사를 위한 여행시 숙박장소로 조선의 지방 관아에서 제공한 공간과 함께 전통적인 주막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포크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청제공 공간보다는 역원과 주막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머무는 숙박장소인 주막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매일 최소 80에서 90리를 이동할 것을 가마를 메는 보교꾼들과 약속하였고 『대동여지도』를 이용해 그 거리에 해당하는 주막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 때 관련 비용을 밥값으로 지불하였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밥값이고 숙박비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당시 여행과 관련된 비용과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한 포크는 숙박했던 공간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유사함을 발견하여 대표적인 주막의 모습을 장성의 영신역원을 모델로 그려 그 공간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포크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그의 일기 노트에도 남아있다. 특히, 지명발음을 최대한 당시 음가에 충실하게 표현하였으며 일반 단어들도 표현과 발음 등을 매우 세심히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어 이들 자료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실제 지명의 발음을 표기해 고유지명들의 명칭을 찾아낼 수 있었다. 즉, 지명 가운데 山을 의미하는 ‘피’ 발음이 ‘미’로 표기되어 과천의 葛山을 갈미(Kalmi) 論山을 놀미(Nolmi), 梁山을 양오미(Yang-omi)로 표기하였다. 이는 실제 그 지역인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들 ‘山’ 관련 지명들의 원발음 음가 확인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한자로 쓰여있으나 현지 발음이 다른 또 다른 사례가 광주인근의 ‘뿌교점’을 현지에서는 ‘평상다리 주막(Phyong-S’hang-tari chumak)’이라 한 사례 등과 같이 포크 자료를 통한 원지명 조사와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필자가 기왕에 제기하였던 만경강의 원명칭이 泗水江이란 사실⁵⁵⁾이 포크 기록을 통해 확인되어 일제강점기 지명 변화에 의해 그 연원과 의미가 왜곡된 주요 명칭등에 대한 정정의 근거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⁵⁶⁾ 이상과 같은 특징과 함께 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영문지명 표기정리 및 관련 지명 연구등 향후 진행해야 할 논의가 요청된다.

한편, 전라도 지역에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조사시 좌초되었던 Alert호 지원에 대한 사례와 나주 영산강으로의 증기선 운항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 정부가 추진한 증기선 도입과 운송회사 설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임한 상황과 연결된다. 즉 나주에서 ” (나주)남쪽으로 1마일(1.6km) 거리쯤에 폭이 좁은 강(江)[영산강]이 있었다. - 지도[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는 강이었다. 이곳에는 조수가 있었는데 조수간만 차이가 대략 4-5피트(1.2-1.5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는 나주에서 10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동쪽 독의 나루터에 왔다. 이곳의 강(江)[영산강]은 중심부가 4피트(120cm) 깊이고 물살은 3-4노트(5.5-7.4km/시속)로 북쪽에서 흘러들었다. “라고 기록하여 영산강에 대한 정보 파악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였다.

55)조법중,2006.3.15. 「만경강 이야기 땅과 생명 그리고 강-만경강의 역사」,『전북일보』

56)전라북도에 소재한 만경강의 원명칭은 사수강이었다. 만경강은 조선시대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정착된 명칭이다. 이에 대한 간략한언급은 다음 논문 참조

조법중,2020,「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자료검토」『전북사학』 60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함.

둘째, 전라도지역의 농업 및 산업에 대한 조사였다. 포크는 각 지역 방문시 농경지 상황 및 토양, 농수로 및 제언,제방 등 다양한 농경관련 조건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특히, 전라도 평야 지대의 효율적 활용성에 관심을 표했다. 산업의 경우

셋째, 서울에서 들은 전라도 지역의 경제적 상황 파악이었다. 포크는 전라도 지역의 풍요로움을 기대하였지만 용안-익산-삼례를 지나며 ” 서울의 많은 조선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지역의 풍요로운 상황이나 부유함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의 집과 옷차림은 서울에 비해 훨씬 열악했다. “ 라고 기술하여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이 수교한 조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현실적 파악이 시급했음을 보여주며 이후 조선주재미국 공사의 급이 한단계 하향한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파악된다.

넷째, 군사적 거점인 산성의 위치와 상태, 도로 관리상태, 숙박시스템 등 산성과 읍성,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마다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이들 자료는 당시 조선의 지방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확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전라도 지역 사람들의 형질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금구, 나주, 남원 등에서 서울사람들과 다른 특징들을 묘사하였는데 나주의 경우 ‘잘생겼다’ 는 평을 남원의 경우 ‘옷을 잘 입고 키가 크고 유럽인 같다’ 는 평과 일부 일반 조선인과 다른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경상도 초입인 함양지역에서 ” 경상도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말하는데 활기가 넘쳐 시끄럽기까지 했다. “라는 표현과 함천 지역에서 포크를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 기록한 내용이지만 ” 나는 전라도를 떠난 이후 만난 사람들에게서 타 지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곳의 사람들은 시끄럽고, 목청이 컸으며, 못생기고, 거칠었다. 모든 면에서 호감이 가지 않았다. “ 는 내용과 대비된다.

여섯째, 지방관리의 수준과 역량과 지역의 민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선의 지방관리들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해 거의 무지했으며, 조선내 지리사정도 거의 모른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신랄히 기록하였다. 한편, 충청권 계룡산을 지나며 남긴 정찰, 정돈의 이야기나 거창을 지나며 백성이 기억하는 조선 신하들의 영웅제거, 이순신과 임경업 이야기 등을 채록해 조선왕조에 대한 일반 백성의 민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같은 특성과 새로운 자료들이 다수 포함된 초기 서양인의 조사기록이란 점에서 포크의 기록은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남장로교와 호남선교

김천석(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미국의 기독교
 3. 미국 남장로교 형성
 4. 한국선교 배경
 5.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파송
 - 1)복음선교
 - 2)의료선교
 - 3)교육선교
 6. 선교사들의 소명의식
 7. 끝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16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개신교도들이 있었다. 그들 중 영국의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갖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개척 정신으로 미국을 기독교 사회로 건설하는데 일조하였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하여 먼저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는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점을 간파(看破)한 것이다. 그들은 1세기를 지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자 신앙의 나태함과 원래의 청교도 정신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지만, 대각성운동을 통하여 이를 뉘우치며 제자리로 돌아 왔고 이후 젊은 신학도들의 선교열로 인해 해외선교에 관심이 태동되었다.

이 결과 미국 장로교회는 알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의료활동 덕택에 1885년 한국에 정식으로 개신교가 들어왔다. 이를 필두로 여러 교파가 들어왔고 전라도만 제외하고 한국 전역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었다.

호남에는 한국에 첫 선교사가 온 이후 8년 만에 전북에 미국남장로교 선교사가 오게 되어 호남지역 선교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 정신에 바탕을 둔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선교사로서 부여 받은 사명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런데, 작금의 여러 상황을 볼 때 과연 선교사들의 정신과 삶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헌신적 태도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까지 전수 받았는가 대한 우려가 앞선다.

왜냐면 최근의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비난에 가깝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남선교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선교사들이 추구했던 선교적 사명과 활동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는 복음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물량적인 척도로 목회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사고(思考)가 만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기독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정신에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이 일어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료선교는 호남 최초의 병원이라는 명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설립자의 정신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선교는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전인 교육을 시행 했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것이 본 논고의 주된 쟁점이다.

한편으로는 단편적 일면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호도(糊塗)하는 일부 비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과거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1907년 한국의 대 부흥운동에서 보여 준 신앙적 각성과 회개를 되돌아보고 또한 미국선교사와 초창기 한국인 목회자들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역사가 상대적으로 사학에서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도 있다. 이는 마치 일반 사학계에서 선교사(宣敎史)를 종교사(宗敎史)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였다는¹⁾ 백락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기술이 너무 주관적 또는 감정에 치우친다는 의구심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조광교수의 “종교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에 관련하면 건전한 역사해석을 시도하는 한 종교사적 측면의 연구의 중요성은 경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일부 「연구자」는 호교적(護敎的) 선입견에 의해 사실의 해석을 시도하여 학문적 엄격성에서 일탈(逸脫)한 바가 있었다.”²⁾는 지적도 주목하면서 객관적 서술이 도록 노력하였다.

그러한 점들을 상기(想起)하면서 이를 위해 선교사들의 기록과 백낙준, 민경배, 이영헌, 이만열 등 한국기독교 사학자들의 저서 및 논문을 참조하며, 특히 호남지역 기독교역사학자 김수진, 주명준의 호남선교 역사 관련 문헌³⁾들을 참조하였다.

1) 기독교 선교사업의 세계적 진전은 인류의 향상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일반 사학계에서는 선교사 연구를 종교사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여 왔다. 근래 사학가들은 선교 사업이 개발도상 국가들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헌과 세계 문화 교류에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선교사는 정치·경제사와 같이 사학의 일익이요, 근래 신역사학과에서 주장하여온 역사과학의 일 분야이다. (白樂濬, 2010, 『韓國改新敎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

2) 趙 珽, 1984,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p. 15.

3) 白樂濬, 2010, 『韓國改新敎史1832-1910』, 연세대학교출판부.
이영헌, 1982, 『韓國基督教史』, 컨콜디아사.
金守珍·韓仁洙, 1980, 『韓國기독교회史 湖南篇』, 汎論社.
주명준, 1998, 『전북의 기독교 전래』, 전주대학교출판부.
김수진, 1994, 「호남지방 교회의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김수진, 1998, 『호남 기독교 100년사 전북편』, 쿤란출판사.
민경배, 2009, 『한국 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에 따라 본 연구논문의 서술 방향을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남장로교, 한국선교 배경,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파송과 아울러 미국 내의 정치·종교의 동향과 당시의 국제간 역학관계 내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찰하며 전주로 온 선교사들의 활동과 소명의식도 기술하고자 한다.

2. 미국의 기독교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서문교회, 예수병원, 신흥학교 등이 정식 명칭도 없이 전주 성곽 밖의 외진 곳에서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우연이나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광범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한다.⁴⁾ 따라서 호남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7인의 선발대’와 예수병원의 설립자 그리고 그와 동시대의 선교사들에게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멀리는 7세기경에 네스토리우스파⁵⁾ 선교사들의 동양 선교 시작과 16세기에 스페인 출신 로올라에 의해 설립된 ‘예수회’의 선교사⁶⁾로 중국에 파견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등 기독교의 동양 선교도 관찰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바실 홀(Basil Hall), 칼 귀츨라프(Karl F. A. Gutzlaff) 등도 관찰의 대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국의 부흥운동과 세계선교에 주목하여 시작하고자 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융성한(隆盛)한 미국 개신교의 선교 열의는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개신교회의 대변화에서 기인한다. 이 무렵 미국의 영적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와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가 이끄는 영적 각성 차원의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이 영향으로 19세기 미국의 젊은이들의 선교정신에 자극을 주었고 19세기 초부터 이른바 ‘신앙동우회(Society of Brethren)’ 조직을 시작으로 미국 회중교회 외국선교본부(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가 1810년에 조직되어 첫선교사를 외국에 파견하면서 해외선교의 동기가 되었다.

이후 후일 한국선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外國宣敎自願學生促起運動(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이 시작되었고, 勉勵青年會(The Young People's Society of Christian Endeavor) 등의 청년 단체가 조직되어 미국교회와 대학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상승 작용을 일으켰으며, 자연히 선교에 헌신코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⁷⁾ 1880년대에 젊은 신학도들에게 불어 닥친 선교 열기는 프린스턴神學校학생들로 하여금 선교

이만열,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4) 설대위, 1998,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For No Labor of Love is Ever Lost』, 예수병원, p. 13.

5)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이다. 네스토리우스는 428년 황제 테오도시우스2세에 의해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나 431년 에베소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축출된 뒤, 안디옥과 이집트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451년경 이집트의 사막에서 임종한 인물이다. 그의 사망 후 추종자들은 에베소공의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별도의 교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6세기 초부터 아라비아, 인도,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다. 이 선교단체를 중국에서 경교라 불렀다. (『기독교사전 한영제편』, 기독교문사, 1991.)

6) 예수회 선교사가 한국의 제사문제를 신의 숭배라고 로마 교황청에 보고하여 한때 제사가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에 초기 천주교 신자들 중에 위패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일 제사가 신의 숭배가 아니고 조상에 대한 효도의 개념이라 인정하였다.

7) 백낙준, 앞의 책, p. 73.

의 요구에 부응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때를 같이 한 하트포드신학교 학생들 역시 여기에 동참하였고 1880년 10월 뉴 저어지주 뉴 브룬스위크에서 全國神學校聯盟(The American Inter-Seminary)가 정식 창립을 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 대회는 매년 개최해 오다가 1897년에 이르러 大學聯合基督學生青年會(The Intercollegiat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와 합병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도 이와 같은 기도학생연합회의 영향으로 젊은 기독교학생들의 선교열에 동화되어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호남에 온 테이트, 전킨, 레이놀즈 역시 이어 내려 온 신학생대회에 참석하였고 이 대회 강사 언더우드 강연에 감동을 받아 조선 행을 결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미국 남장로교 형성

미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유럽의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온 개혁신교회⁹⁾ 계열의 교도들로서 이들이 미국 장로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장로교 중 남장로교회가 1863년에 결성 되었는데, 남장로교회의 역사적 근원은 북아일랜드 계와 스코틀랜드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버지니아, 북 캐롤라이나, 남캐롤라이나 지역에 설립되었던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남장로교회는 다른 장로교회들과 연합하여 1706년 노회를 결성하여 미국장로교회를 형성하였다. 이 장로교회는 또 1801년 회중교회¹⁰⁾와 서로 목회자를 교류하는 협정을 맺고 연합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장로교 측에서 보았을 때 회중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트 표준에 기초한 칼빈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열조짐을 보였는데, 결정적인 갈등은 노예제도에 대한 견해차이¹¹⁾가 불거지면서였고 결국 분열하였다.¹²⁾ 그 후 남부의 장로교회가 따로 모여 남부 연합장로교회로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미국 남장로교회이다.

8) 프린스턴신학교 학생들은 “진정한 선교부흥운동이 교회에서, 특히 신학생들 중에서 요구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선교문제에 대한 신학교간 연락통신기관으로서 어떤 상설기관을 조직할 목적으로,” 1880년 1월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위하여, “미합중국내의 복음주의신학교 학생들에게” 회람문을 돌렸다. (백낙준, 앞의 책, p. 101.)

9) 종교개혁의 원리를 받아들인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개신교를 가르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루터파 교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칼빈주의 교회를 말한다.

10) 개신교 교파인 이 교회는 각 지역교회의 독립, 교회간의 협동적 친교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지녔다. 또한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 교회행정을 강조한다.

11) 1857년 신파 장로교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자,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교회들이 따로 남부연합장로교회를 구성하였다.

12) 칼빈주의 준수의 입장인 이들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합동 안에 반대하고 장로교회만의 독자선교를 주장하는 보수파를 ‘구파’, 그 반대 입장을 교회를 ‘신파’라 칭하였고 결국 1838년 별도로 총회를 열었다. 그러다가 1857년 신파 장로교회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교회들이 따로 남부연합회를 구성하였고 신파와 구파의 남부교회들이 1869년 합동한 것이 남장로교회이다.

4. 한국선교 배경

한국 선교는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호남을 예로 들자면 1896년부터 1900년까지 5년 동안에 전북 전주 서문교회와 전남 목포 양동교회를 포함하여 7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1901년부터 불과 6년 동안 호남지역에 65개 교회가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자 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까지는 그 과정이 험난하였다. 이는 조선의 지리적 여건에 기인하기도 하였고 강대국의 세력 다툼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에서 파생된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내부적 요인은 뿌리 깊은 척양척왜(斥洋斥倭) 사상 때문이었다. 정조 시대에 이가환과 정약용 등이 천주교(西學)를 받아들이자 조정에서는 서양을 오랑캐요 짐승이라 하며 척양척왜를 외치며 배척사상을 부추겼고 이러한 반외세정서가 팽배했던 때 인 만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확고하였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영향으로 고종은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신교가 발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 선교가 늦어진 외부적 요인은 미국의 선교 정책과 당시의 국제정세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미국장로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선교사 명세서(1867-1983)에 의하면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1884년 이전에 이미 24명에 이르렀으나, 한국에는 1884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겨우 1명의 선교사만 파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선교사 활동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바 1910년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수가 중국 4,197명, 일본 1,029명, 인도 4,635명인데 비해 한국은 307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한국을 선교대상국(Target Area) 우선순위에서 낮게 책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팽창정책¹³⁾ 등 정치적 상황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1830~1840년대 종교적 명분을 내세울 이념이 생겨났다. 그 이념이란, 존 오설리번의 ‘명백한 운명’¹⁴⁾이다.

13) 링컨 대통령 재임 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어드(William H. Seward)의 계획이 근간을 이룬다.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진정한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미국을 북미 전체, 카리비안 해, 쿠바, 중미, 멕시코, 하와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태평양의 군도들로 구성된 대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은 일본과 중국을 태평양 진출의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이미 중국을 상업과 선교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42년 난징조약이 체결되자, 미국 대통령 존 테일러는 칼럼 쿠싱을 중국에 보내 1844년 수교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러시아나 영국이 조만간 아시아를 차지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오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팽창주의자들과 포경업자, 상인들은 일본을 빨리 선점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아시아 진출에 조바심을 내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항로 때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까지 항해하는 가장 빠른 항로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직선 코스가 아니라,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이 항로로 항해를 할 경우 중간에 석탄 공급지가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곳이 일본이었다. 더욱이 당시에 일본은 상당량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미국 지리학회와 뉴잉글랜드의 포경업자들은 일본에 해군을 주둔시키라는 압력을 넣고 있었다.

14)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국가로서 하나님에게 부여 받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영토 확장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다음의 글은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내용이다. 은 미국팽창주의자들이 빈번히 사용한 용어가 되었다.

결국 일본이 개항 되면서 미국의 서해안, 하와이, 일본, 중국을 잇는 해상교통로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가 증대 되었다.

이렇게 국제적 역학 관계가 형성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은둔의 왕국이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는 나라였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만한 자원이 없는 하잘 것 없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은자의 왕국(Hermit Kingdom)인 조선에, 기독교계 입장에서 볼 때 신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생겼다.¹⁵⁾

첫째 1866년 미국 상선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조선 병사들에 의해 배는 불타고 승선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를 일컬어 대동강 변에 피를 뿌린 첫 순교자이다.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토마스 목사의 처형 집행자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그의 조카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후일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성서번역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즉, 토마스 목사의 성경이 그에게 성경번역사업 동참의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는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미 간의 상호 왕래가 가능해진 일이다. 물론 조약을 맺긴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은 가난하며 상업적 중요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었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상업적 입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조미통상을 주선했던 중국도 사실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안보와 관련시켜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부추겼을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미 사절단을(단장 민영익) 미국으로 파견하였을 때 볼티모어교회 가우처목사를 만난 것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개화파들이 1884년 12월 4일에 일으킨 갑신정변 와중에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중상을 입게 된 것을 말한다. 민영익은 보수파의 거두로서 우정충국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다가 개화파의 자객들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때 독일인 외무협관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llendorf)가 즉시 민영익을 독일 공관에 이송하고 한방의 14명을 불러 치료 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양방(洋方)치료를 불신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방치료로는 효과가 없자 뮐렌도르프는 미국공사관의 공의로 근무하던 알렌으로 하여금 치료케 하였다.

왕진을 요청받은 알렌은 우선 출혈을 막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화농된 것을 배출시키면서 정성을 다해 민영익을 치료하였다. 민영익은 알렌의 의술로 생명의 위협을 넘겼고 3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였다. 알렌은 민영익을 치료한 공로로 이듬해인 1885년 2월 궁중 어의로 위촉 되었으며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얻어 홍영식의 집을 하사 받아 그해 4월 10일 ‘널리 혜택을 주는 집’이라는 뜻의 광혜원(廣惠院 ; House of Extended Grace)을 개원하였다. 13일 후에 고종의 명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뜻의 제중원(濟衆院)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우리나라 근대 의료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5) 설대위, 앞의 책, p. 13.

왕실과의 관계개선을 계기로 미국 선교사의 의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왕실의 신임 덕분에 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Dr. Horace G. Underwood)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Rev. Henry G. Appenzeller)의 입국이 허용되었다. 개신교 선교사인 이들이 1885년 4월 5일 제물포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의료, 교육, 복음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5.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파송

19세기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선교열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선교는 시작된다. 앞서 잠시 거론한 바대로 대각성운동을 통한 19세기 미국 선교정신이 젊은 신학생들에게 접화되어 풀더미團이 조직되었고, 풀더미단이 도화선이 되어 여러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다. 여기에 부흥운동이 가세되었고 특히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더욱 고조 되었다. 호남에 온 테이트, 전킨, 레이놀즈 등 청년 선교사들이 전주에 오게 된 것은 미국 기독교청년들의 선교열기가 그 근원임을 알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선교사업은 18세기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복음적 각성운동에서 비롯되었다.¹⁶⁾ 한국 선교는 미국 해외선교부의 세계선교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미국 내 개신교도들의 각성에 바탕을 둔 부흥운동은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선교의 열정이 한국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결국 호남까지 이어졌다.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언더우드이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선교사인 언더우드는 한국선교 7년 만인 1891년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그해 9월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McCormick)신학교에서 한국선교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때 맥코믹 신학생이던 테이트는 언더우드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테이트뿐만 아니라 리치몬드의 유니온 신학교 학생 존슨(Cameron Johnson)과 레이놀즈(W. D. Reynolds)도 언더우드와 윤치호의 강연에 감명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였다. 얼마 후 전킨(W. M. Junkin)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테이트, 존슨, 레이놀즈, 전킨 등 네 명은 한국에 파송 요청서를 미국남장교회외지선교담당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는 ‘새 선교 사업에 착수할 가망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 자기 소속 교파 지 교회를 찾아 호소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언더우드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버지니아주와 북캐롤라이나주의 대도시교회를 찾아다니며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에 관한 기사를 여러 교회신문에 발표하였고, “왜 우리는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1892년 2월에 간행된 「The Missionary」에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16) 박명수, 1997, 「“세계선교 동향과 한국에 대한 선교정책”에 대한 논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28.

그들의 간곡한 호소에 남장로교회 외지선교위원회는 한국선교를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1892년 2월에 개척선교사 7명을 임명하였으니, 이들이 테이트, 전킨, 레이놀드 등 남자 선교사 3인과 테이트 목사의 누이동생 매티 S. 테이트(Miss. Mattie S. Tate), 레이놀즈 부인 팻시 볼링(Patsy Bolling), 전킨의 부인(Mary Leyburn), 리니 데이비스(Linnie Davis) 등 여자 선교사 4인이다. 이들 개척선교사들을 일컬어 “7인의 선발대(Seven Pioneers)”라고 한다.¹⁷⁾

6. 호남지역 선교활동

7인의 개척 선교사들은 1892년 11월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해인 1893년 1월 28일 북장로교선교사 빈톤(Dr. Vinton) 집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장로교파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장로회 미선공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들의 모든 대한인 선교활동은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조직함을 목표로 함’에 있었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각 회원 선교부의 자문에만 응할 수 있게 하였다.¹⁸⁾ 이 회의에서 남장로교 레이놀즈(이눌서)선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무를 처리하였는데 여기서 장차 한국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두 개의 안건이 채택되었다.

첫째는 예양협정(禮讓協定 : Community Agreements)의 성립이다. 각선교회가 사업의 중복과 지역의 이중점거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선교적으로 미개척지인 전라도와 충청도를 선교지역으로 할당을 받았다.

둘째는 중국 산둥에서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한바 있는 네비우스(John L. Nevius) 선교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후 철저한 자급자치(自給自治)의 교회 운영과 조직적 성서연구를 근간으로 하는 선교정책¹⁹⁾으로 채택한 일이다.

이것은 초기 한국 선교는 물론 후기 교회사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전체 민중의 저변에 침투하여 말씀에 입각한 자주적인 토착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예양협정에서 호남지역을 선교구역으로 할당 받은 터라 다음 달(1893년 2월) 레이놀즈선교사의 비서 정해원을 전주에 보내어 선교사들이 거처할 땅과 집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같은 해 가을 전킨과 테이트가 거처할 집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선교지역 답사를 위해 전주를 방문하였다. 이때 정해원이 26달러에 구입한 한옥에서 두 주간 머무르면서 전주의 지역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호남선교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17) 백락준, 앞의 책, p. 199.

18) 백락준, 앞의 책, p. 210

19) 1)노동자 계급에 우선 전도할 것. 2)가정주부의 개종을 중요시할 것. 3)지방도시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교육을 실시할 것. 4)한국인 교역자 양성에 유의할 것. 5)성서역간에 힘쓸 것. 6)모든 종교서적은 한글로 출판할 것. 7) 자급자치의 교회를 만들 것. 8)신자는 누구나 전도자가 되게 할 것. 9)의료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료하여 환자를 감화 시킬 것. 10)지방환자의 경우 왕진의 기회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할 것.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기독교문사, p.73.

20) 곽안련, 상계서, p. 15. 김수진·한인수, 『한국기독교회사 호남편』, p. 97. 재인용

1) 복음선교

장로회 미션공의회의 예방협정 결의가 있는 다음해 2월 선교회 연례회의에서 결의한 것에 따라 호남의 선교본부 설치를 위해 테이트²¹⁾와 그의 여동생 마티 테이트가 3월에 전주로 왔다. 마티 테이트는 서양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주에 온 것이어서 그녀의 출현은 매일 사 오백 명의 주민 여성들이 상이한 옷차림과 푸른 눈의 서양 여성을 보기 위해 몰려들 정도로 전주 여성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용이하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없었다. 6주간 동안 머물렀고 서울로 복귀해야 했다. 이유는 동학혁명 때문에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에 서울 본부에서 철수하도록 한 것이다.

테이트 남매는 동학혁명이 끝난 직후인 1895년 성탄절 무렵에 다시 전주로 왔고 호남지역 첫 선교부를 전주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선교부를 군산에 설립하였다. 그동안 레이놀즈, 전킨 선교사 등이 전주를 여러 차례 다녀갔고 뿐만 아니라 전킨과 드루(군산 예수병원 설립자)는 군산지역을 답사하였으며 레이놀즈와 드루는 6주 동안 군산을 출발하여 전주, 영광, 목포, 순천 등 전라남북도 전역을 답사하며 호남지역 선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 사회적 상황 때문에 서울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으나 전주에서는 서울과는 달리 교회를 먼저 세울 수 있다. 리더 격인 테이트는 1895년부터 본격적인 선교활동에 들어가 전주에 서문교회를 세우고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 임실, 남원, 정읍 등지로 순회하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전킨²²⁾은 군산에 군산교회(개복교회·구암교회) 김제에 송지동교회 등을 세웠다. 이들은 1896년부터 5년 동안 7개 교회를 세웠고 1901년부터 1906년까지 6년 동안 65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세계선교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되고 있다.

21) 테이트(한국명:최의덕) 선교사는 1862년 9월 28일 미국 미조리주 켈로외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웨스트민스트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였는데, 졸업을 1년 앞두고 복음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26세에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하여 29세에 졸업하였다. 그는 신학대학 재학 중 1891년 내쉬빌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선교대회에 강연자 언더우드를 만나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여동생 마티 테이트와 함께 '7인의 선발대' 일원으로 1892년 전주에 왔다.

그는 전주에 첫발을 디딘 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익산, 정읍, 금구, 태인, 고부, 흥덕, 부안, 임실, 남원 등 각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의 전도로 설립된 교회가 78개나 되며, 그가 세운 장로 목사 5인, 세례를 베푼 교인 수는 1,500명에 이르는 등 그의 선교열정 또한 다른 선교사들 못지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테이트 선교사는 법 이론에 밝은 교회법의 권위자였고 각종 회무 처리에 능숙하여 전북노회에서는 물론이고 총회에서도 규칙 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그는 교회 연합 사업에 앞장섰으며 성서공회 이사장, 예수교서회 이사, 세브란스의학교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33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1925년 아내와 함께 영구 귀국하여 플로리다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1929년 2월 19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2) 전킨은 1865년 버지니아의 크리스천버그에서 전형적인 남부 기독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워싱턴앤리대학과 유니언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7인의 개척선교사로 임명되어 아내 매리 레이번과 함께 한국에 왔다. 군산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전킨 선교사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선교에 전념하여 질병을 얻었다. 이에 선교부는 그를 쉬라는 의미로 전주로 발령 내면서 '20리(8km)이상 나가지 말 것'을 업무 지침에 명시 하였다. 그러나 전킨은 활동영역을 좁히지 않았고 결국 1908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이름은 기전여학교(Junkin Memorial Girls School)로 남아 있다.



그림1. 1896년에 설립된 서문교회와 테이트 선교사



그림2. 현재의 서문교회

2) 의료선교

호남에 의료를 처음 시행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드류(Alessandro Damer Drew)에 의해서였다. 그는 미국남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첫 번째 의료선교사로 1894년에 34세의 나이로 한국에 도착하여 1896년에 군산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는 일명 황포 돛단배를 이용하여 금강의 포구를 나들며 진료 활동을 하였다.

1897년에는 역시 미국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여의사 마티 잉골드(Martha B. Ingold)²³⁾가 1897년 11월에 전주에 와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물론 전주에서 의료 활동은 해리슨 선교사가 먼저 했지만 그는 복음 선교사였기 때문에 정식 의료선교사인 마티 잉골드 도착 후 본연의 임무인 복음선교사로 복귀하였다.

마티 잉골드는 30세의 미혼 여성으로 언어와 문화가 상이(相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비과학적 사고방식 즉,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진버짐에는 인분을 바르면 낫는다. 또는 홍역이나 성홍열에는 똥을 달여 먹으면 열이 내린다는 등 질병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이러한 미신적 관념은 질병 대처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잉골드는 악령²⁴⁾에 얽매인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며, 당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서민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다. 마티 잉골드가 시술한 외과적 수술은 후대 의료인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었을 정도였다.²⁵⁾ 잉골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환경위생과 예방 차원의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선도적이었다. 서양 의료의 불모지에 마티 잉골드의 의료는 획기적인 것이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질병에서 구해내었다.

2대 원장인 포사이드는 전주 근교로 왕진 갔다가 괴한의 흉기에 중상을 입고 결국 미국으로 후송 되었는데, 완치 후 다시 한국으로 왔고 나환자 치료를 위한 여수 애양원

23) 예수병원 설립자인 그는 1867년 5월 31일 미국 북 캐롤라이나주 소읍 르노아(Renoir)에서 아버지 이사야 잉골드(Isaiah Ingold)와 어머니 레비니아 콜트레인 사이에서 육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잉골드의 家門은 독일계로서 할아버지 때 독일 잉골트스타트(Ingoldstadt)에서 미국으로 이주 하였다. 그가 22세가 되는 해인 1889년에 남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락힐(Rock Hill)로 와서 윈드롭(Winthrop)대학에 입학하였고 1891년에 동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 의과 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에 입학하였다. 졸업생 수상자 명부를 보면 금상(Gold Medal) 및 의학이론과 실기상(Prize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ine) 등 2개의 상을 동시에 수상(표3참조) 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적이 93점 이상 되어야 하고 졸업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한다. 잉골드가 영예의 메달 2개를 독차지한 일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설립 이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24)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념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방의학 내지는 민간요법으로 병을 다스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은 귀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무녀, 박수들은 기도로 질병을 물리치며, 금압(禁壓), 복서(卜筮)등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으며, 관·혼·상·제는 물론 모든 행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데 이 귀신숭배 관념이 유일한 민간신앙으로 매우 뿌리 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5) 잉골드가 첫 날에는 6명의 환자를 보았고 첫 달에 약 100명 정도를 보았다. 의료적 관점에서 잉골드의 재능과 기술은 칭찬받아 마땅할 만큼 훌륭했다. -중략- 마취를 하여 여덟 살 난 남자아이의 엉덩이뼈 탈구를 고친 것과 여자아이의 턱뼈가 어긋난 것을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고 고쳐준 것은 의사인 우리들의 찬사를 받을만한 것이었다. 천연두로 코에 흉터가 남아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남자 아이를 수술하는데 아버지의 동의 없이 과민한 어머니의 입회로만 행해 졌었던 일도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소년의 아버지는 기뻐했고 감사의 표시로 닭 다섯 마리와 계란 50개를 보내오기도 했다. 잉골드는 감염으로 죽어가는 여자를 수술로 구했으며, 고름주머니와 종기를 절개하기도하고 결핵성 농양을 배농하기도 했으며 설사와 이질치료, 백내장 제거, 화상 치료, 분만, 잔류 태반 제거도 하였다. 설대위, 앞의 책 p. 31.

설립자가 되었다. 포사이드의 나환자에 대한 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그의 정성 담긴 태도는 최홍종 목사의 인생관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는 후일 나환자 치료와 복지 사업의 대부가 되었다. 당시 나환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3. 이승만 대통령과 구바울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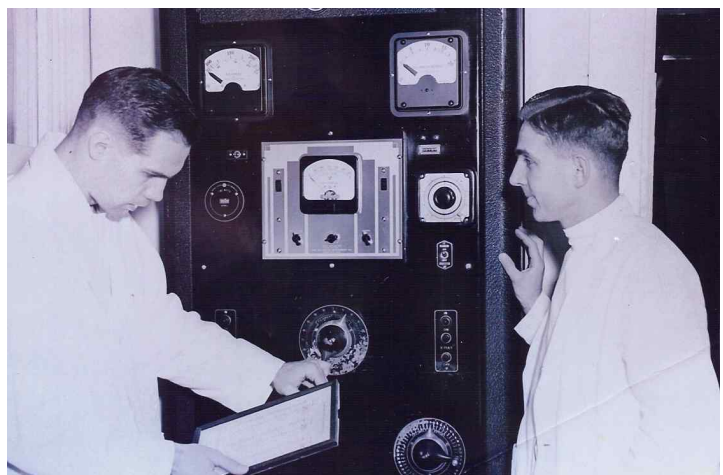


그림4. 설대위 원장과 구바울 원장

7대 구바울(Paul S. Crane)원장은 해방 후 예수병원을 재건하였고 한국 전쟁 시에는 모든 환자들을 무사히 대피 시킨 후 맨 마지막으로 피난길에 오른 예수병원 지킴이었다. 그는 1960 년대에 수술한 9살 여자 아이의 복부에서 기생충 1063마리가 나온 충격적인 사실을 신문에 기 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태동 되었다. 또한 그는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인을 양성하는 등 예수병원의 위상을 높인 덕분에 이승만 대통 령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선교사로서 마지막 병원장인 8대 설대위(David J. Seel)원장은 1971년 전주 중화산동에 응 장한 현대식 병원을 건축하였다. 설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수술이 다 반사였는데, 김밥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수술을 집도하였다. 설 원장은 평소 “나는 환자를 예수 님으로 생각한다.” 고 하였다. 그 말은 환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담고 있다. 그는 또 수 수술 후 퇴원한 환자는 경상도 산골까지 방문하여 완치 과정을 살피기도 하는 등 끝까지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림5. 첫 진료소(1897년)



그림6. 현 예수병원 준공식(1971년)

화산동의 작은 한옥에서 미국남장로교 여의사에 의해 문을 초라한 진료소가 이제 호남의 기독교병원으로 자리 매김 되었으며, 그 명성에 걸맞게 환자경험평가 전국19위 (전북1위)를 차지하고 현재 금년 코로나19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금년으로 설립 123년 주년을 맞이하는 예수병원은 장구한 세월 동안 설립 정신을 지켜오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교육선교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에 와서 먼저 시작한 일은 복음 전파였지만, 교육 역시 중점을 둔 선교 사업의 일환이었다. 물론 한국에도 교육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교육은 유교적 사상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대부층의 양반계급을 위한 것이었으며 관직 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교육제도는 서울에 최고학부인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 중등교육 수준으로 사학(四學)과 향교 그리고 사립교육 기관인 서원과 초등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처럼 초, 중, 고, 대학 등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별개의 교육기관이었다.

물론 정부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두었고 1883년에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였으며 1886년에는 고종의 윤허로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어 길모어 · 힐버트 · 벵커 등이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역시 양반 자제들만 위한 학교였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서양인들에게 빨리 영어를 배운 후 관직 진출이 목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선교사들이 지향하는 교육은 특수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으며, 기독교정신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새 지식을 계발하여 국권을 찾고자 하는 교육구국(教育救國) 등이 교육의 이념과 목표였다.

교육과 관련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宣敎事業에 着手하는 同時에 敎勢發展上 敎育의 必要를 切實深覺하고 各地에 男女學校를 設立하여 信者의 子女를 敎育하여 人材를 養育하였는데 京城에 倣新, 貞信 -중략- 全州에 新興南學校, 紀全女學校 등이다.”

이를 보면 처음에는 교세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인 자녀들을 교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목적 속에는 인재 양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1900년 9월 9일에 다가산 기슭에 있는 레이놀즈²⁶⁾ 선교사의 사택에서 1명의 학생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02년에는 마티 테이트가 기전학교를 시작하였다.

표1. 소학교 교과 과정

과목 학년	성경	국문	한문	습자	신학
1	십계명 주기도문 습독	초학언문 성격문답	초등소학(1) 몽합첩경(1) 혹류합		획자
2	산상보훈 요절습독	천로지기 국문도본습독 국문자고저	초등소학(2) 몽합첩경(2) 상심소학		
3	마가복음 요절습독	훈아진언 구세진전 국문자고저	초등소학(2) 몽합첩경(2) 회도몽학(1)	작문	합감법
4	마태복음 요절습독	복음요사 인가기도 국문자고저	초등회도 몽학과본수집 유명천자(1)	작문	승소분법
5	누가복음 요절습독 사도신경	장원상론 예수행적 구세론 국문자고저	고등소학 소학박물관 회도몽학(2) 유명천자(2)	작문	제등법술산
6	요한복음 요절습독	성경도설 국문자고저 덕혜입문 항심수도	유명천자(3) 회도몽학(3) 대한지리 사민필지 동국역사위생	초서	소공배수 기공성수 술산

26) 레이놀즈는 7인의 선발대중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자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1867년 12월 11일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포크(Norfolk)에서 출생하였고 1887년 햄펜 시드니(Hampden Sidney)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재학 중 그는 라틴어, 희랍어, 불어, 독어 등에 능통하였는데,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이러한 언어 능력이 후일 호남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버지니아의 유니온 신학교(UTS VA.)에 입학하여 1892년에 졸업하였다. 레이놀즈는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중일 때 미국신학생 연맹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전킨, 테이트 등과 함께 한국선교 파송을 받는 일에 주력하였다.

레이놀즈는 1892년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7인의 선발대' 일원으로 로와 1892년 11월 3일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어 습득에 힘썼다. 그는 타고난 어학 능력으로 인해 누구보다 한국어 습득이 빨랐다.

그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초대 영어 공의회 평양장로회신학교 어학교수, 한영사전 편집책임자 등 업적이 많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북장로교회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성서 번역 사업에 남장로교선교부 대표로 참여하였다. 특히 지리산 노고단에서 성서번역을 마무리 한 일화는 한국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서 대부분은 그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기독교교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학교교육의 기틀이 갖추어지면서 소학교, 중등학교와 같은 학교를 설립하고 체계 있는 근대식 교육을 시행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6년 과정 전 학년에 성경, 국문, 한문, 습자, 신학문 등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교육 과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경 교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독교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3학년부터는 작문이 있고 신학문이라 할 수 있는 합감법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교과목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문시간에 복음요사, 예수행적, 구세론 한문 시간에 중국 고전뿐만 아니라 소학 박물관, 신학문 과목으로 승소분법이 있다. 또한 지리와 위생과목 등도 들어 있다. 위의 교육내용은 서당이나 일제가 실시한 교육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등과정은 성경과목 외에도 조선역사를 비롯하여 수학, 과학, 기독교문학, 한문과 중국 고전, 작문 그리고 음악 미술 등 8개 과목인데, 다양하고 차원 높은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커리큘럼은 군산에서 시행된 내용이나 전주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ACADEMY.

CLASSES PREPARATORY TO ACADEMY	BIBLE Mark, Luke and Acts	HISTORY Hist. of Korea, Part I	MATHEMATICS Arith.	SCIENCE Physiology and Geog.	CHRISTIAN BOOKS Gate of Wisdom	CHINESE AND NATIVE CLASSICS	COMPOSITION Composition	MUSIC AND DRAWING
FIRST YEAR	Gen., Gal.	Sheffield's Universal Hist., Vol. I and II	Arith.	Elementary Psychology Hygiene Natural Geography	Pilgrim's Progress	Native Classics	Writing and Criticism	"
SECOND YEAR	I & II Cor., Prov., Ex., Josh.	Universal Hist., Vol. I, II and III	Arith.	Physical Geography	Faber's Christian Civilization	Chinese Classics Korean Grammar	Writing of Original Stories	"
THIRD YEAR	I & II Tim. I & II Sam. I & II Kings	Hist. of Korea, Part II	Algebra and Book Keeping	Natural Philosophy	Martin's Evidences of Christianity	Chinese and Native Classics	Original Composition & Criticism	"

이처럼 다양한 과목으로 시행된 교육은 일반 새 지식을 계발과 함께 기독교정신, 민주주의 정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이는 국권을 찾고자하는 교육구국(教育救國)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교육 기회가 거의 없던 여학생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일제 강점기 등 민족이 수난에 처했을 때 신홍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 독립만세운동 및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식의 투철함을 보여 주었고 현재에도 신홍, 기전 출신들이 사회, 종교계 등 각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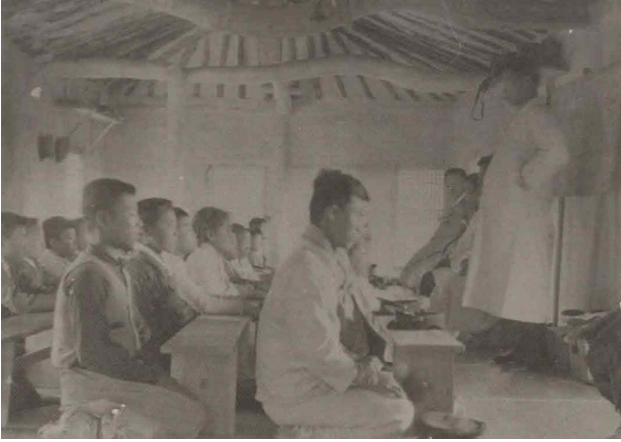


그림 8. 1900년대 신흥학교 수업 광경



그림 9. 현재의 신흥학교

6. 선교사들의 소명의식

초기에 선교사들은 생소한 타국에서 언어 및 상이한 문화와 생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비유할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열악한 의료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서울에 거주할 때는 한국 정부의 보호아래 있었지만,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사정이 달랐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지 2년 후 인 1887년 10월 서울에서 소래, 평양, 의주까지 첫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을 다녀왔다. 당시는 맹수들이 출몰하고 산적들의 약탈행위도 빈번하던 때라 위험한 여행²⁷⁾이었지만 이를 감행한 것은 그만큼 선교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알렌 후임으로 제중원의 책임을 맡은 헤론 의료선교사는 무리한 의료업무 등 격무에 시달려 건강이 악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멈추지 않아 결국 한국에 온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헤론은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the Great physician)에 관해 알리는 것이며, 단순히 나 자신의 의학기술을 시행하는 데 있지 않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돌아간 구세주를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²⁸⁾며 기독교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의식과 함께 임무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언더우드의 글에 보면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였을 때 선교사와 한국인 조수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 훌륭한 치료 효과, 여기에 덧붙여 특정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검사반의 신속하면서도 적시에 보낸 지원이었다. 이것은 병에 걸린 사람을 아주 빠른 속도로 고치게 하였고, 발생 초기 근절 효과를 가져와 전염병이 널리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라 안의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²⁹⁾

27) -의주에 있는 33인의 신자들에게 압록강을 넘어가 세례를 주는데 함께 했으나 강도의 습격과 자연의 위험을 당하여 구사일생으로 귀경하였다. 『경신사』, p.130.

28)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p. 51.

29) H.G.언더우드, 『韓國改新敎受容史』, 一潮閣, 1989, p. 84.

또한 선교사들은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특히 민비 시해 후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있는 고종 임금의 지킴을 위해 밤에 조를 짜서 호위를 하였다.³⁰⁾ 선교사들의 위험을 무릅쓴 충정에 힘입어 고종 임금은 안정감을 유지하였다. 당시 고종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어서 신뢰할 사람은 미국선교사들 뿐이라 여겼고 음식물까지도 언더우드선교사 부인이 만들고 통에 열쇠를 채워 궁으로 운반하면 언더우드가 직접 받아 왕께 올렸다.

고종 임금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정성에 더욱 신뢰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커져가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후일 전주선교부에 거쳐문제가 생겼을 때 고종의 배려가 작용하기도 하였다.

전주에 최초로 부임한 테이트 선교사는 복음의 불모지인 전주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김제, 임실, 정읍, 남원 등지로 순회 전도를 다닐 때 하루에 수십리를 가야하는 오지의 험난한 길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전킨은 여름날 김제 인근의 논에서 물을 떠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내내 질병에 시달렸다. 이에 선교부에서는 환경이 좀 낮은 전주로 발령을 냈지만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의료선교사 마티 잉골드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재원이지만 전주의 초가집에서 생활하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파송예배를 드리는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라는 일기³¹⁾를 통해 한국행도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자기가 받은 혜택을 나눠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의 소명의식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잉골드의 자세는 서양인 자체를 경원시 하던 전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잉골드는 처음에는 생소한 환경과 관습에 관련된 두려움도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거쳐가 왕실의 땅이어서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내심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다.³²⁾ 실제 이곳은 왕실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 또한 사실이었고,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³³⁾

30) 미국 선교사들이 매일 저녁 권총을 품고 입궐하여 미국 군사 고문 윌리엄 다이(William M. Dye) 장군과 함께 왕의 서재 겸 집무실인 집옥재(集玉齋) 근처의 건물에서 당번을 섰다. -중략- 이 건물은 왕이 부르면 바로 달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매일 무장을 하고 입궐하여 고종을 지킨 이들은 제중원 원장 에비슨, 선교사 언더우드, 게일, 아펜젤러, 험버트, 헤버 존스 등 미국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었다.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pp. 291,292.

31)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일 모두가 옳고 좋다. -중략- 어떻든지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진실로 바라건대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마티 잉골드의 1897년 7월 18일자 일기)

32) 그들은 우리가 '왕의 대지를 빼앗아 그 위에 집을 지었으니 사형을 당할 것이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선교단에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리라 믿는다. (1897년 12월 21일자 잉골드의 일기)

33) 상이 이르기를,
 “완산에 외국인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과연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중해야 할 곳에 외국인이 와서 사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도신과 상의하여 좋은 말로 타일러 값을 주고 사서 허물어버려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건지산 근처도 혹시 이런 폐단이 없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삼가 해당 도신에게 글로 알려 그로 하여금 조용히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자만동과 오목대는 목책(木柵)으로 울타리를 쳐서 황실의 터임을 표시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사체로 볼 때 값이 많건 적건 간에 사서 허물어 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대한광무 3년) 7월 11일(양력) 1번째 기사.

그밖에 풍토병으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으로 철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선교사명을 완수하자고 뜻을 모았다. 다만 질병이 창궐하는 여름한 철만 피해 있자는 의논이 되어 지리산 남쪽 자락에 임시 막사를 만들고 매년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며 재충전하기도 하였다. 그곳이 노고단과 왕시루봉이다.

선교사들의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뚜렷한 선교사들의 자세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7. 끝맺는 말

이상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사회 각 분야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미국복장로교 선교사였지만 의사의 신분으로 처음 한국에 온 알렌은 의술로서 한국인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서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켰다. 이후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개신교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종교 활동이 시기상조임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의 법에 따르면서 성실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결국 한국 정부의 서양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으로부터 완화를 이끌어내었다.

선교사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었다. 따라서 질병 치료에 반상(班常) 차별이 없었고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을 특수층에게만 국한 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인간애(人間愛)를 보여 주었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족을 도왔다.

그들은 선교 초기에 문화가 다른 환경을 현명하게 극복하였다. 즉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악령에게 매달리며 굿을 하는 등 미신과 주술적 방법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의 형편을 이해하고 교육하면서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 과학적 의술을 활용하여 치료하였고 동시에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당시로서는 생소한 환경위생개념을 도입하여 질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나환자를 직접 자신의 말에 태우고 나주에서 광주까지 걸어간 포사이드 선교사의 정신이 애양원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호남지역 최초로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교육을 발전시킨 구바울 예수병원장 그리고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 한다는 설대위 예수병원장의 환자의 존엄성을 지킨 그 정신이 남아 “예수병원” 이 호남 최고의 기독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낸 기업이나 조직이 흔치 않음을 생각할 때 100년을 훨씬 넘긴 서문교회,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이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현재까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며 있는 것도 우리민족의 정체성 확립, 구국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준 선교사들의 영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선교사들에게 내재된 지적 정신적 영적 지주가 한국 땅에서 뿌리 내렸고 이를 통해 질병에서의 해방,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형성, 인재 배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촉발된 여러 분야의 개혁과 사회 변화는 결국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므로 이는 선교사들이 사회에 키친 영향이라 생각하며 이를 재조명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적 삶이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생각에서이다.

대한제국기 알베르 드예 신부가 기록한 목포항과 다도해

최성환(목포대 사학과 · 도서문화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목포 개항 후 서양인의 유입 양상과 천주교
 3. 목포항에 대한 기록과 특징
 4. 다도해에 대한 기록과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목포는 무안에 속한 水軍 기지인 木浦鎭이 있던 곳이었다. 1897년 10월 1일 국내 네 번째로 개항되었고, 옛 목포진 주변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할 수 있는 ‘각국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개항 후 목포항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식민지 수탈항의 기능이다. 주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과 면화 등 특산물을 일본으로 옮겨가는 항구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근대 문물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에서는 학교·병원·철도·극장·종교 등 다방면의 근대문화시설이 목포에 가장 먼저 설치된 후 주변으로 전파되었다.

목포 근대문화의 발달과정에는 외래 종교의 영향도 컸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목포를 서남권 전도의 선교본부로 삼았다. 그 활동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와 성당·학교·병원 등 근대시설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서양인들과의 교류가 발생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선교활동 내용과 목포에서 경험한 바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서양인에 의한 목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94년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한국명이눌서] 선교사가 남긴 것이다. 선교활동을 위해 전라도 일대를 순회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목포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¹⁾ 1894년 4월 17일과 18일 사이의 기록이다. 이후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유진벨, 프레스톤, 포사이드 등의 목사와 정명여학교에서 교육 선교를 했던 니스벳, 스트라이퍼 등이 편지와 일기 형태의 기록을 남겼다. 이를 자료화하기 위해 목포교회사연구소의 김양호 목사는 선교사들의 목포관련 기록을 모아 『목포기독교사료집(1)』을 만들기도 하였다.²⁾ 아쉽게도 현재 정식 출판은 되지 않았다. 천주교에서는 목포 초대 신부를 지낸 알베르 빅토 드예[Albert-Victor Deshayes, 1871~1909, 한국명 조유도]³⁾가 편지 형태의 사목보고서를 남긴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여행이나 학술조사 형태로 목포를 방문했다가 사진 등의 기록을 남긴 서양인도 있다.⁴⁾

개신교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이 교회사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왔다. 선교활동과 관련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⁵⁾ 논문 외에 『목포지방기독교100년사:목포노회 창립 50년사』(1997), 『목포 기독교 이야기』(2016, 김양호), 『양동제일교회100년사:1897-1997』(1997) 등의 단행본도 발간되었다. 하지만 목포 천주교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관련 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사례도 부족하다.

본 고의 연구 대상은 1897년 목포 개항 후 설치된 천주교 성당의 초대 신부였던 드예가 남긴 기록이다. 시간적 분석 범위는 대한제국기로 한정하였다. 목포에서의 드예 신부 기록이 1896년부터 1909년까지로 대체로 대한제국기와 중첩되기 때문이다. 드예 신부의 기록은 천주교 조선교구장이었던 뫼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한국명 민덕효]과 주고받은 것으로 일종의 편지 형태이다. 총 125편의 기록이 확인된다.⁶⁾ 주요 내용은 주기적으로 목포를 비롯한 전라남도 각 지역의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가 중심이다. 드예 신부가 활동하면서 겪은 일들과 그에 대한 소감이 포함되어 있다. 드예 신부는 초기 성당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방해 공작에 따른 무안감리의 비협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한, 섬 주민들의 선교 과정에서 지도군수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목포항과 주변 섬 지역의 사회상과 관련된 정보도 담겨있다.

연구 목적은 드예 신부의 기록을 분석하여 목포항과 주변 섬 지역에 대한 당시 정보와 관련

1) 김양호 외, 『목포기독교 사료집(1)』,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1~14쪽 참조.
 2) 김양호 외, 『목포기독교 사료집(1)』,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이 자료집에는 1894년 목포를 방문한 레이놀즈 선교사의 기록, 선교활동 잡지 『The Missionary』에 실린 목포 관련 기록(1896~1911), 유진벨, 프레스톤, 포사이드 등이 목포에서 쓴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목포 개신교의 초기 활동과 목포 사회상을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이름 'Deshayes'의 발음과 관련하여 디예, 드예, 데자에 등으로 불린다. 천주교 측에서 현재 '드예'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본 고에서도 '드예'로 통일하였으며, 이하 원고에서는 '드예 신부'로 약칭하였다.
 4) 주일본 독일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독일인 헤르만 구스타프 테오도르 잔더[Hermann Gustav Theodor Sander, 1868~1945]는 1906년 9월과 1907년 3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여행하였다. 당시 찍은 사진 자료가 지난 2004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었는데, 그 안에 목포와 관련 사진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독일인 헤르만 잔더의 여행』, 시월, 2006, 243쪽.
 5) 대표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명준, 「유진 벨(Eugene Bell) 선교사의 木浦宣教」, 『전북사학』 Vol.21·22, 전 북사학회, 1999 ; 김종철, 「유진 벨 선교사의 목포·광주 선교활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목포 스테이션 설치와 운영(1898-1940)」, 『종교연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 송오식, 「목포 근대기독교역사와 문화유산」, 종교문화학보 16권 1호, 2019.
 6) 필자가 이 자료를 처음 입수한 것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공소에서 활동했던 곽요셉 신부로부터였다. 하의도 현장 조사에서 만난 곽요셉 신부는 복사 제본된 형태의 자료를 필자에 제공했다. 이 자료집의 앞장에는 드예 신부의 약력이 소개되어 있고, 이후 날짜별로 프랑스로 된 기록이 담겨있다. 본 고의 국역문은 목포대 도서관연구원에서 의뢰하여 프랑스어 번역가 이지영이 번역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힌다. 필자는 곽요셉 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후 자료충서로 발간하기 위해 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나 사정상 현재 발간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본 고의 이하 각주에서는 이 자료를 임의로 『드예 신부 보고서』로 약칭하였고, 쪽수 대신에 날짜를 표기하는 것으로 출처를 대신하였다.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그는 1898년부터 1909년까지 목포성당의 주임신부로 활동하였다. 연구의 세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목포 개항 후 서양인이 들어오는 양상과 천주교의 목포 진출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는 드에 신부의 기록 중 목포항과 관련된 내용 분석이다. 자연환경,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을 추출하고 관련 특징을 살폈다. 셋째는 목포 주변 섬과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당시 섬의 사회상과 섬 문화에 대한 서양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드에 신부의 기록을 중심 자료로 놓고, 관련 시기 목포와 섬 지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 개항 후 대한제국 정부에서 운영한 개항장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무안감리서의 공문서를 모은 『務安報牒』(1897~1906), 일제강점기 발간된 지방사 관련 자료인 『木浦誌』(1914)와 『木浦府史』(1930), 근대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목포 천주교의 활동과 관련된 기본 흐름은 『목포시사』(2017)와 『광주대교구50년사』(199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현재 목포 최초 성당인 산정동 성당 주변에는 가톨릭 성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곳에 설치된 가톨릭 목포성지 역사박물관과 레지오마리아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도 병행하였다.

2. 목포 개항 후 서양인의 유입 양상과 천주교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함께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개항장에 설치되는 외국인 거류지는 관리국이 단수냐 복수냐를 기준으로 專管居留地와 各國居留地로 분류된다. 1876년 부산 개항 후에는 일본전관거류지, 청국전관거류지, 일반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1879년 원산과 1883년 인천 개항 후에는 일본전관거류지, 청국전관거류지, 각국거류지가 설치되었다. 1897년 목포 개항 때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목포 개항장에는 일본인을 위한 ‘전관거류지’가 별도로 승인되지 않고,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관리하는 ‘각국거류지’ 하나만 설치되었다. 이 점이 목포 개항장 거류지의 달라진 양상이다.⁷⁾ 전관거류지 없이 각국거류지 하나만 설정된 곳은 목포항이 최초였다. 목포항 각국거류지의 총면적은 726,024㎡(약 22만평)로 같은 시기에 개항된 진남포의 480,060㎡(약 14만 5천평) 보다 넓은 면적이었다.⁸⁾ 표면상 나타나는 거류지의 범위는 개항 당시에 동으로 송도, 남으로 목포진, 서쪽으로 온금동, 북쪽으로 현 측후동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다.⁹⁾

개항 후 목포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1897년 이후 목포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¹⁰⁾과 같다.

7) 목포에 각국거류지 하나만 설치된 것은 우리와 조약을 맺은 외국이 이전보다 늘었고, 일본의 전관거류지를 승인할 경우 다른 나라도 똑같이 요구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졸고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한국민족문화』 39, 2011)에서 언급한 바 있다.

8)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284쪽.

9) 목포부사편찬위원회, 『木浦府史』, 목포부, 1930. 168쪽.

10) 木浦商業會議所, 『統計年報』, 1935, 1쪽 ‘목포부호구누년표’.

<표 1> 개항이후 목포 인구누계년표

구분	조선인	일본인	만주국인 및 중화민국인	구미인	합계
1897	-	206			206
1898	-	907	14	3	924
1899	-	872	42	6	920
1900	-	894	39	6	939
1901	-	940	53	9	1,002
1902	-	1,045	45	10	1,100
1903	-	1,417	50	11	1,478
1904	-	1,442	47	10	1,499
1905	-	2,020	67	12	2,099
1906	-	2,364	92	6	2,466
1907	3,532	2,851	77	6	6,466
1908	5,252	2,863	69	9	8,193
1909	5,675	3,097	71	10	8,853
1910	7,076	3,494	75	10	10,655
1920	12,096	5,365	146	18	17,945
1928	21,707	7,931	235	21	29,894

초기에는 조선인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07년부터 표기되어 있다. 대부분 목포의 인구 통계 자료가 같은 양상이다. 목포에 설치된 각국거류지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일본인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 외 중국인¹¹⁾과 구미인으로 분류되어 통계되어 있다. 서양인의 경우 목포에 거주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영사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개항 초기 영국은 구 목포진터 위에 12,475명 규모, 러시아는 현 서산동 언덕(일명 러시아산)에 19,311명 규모로 영사관 부지를 취득하였지만 실제 영사관을 설치한 서양국은 없다. 영국의 경우는 목포 海官長이었던 영국인 아머(W.Armour)에게 1898년 12월부터 영사 사무를 취급하도록 명하였다. 그 외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사를 주재시키지 않았다.¹²⁾

목포가 국제항으로 개항되었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항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목포에서 활동하는 서양인 무역상도 드물었다. 이는 목포항이 지닌 식민성이 반영된 것이다.¹³⁾ 제대로 된 국제무역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이출하는 것이 주목적인 항구였다는 한계점이 나타난 결과가 외국인 거주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독립신문 1897년 10월 28일 기사에는 목포 신개항장 거류지에 서양사람은 1명이라고 보도되어 있다.¹⁴⁾ 이후에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서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대한제국기 목포에 거주하는 서양인 숫자는 10명 내외였다.

이어서 대한제국기에 목포에서 활동했던 서양인의 면모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각종 기록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11) 일본의 제목에는 '滿洲國 及 中華民國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12) 김정섭 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70쪽.

13) 목포항의 국제항로와 식민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다룬바 있다. 「開港 初期 木浦港의 일본인과 海上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14) 『독립신문』, 1897년 10월 28일 기사.

<표 2> 대한제국기 목포에서 활동한 서양인

구분	소속	이름	활동	활동 시기	국적
1	해관	W.Armour	목포해관장	1897~1899	영국
2	해관	C.A.Monsberg	목포해관장	1899~1901	독일
3	해관	L.A.Hopkins	목포해관장	1901~1907	영국
4	각국 거류지회	Staden	각국거류지회 측량기사	1897~1906	네덜란드
5	개신교	Bell, Eugene	목포교회 1대 3대 목사	1897~1901 1902~1904	미국
6	개신교	Bell, Lottie Witherspoon	목포교회 1대 담임사모	1898~1901	미국
7	개신교	Bell, Magaret Whitake Bull	목포교회 3대 담임사모	1904	미국
8	개신교	William Davis Reynolds	양동교회 2대 목사	1901~1902	미국
9	개신교	Reynolds, Patsy Bolling	목포교회 2대 담임사모	1901~1902	미국
10	개신교	J.Fariman Perston	목포교회 4대 목사	1903~1907	미국
11	개신교	Perston, Annie Shannon Wiley	목포교회 4대 담임사모	1903~1907	미국
12	개신교	Harrison, William Butler	5대 목사	1908~1912	미국
13	개신교	McCallie, Henry Douglas	목포교회 목사	1907~1930	미국
14	개신교	McCallie, Emily Cordell	간호사 지역전도	1907~1930	미국
15	개신교	McCutchen, Luther Oliver	목포 교회 목사	1902~1903	미국
16	개신교	Owen, Clement Carrington	의료선교	1898-1904	미국
17	개신교	Owen, Georgiana Emma Whiting	의료선교	1900~1904	미국
18	개신교	Nolan, Joseph Wynne	의료선교	1904~1907	미국
19	개신교	Straeffer, Fredrica Elizabeth	정명여학교 교사	1899~1905	미국
20	개신교	Venable, William Anderson	영흥학교 교사	1909	미국
21	개신교	Venable, Virginia Flouenoy Jones	전도활동	1909	미국
22	개신교	Martin, Julia A	정명여학교 교사	1908~1911	미국
23	천주교	Albert-Victor Deshayes	목포성당 1대 신부	1897~1909	프랑스
24	천주교	Taumeux Victor	목포성당 2대 신부	1909~1911	프랑스

현재 실명이 확인된 인물은 24명이다. 국적은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이다. 주요 소속별로 그 내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목포 해관 관련이다. 목포항에는 개항장 업무를 총괄하는 무안감리서와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목포해관이 설치되었다.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관세 사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해관 업무는 개항장 목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관세 수입은 당시 정부가 목포를 개항한 주된 목적이기도 하였다.¹⁵⁾ 목포 해관의 초대 해관은 영국인 아모르(W. Amour)가 맡았다. 아모르가 목포 해관장을 맡게 된 배경은 1897년 9월 21일에 발행된 『독립신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5)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28~130쪽 참조.

청나라와 조선해관에서 근무한 아모르는 해관업무에 완벽히 숙달되어 있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며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훌륭한 판단력의 보유자이다. 조선해관 직원 중에서 아모르보다 뛰어난 자를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¹⁶⁾

아모르는 인천 해관에서도 근무했고 조선의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다. 목포 최초의 외국인 관료이다. 목포 개항 후 이곳의 경제는 일본인들이 장악해 나갔지만 해관장의 책임자는 영국과 독일인이 맡았다. 2대 해관장은 독일인이 맡았다가 3대에는 다시 영국인이 맡았다. 1907년 8월 1일에 이후에 일본인 伊關重俊이 4대 해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후는 줄곧 일본인이 해관장을 맡았다.¹⁷⁾

개항장에 설치된 목포 해관은 인력구성에서 매우 국제적인 면모를 보였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등이 함께 해관에서 근무하였다. 목포 해관의 업무는 해관장, 통변, 수부, 해관원, 서기, 검사관, 해관감시인 등으로 구분되었다. 검사관은 청국인, 감시인은 일본인이 맡았다.¹⁸⁾ 이처럼 해관의 설치에 다국적 인사들이 목포항에 함께 근무하는 국제성을 띄는 요소였다.

관공서 외에 개항 초기 공적 업무를 띠고 활동한 인물 중에 주목되는 서양인은 네덜란드인 스타덴이다. 개항 후 목포각국거류지는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해벽 공사를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도로 개설도 진행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목포 개항장 각국거류지의 시가 도로 준설은 각국거류지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스타덴은 그 과정에서 도로 측량 업무를 맡은 인물이었다. 목포각국거류지 내 도로는 네덜란드인 스타덴의 측량에 따라 폭 8m, 10m, 12m, 15m의 4가지로 나누어졌다. 목포 개항 직후 시가지의 설계지도를 작성한 스타덴을 측량기사로 고용한 것은 대한제국 정부였다.¹⁹⁾ 스타덴은 측량기사로 활동하는 외에도 당시 목포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소통하였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 네덜란드인 토지 측량기사 스타덴씨(Mr Staden)²⁰⁾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무안감리와 드예 신부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천주교 부지로 사들인 현 산정동 땅과 관련하여 무안감리와 갈등이 있을 때도 스타덴이 둘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는 중계인 역할을 했다.²¹⁾

<표 2>의 인물 중 관공서인 목포 해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각국거류지회의 측량기사를 제외한 목포 거주 서양인은 대부분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1897년 10월에 목포가 개항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목포를 서남권 선교부로 주목하였다. 1898년부터 본격적으로 목포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미 남장로교에서는 현 양동에 터를 잡고 교회를 지어 선교활동을 했다. 프랑스 외방선교회에서는 현 산정동 언덕에 터를 잡고 성당을 짓고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남장로교의 경우는 현 양동 일대를 선교부 거점으로 확보하여 활동했다. 유진벨, 레이놀즈, 프레스턴, 해리슨이 대한제국기 목포 교회의 목사를 지냈다. 교회를 지어 운영한 것 외에

16) 『독립신문』, 1897년 9월 21일자 기사.

17)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265쪽.

18) 『독립신문』, 1897년 9월 21일자 기사.

19) 박찬승·고석규 공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504쪽.

20)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11월 18일 기록.

21)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11월 18일 기록.

도 선교활동의 하나로 여학교(정명여학교)와 남학교(영흥학교)를 개설하였고, 서양식 의료기관인 목포진료소를 설치하여 부란취병원으로 발전시켰다. 오웬 선교사를 중심으로 의료선교를 펼쳤고, 맥콜리·스트레퍼·마틴 등이 교육활동에 앞장섰다. 그에 따라 앞의 <표 2>에 표기한 것처럼 여러 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목포에서 활동했다.

이어서 천주교의 목포 진출 과정을 살펴보겠다. 1897년 목포 개항 시기 전라도 지역에는 전주 본당·완주 퇴재 본당·김제 수류 본당 등 전라북도에만 본당이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에는 김제 수류 본당의 라크루[Marcel Lacrouts, 한국명 구마슬] 신부가 담당하는 공소들만 존재하고 있었다.²²⁾ 천주교에서는 목포가 곧 개항될 것을 예상하고, 1897년 5월 8일에 목포 선교구를 개설하였다.²³⁾ 설립 당시 목포 선교구는 전라남도 전체를 담당하였다.²⁴⁾ 이후 제주도가 분리되고 나주에도 양천리 성당이 설치되는 등 성당이 늘어나면서, 1909년 이후 목포 본당은 무안(현 신안 포함)·영암·강진·해남·완도·진도 등 1개부와 7개군을 담당하게 되었다.²⁵⁾

목포의 성당은 현 산정동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드예의 기록에는 ‘별망산(Pyel-meng)’으로 표기하고 있다.²⁶⁾ 목포에 성당이 자리를 잡는 흐름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 개항 초에는 현 북교동(당시 쌍교촌)에 임시교회당을 세우고 선교를 시작했다. 2단계, 1899년 현 산정동 90번지 부지에 붉은색 벽돌로 된 성당을 지었다. 『목포부사』에는 이곳이 목포 최초 벽돌 집이라고 되어 있다.²⁷⁾ 3단계, 교세가 증가하자 1913년에 같은 산정동 부지에 100평 규모의 성당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에 안정권에 들어가 이 건물이 해방 전까지 목포의 유일한 성당으로 활용되었다. 개신교는 목포교회(양동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늘어난 반면 천주교의 경우는 목포본당 하나를 중심으로 다른 곳에는 공소를 설치하여 운영되었다. 4단계, 1966년에 166평 규모의 성당을 신축한 것이다. 이 건물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²⁸⁾

이처럼 목포 개항 후 천주교는 현 산정동 언덕에 터를 잡고 활동을 했다. 주소상으로 개항 당시에는 무안군 이로면에 속한 곳이었었는데, 1932년 행정구역 개편때 목포부로 편제된 지역이다. 천주교에서 이곳을 확보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목포항 주변의 많은 땅은 이미 일본인이나 개신교인들에게 팔린 상태였다. 그래서 목포항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성당이 눈에 잘 보이는 곳을 선택하였다.²⁹⁾ 1898년 4월 24일 어렵게 토지 매입에 성공했다. ³⁰⁾ 그런데 무안감리가 드예 신부의 토지소유권 허가를 불허하였다. 이유는 이 땅은 원래 無結土地여서 여기저기 민간 무덤이 산재해 있는 柴場이라는 것과 일본영사와 일본인 營葬地로 협의한 지역이라는 이유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 공사까지 나서서 대한제국 외부와 협상을 했다. 오랜 진통 끝에 1899년 9월이 되어서야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었다.³¹⁾ ‘山亭’이라는 지

22)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2권 예향목포)』 2권, 2017, 594쪽.

23)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 주교 일기 II(1896~190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72쪽 1897년 5월 8일 일기.

24)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385쪽.

25) 목포시, 『목포시사(인문편)』, 향토문화사, 1987, 845~846쪽

26) 1899년 7월 17일, 7월 21일, 1907년 3월 24일 기록 등에 등장한다. 별망산이라고도 한다.

27)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385쪽.

28) 도민우, 『목포 개항 후 천주교의 진출과 운영 양상』, 『목포의 근대시설과 사회상』, 목포대학교 사학과 학생학술심포지엄, 2020, 11쪽 참조.

29) 『드예 신부 보고서』, 1987년 10월 31일 기록.

30) 『드예 신부 보고서』, 1899년 3월 7일 기록.

31) 도민우, 앞의 논문, 2020, 20~25쪽 ;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2권 예향목포)』 2권, 2017, 596~597쪽 참조.

명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언덕에 정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근대기 개항과 함께 산정에 성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목포의 근대공간으로 변경되어 갔다.

반면 개항 후 목포의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학교나 병원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초대 신부를 맡은 드예 외에는 다른 천주교 관련 서양인의 이름이 다수 확인되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 진출 초기의 보좌업무는 한국인 이내수가 맡았다. 1922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주재용[朱在用, 바오로, 1894~1975] 신부가 부임하였고, 1923년에 성심소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³²⁾

목포 산정동 성당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자 선교활동의 중심이었다. 1953년 5월 31일 한국 최초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마리아가 도입된 장소로 천주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때 순교한 세 분의 사체가 사목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산정동 성당 주변에 2016년부터 가톨릭 목포 성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현재 대성당,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 역사박물관 등이 완성되었다.

드예는 프랑스 꾸탕스(Coutances) 교구에 있는 스리지 라 살(Cerisy-la Salle)에서 1871년 10월 25일에 태어났다. 1896년 6월 28일 사제로 임명된 후 곧바로 한국 선교회에 배치되었고, 1896년 가을에 한국에 도착하였다.³³⁾ 1897년 5월 목포의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1898년부터 1909년까지 목포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였다. 1909년 5월 1일 뫼텔 주교를 돕기 위해 서울주교관으로 전임되었다. 나주 노안 계량본당에 재임하던 투루뇌 신부가 목포 본당 2대 주임신부가 되었다.

3. 목포항에 대한 기록과 특징

이제부터 드예 신부의 기록에 나타난 목포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겠다. 대한제국기의 목포 사회상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무안감리서와 외부 사이의 공문서류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 시기는 신문의 경우도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신한민보 정도만 존재했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창간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문기록에서 목포에 대한 내용을 찾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개항 후 목포 초기 도시화 과정의 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드예 신부의 기록은 자료적 가치가 있다. 드예 신부의 기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포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다.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32) 목포시, 『목포시사(인문편)』, 향토문화사, 1987, 846쪽.

33) 『드예 신부 보고서』, 고인의 약력 소개 참조.

<표 3> 드예 신부 기록에 담긴 목포 관련 정보

구분	관련 내용	관련 기록
개항 소식	목포 개항에 대한 인식	1897년 08월 11일 1898~1899년도 보고
목포항 가치	목포항의 입지와 가치	1898~1899년도 보고
목포 지형	목포의 자연과 지형	1987년 10월 31일 1898~1899년도 보고
기후환경	목포의 날씨	1898년 07월 12일
생활상	목포 원주민들의 생활환경	1898~1899년도 보고
노동자 파업	개항 후 부두 노동자 파업 양상	1898년 07월 12일 1903년 12월 30일 1903~1904년 성사집행
사건	오경오와 후지키 살인사건	1906년 10월 30일
인물평	한국인 관리 김성규에 대한 평가	1898년 08월 10일 1900년 01월 29일 1899~1900년도 보고
타 종교	개신교의 활동과 광주 이전 양상	1905년 08월 02일

먼저 목포 개항에 대한 부분이다. 목포는 1897년 10월 1일에 국내 4번째 통상항으로 개항하였다. 개항일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는 일본공사관 측에 공식 문서를 보내지 않은 채 1897년 7월 3일 토요일 밤에 「목포와 증남포 항구 개항에 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였다.³⁴⁾ 이 청의서에 10월 1일이라는 개항일이 공식 언급된다. 같은 날 고종실록에 “이것이 통상교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로 택하여 개항할 것이며, 일체 준비해야 할 일들과 關稅 등 여러 가지 실무 문제 모두를 이미 개항한 다른 항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남아있다.³⁵⁾

드예의 기록은 이러한 목포개항 관련 정보를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서구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천주교 측에서는 목포 산정동 성당의 설립일을 1897년 5월 8일로 보고 있다.³⁶⁾ 드예 신부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파견이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³⁷⁾ 8월경에 이미 프랑스 천주교 측에서는 목포가 10월 1일에 개항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 뫼텔 주교가 1897년 8월 11일에 드예 신부에게 보낸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목포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목포는 유럽 상권에 개방을 합니다. 곧 해관이 들어설 이 항구는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주저 없이 가기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³⁸⁾

34)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126쪽.

35) 『고종실록』, 1897년 7월 3일 기사, “목포와 증남포를 통상 항구로 만들어 금년 10월부터 개항하기로 하다”.

36)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2 예향목포』, 2017, 295쪽.

37)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 주교 일기 II(1896~190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72쪽 1897년 5월 8일 일기.

38) 『드예 신부 보고서』, 1897년 8월 11일 기록.

물론 목포가 개항될 것이라는 점은 당시 여론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드예 신부의 위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10월 1일이라는 정확한 개항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일본 외에도 유럽의 상권도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드예 신부는 목포 개항 소식과 함께 이곳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목포가 개항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 ‘1898~1899년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이런 곳에 새로운 항구를 열려는 생각이 나온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말입니다.³⁹⁾

이후 드예 신부는 이 일대를 탐사를 하러 온 어느 전함의 사령관에 목포가 어떤 가치를 지닌 항구인지를 듣게 되었다. 이때 전해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겼다.

솔직히 우리 서양의 바다들에는 이곳만큼 아름다운 항구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목포의 바다는 길이 60리에 폭이 10리에서 20리에 달하고 있으며, 수심은 깊은 곳이 70피트, 낮은 곳이 55피트로 비교적 수심이 고르고, 움직이는 모래가 없으며,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일본으로부터 20시간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이처럼 좋은 조건을 지닌 곳도 드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내에서도 이만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⁴⁰⁾

서양의 바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항구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수심이 비교적 고르고 바람을 막아준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일본과 중국과의 거리에서 국제항구로 발전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드예 신부는 “이러한 이유로 몇몇 강대국들이 어찌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이 항구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기록했다.⁴¹⁾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목포 개항 당시에는 일본 외에 다른 여러 나라도 목포항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개항 당시 목포항의 환경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항으로서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었지만, 생활 여건은 별로 좋지 못했다. 드예 신부는 1987년 10월 31일 뫼텔 주교에게 보낸 글에 ‘항구 그리고 앞으로 생길 도시와 관련해서 그곳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⁴²⁾ 1898~1899년 사이의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에 목포항의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아름다운 해안에 솟아있는 바위 발치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는 있으나, 몇몇 균열이 생긴 초가집들과 함께 그저 폐허지 일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에서 그 이름이 연유된 것입니다. 원형 돌기의 형태로 둥글고 또는 봉우리가 뾰족한 산들처럼 위협적이기도 한 이 언덕들이 삼면에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숲이 우거지고 부분적으로 몹시 비옥하여, 뱃사공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원

39) 『드예 신부 보고서』, 1898~1899년도 보고서 기록.

40) 앞의 주와 같음.

41) 앞의 주와 같음.

42) 『드예 신부 보고서』, 1987년 10월 31일 기록.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배를 건조하기 위한 재목을 얻어냈으며, 평야에서는 그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쉬는 동안 그들의 여유롭지 못한 양식을 위해 필요한 야채와 곡식을 생산해 냈습니다. 지금은 거의 헐벗은 언덕들은 식용 풀들과 아무데도 쓸데없는 잔디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⁴³⁾

초가집들이 균열이 나 있고 폐허지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위 인용문 중 밑줄 부분은 원래 조선시대 목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귀한 자료이다. 뽕족한 산으로 묘사한 곳은 유달산을 의미한다. 유달산은 돌 산으로 유명하지만, 조선시대에 기록에는 소나무가 많아서 배를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⁴⁴⁾ 드에 기록은 그러한 원래의 목포 상황을 설명하면서, 개항될 당시에는 유달산이 황폐해진 상황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개항 당시 목포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인식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저는 이곳 토착민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고, 좁으며, 파괴, 모기와 그 밖의 온갖 종류의 해충의 소굴입니다.⁴⁵⁾

목포사람들의 집이 낮고 좁고 벌레가 많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은 목포의 기후 환경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서양인의 입장에서 경험한 목포의 날씨에 대한 첫인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1898년 7월 12일 기록 목포 날씨에 대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이곳은 습기와 안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 옷의 대부분은 이들 안에 곰팡이가 썩습니다. 분명 우리는 매우 어렵게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 습기 때문에 병이 생기지만 앓는다면, 우리가 겪을 엄청난 더위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⁴⁶⁾

목포항이 습기와 안개가 많고 이로 인한 곰팡이가 심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여름철 기록에는 날씨가 덥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이어서 목포의 사회상에 대한 기록 부분을 살펴보겠다. 대한제국기 목포 개항장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실려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목포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목포 부두 노동운동은 1897년 개항 직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미 부산이나 인천 개항장에서 관련 경험이 축적된 후 목포가 개항되었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일본 상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발 빠르게 전개되었다. 목포 개항과 함께 한국정부는 무안감리서를 설치하였고, 일본은 각국거류지에는 일본영사관을 설치하였다. 둘 다 개항장 내에 외교 및 통상 사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무안감리서와 일본영사관의 대치 구조하에 상인들의 민간 기구가 형성되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역

43) 『드에 신부 보고서』, 1898~1899년도 보고서.

44) 『세종실록』, 1448년 8월 27일 기록, 의정부에서 당시 외적을 막을 兵船을 건조하는 자재인 소나무를 확보할 계획을 임금께 상신하면서 소나무가 잘되는 전국의 산과 串을 열거하는 내용에 유달산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목포 유달산이 원래는 소나무가 많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45) 『드에 신부 보고서』, 1898~1899년도 보고서 기록.

46) 『드에 신부 보고서』, 1898년 7월 12일 기록.

할을 하였다. 일본인 상업회의소와 한국인들의 객주 단체가 대립된 상태에서 개항기 목포 부두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1914년 일본인들이 발간한 『木浦誌』의 마지막에 ‘한국인의 통상방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⁴⁸⁾ 일본인의 시각에서 ‘통상방해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드예 신부의 기록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 있는 서양인의 시선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빠른 기록은 1898년 7월 12일 목포 일본 상인들에 맞선 두 가지 파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본 상인들과 함께 한국 객주(Kaik-tjyou)들의 두 가지 파업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일본인들이 비집고 들어온 것처럼, 이곳도 왜인(oai-in)들이 지배하고,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제멋대로 그들의 상품들을 내놓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몇몇 한국인 부자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이 음모들을 막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⁴⁹⁾

1898년에는 한국인 인부의 임금을 인하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파업이 일어났다. 『목포지』에 의하면 1898년 2월과 9월 한국인 인부의 노임 문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1898년 기록과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기록도 없고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하여 그 개요만 적는다”고 밝혀 놓았다.⁵⁰⁾ 드예 신부의 기록에 의하면 『목포지』의 9월 달 사건이 실제 더 빨리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인의 기록에는 단순한 노임 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표현했지만, 드예 신부의 인식은 달랐다. 일본인들이 목포의 부두노동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목포의 한국인들이 막아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개항 후 이후 부두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단순히 임금비 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평이다.

개항 후 대한제국기에 목포에서는 총 8차례의 부두 노동운동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임금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노동권 쟁취와 관련된 성격으로 발전해갔다.⁵¹⁾ 1903년 1~2월과 11~1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가장 중요했다. 1903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정박지에 닦을 내린 포함에서 상륙한 일개 소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일본 경찰은 동맹파업을 한 인부들을 싸움판으로 몰아넣어, 34명의 한국인 인부들이 심한 상처를 입게 만들었다.⁵²⁾

일본은 목포항의 자국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함까지 동원했고, 실제로 병력을 일본 경찰에 지원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부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903년 부두 노동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드예 신부의 1903년 12월 30일 기록에는 “목포에서는 일본 사람들과 조선

47)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 향도 목포』, 2017, 375~376쪽을 참조하여 요약.

48) 김정섭 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406~449쪽.

49)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7월 12일 기록.

50) 김정섭 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406~407쪽.

51)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 향도 목포』, 2017, 377쪽.

52) 『드예 신부 보고서』, 1903~1904 성사집행 보고기록.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폐허와 구걸하고 다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⁵³⁾ 일자리를 얻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은 구제품 옷을 얻으려면 개신교 교회로 가고, 외국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면 가톨릭교회로 가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⁵⁴⁾ 당시 목포 사회에서 서양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되는 기록은 일본인 후지키 히로스케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 일은 목포 원로들 사이에서 이른바 ‘후지키 살인사건’ 이라는 이름으로 구전되어왔다. 무안감리의 1906년 10월 29일 보고서에 이 사건의 개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향 오룡촌에 사는 오경오가 涉訥里에 사는 일본인 藤木弘助에게 갇아야 할 빚이 있었던지 10월 25일 오경오를 잡아다가 무수히 구타하고 서까래 나무로 등위에 깎지 끼듯 결박하여 반침돌 두 개로 수문에 걸쳐놓아 목숨을 끊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오의 친척들이 그의 아들 守敏을 데리고 와서 후지키를 두들겨 패고 경오의 아들 수민이 칼을 뽑아 배를 갈라 오장을 끄집어내어 벋섬에 싸서 고발하기 위하여 관부로 가져갔다. 이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이사청과 일본경부와 헌병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였는데 오경오가 맞아 죽은 것과 일본인 후지키의 할복피살을 일본 경부가 전부 목격하고 후지키 시체는 거두어 화장하였으니 이 사건이 피차 양쪽이 다 죽었고 실질적인 원인이 확실하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 오씨의 시체는 빨리 매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본이사청과 경부가 간곡히 얘기하여 시체를 가족에게 내주어 매장토록 하였다.⁵⁵⁾

일본인 고리대금 업자인 후지키가 빚을 진 한국인 오경오를 구타해서 살해하자 그의 자식이 복수한 사건이다. 을사늑약 후 통감부가 설치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을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이 사건에 대한 드예 신부의 인식이 흥미롭다. 1906년 10월 30일 기록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목포에 있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냉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후지키 씨(Fujiki)는 오경오(O kyeng-o)를 죽이면서 그렇게까지 슬픈 종말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⁵⁶⁾

드예 신부는 목포사람들을 감싸주고 있다. 한국인의 복수를 미개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후지키가 함부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이 발단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원래 냉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겨있다.

다음은 지역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목포의 감리와 지도군수를 비롯하여 지역의 관리 이름과 그에 대한 품평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

53) 『드예 신부 보고서』, 1903년 12월 30일 기록.

54) 『드예 신부 보고서』, 1903-1904 성사집행 기록.

55) 고석규·박찬승 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551~552쪽 ‘1906년 10월 29일 보고서 제4호’ 내용을 요약.

56) 『드예 신부 보고서』, 1906년 10월 30일 기록.

은 金星圭(1863~1936)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 후기의 관료로 목포 개항 당시 장성군수를 지냈고, 이후 1906년에 제6대 무안감리이자 무안항재판소 판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에서 언급한 1903년 부두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심했을 때 한국인 노동자를 옹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후 퇴직하여 목포에 자리를 잡고 사업가로 변모하였다. 1920년 목포청년회 창립시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일제강점기 목포 지식인들의 문학단체인 木浦詩社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학계에서의 김성규에 대한 평은 매우 다양하지만, 목포 지역 사회에서는 비교적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어 온 근대기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런데 드예 신부는 김성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가 목포의 감리로 오기 전인 장성군수 시절부터 언급되고 있다. 그를 ‘작은 세력가’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⁵⁷⁾ ‘장성의 군수인 전제군주 김성규’ 라고 기록했다.⁵⁸⁾ 장성에서 발생한 천주교인들과 이교도 사이의 갈등에 대해 김성규가 왜곡하고 공평하기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898년 6월 22일 기록 중 당시 장성군수가 전라남도예 보고한 내용에 ‘동학의 반역자들과 외래 교리의 신봉자들이 결탁하여 무질서를 일으킨다’ 는 표현이 들어있다.⁵⁹⁾ 목포를 선교 본부로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 장성을 비롯하여 드예 신부는 전라남도 전체 권역의 선교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장성군수의 처분에 불만이 있었다.

1899~1900년도 선교활동을 기록한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김성규의 부정행위를 상세히 적었다. 앞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년 전부터 김성규라는 거만한 작자가 이곳의 군수였습니다. 그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여섯 명의 첩들의 욕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탈 행위를 자행하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첩 중 한 사람이 우연히도 신자들을 미워하는 친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사람의 증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⁶⁰⁾

김성규가 장성군수 시절 천주교도들을 사적으로 탄압했다는 내용이다. 위의 기록에 이어지는 부분에 관련 내용을 서술해 놓았다. 지극히 드예 신부의 시각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의 김성규 행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희소하여 드예 신부의 기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개화기 관료였던 김성규가 천주교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끝으로 살펴볼 부분은 드예 신부의 기록에 담긴 개신교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남장로 교에서 목포의 현 양동에 터를 잡고 선교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유진벨 목사가 어떤 벽돌을 사용해 집을 짓는지, 땅을 얼마에 주고 구입했는지 등을 기록하였다.⁶¹⁾ 개신교와 천주교는 개항장 목포에서 선교활동의 경쟁자 관계였다. 드예 신부 스스로 자신이 목포에 있는 미국의 개신교도들과 끝없는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⁶²⁾ 개신교

57)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8월 10일 기록.

58) 『드예 신부 보고서』, 1900년 1월 29일 기록.

59)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6월 22일 기록.

60) 『드예 신부 보고서』, 1899-1900년도 목포지방 기록.

61) 『드예 신부 보고서』, 1898년 7월 12일 기록.

의 유진벨 목사는 1904년 12월 목포 지방의 선교 구역을 프레스톤(변요한) 선교사에게 맡기고 광주로 양림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떠났다.⁶³⁾ 시기적으로 이 때는 1903년에 목포에서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상황이다. 때문에 목포의 선교본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광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드예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들은 너무나 신자가 적고, 장래를 기약할 수도 없이 매우 입장이 난처해져, 목포를 떠나 광주로 정착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거처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목포에서 신자 수가 늘지 않아 새로운 거점을 찾아 광주로 이전했다는 내용이다. 당대 인식이 반영된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개신교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 높은 기록이다. 목포가 개항 후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목포 각국거류지의 지형상 해안가 갯벌을 막는 해벽공사가 끝난 후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가지 건설 전에 해벽 공사가 선행되었다. 해벽 공사는 1899년 6월에 착공하여 1901년 5월에 1차 완성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벽이 붕괴 되는 일이 발생하여 1909년 5월 세 번째 수축을 마치고 나서야 안정감이 생겼다.⁶⁴⁾ 이러한 목포의 상황으로 인해 개항 초기는 인구 증가와 상업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목포의 인구가 만 명을 넘어간 것은 1910년 이후였다. 인구 면에서는 광주가 전라남도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있었다.⁶⁵⁾ 물론 인구 외에도 광주 인근에서 교회들이 새로 설립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포 선교부에서 지원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새로운 교회를 광주권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광주 선교부가 필요했다.⁶⁶⁾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개신교의 교회가 개항 후 신도를 늘리는 데 고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버릇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천주교의 경우는 마리아상이나 염주 등에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생활과 통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는 다른 어떤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드예 신부의 기록이 지닌 가치이다.

62)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2일 기록.

63) 목포양동교회, 『목포양동교회100년사』, 셋별, 1997, 63쪽.

64)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714~715쪽.

65)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쿰란출판사, 1998, 164쪽.

66) 앞의 주와 같음.

4. 섬에 대한 기록과 특징

목포에 선교부를 둔 드예 신부는 현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여러 섬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다녔다. 조선시대 나주목 등에 속해 있던 여러 섬들은 1896년 智島郡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섬으로 이루어진 개별 행정구역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다시 무안군의 일부가 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한제국기에는 지도군 소속이었으며, 지도군수가 관리하는 상황이었다.

드예 신부는 1900년부터 섬 지방 선교를 시작하여 지도군의 안창도, 도초도, 비금도, 자은도, 압해도 등에 공소를 설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섬 문화에 대한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다. 대한제국기 섬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물다. 서양인이 드예 신부가 직접 섬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소감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드예 신부의 기록 중에 당시 섬 문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드예 신부 기록에 담긴 섬 관련 정보

구분	관련 내용	관련 기록
섬 신도	섬 지역 천주교 전파	1900년~1901년 보고 1902년~1903년 보고
교안사건	지도교안 사건의 발생과 처리	1901년 08월 09일 1901년 11월 17일 1901년 12월 28일 1901년 03월 24일 1902년 09월 14일
지도 군수	지도 군수의 비리	1900년 01월 29일 1899~1900년 보고
토호세력	섬 토호세력의 존재와 천주교 거부	1903년 10월 30일 1904년 02월 04일
일진회	섬에서 일진회의 횡포 양상	1905년 08월 02일 1905년 08월 04일 1905년 08월 07일 1905년 08월 14일 1905년 08월 25일
섬 여성	섬마을 여성들의 생활상	1902~1903년도 보고
섬 남성	섬 남성들의 수준	1902~1903년도 보고
섬의 공간성	섬 문화다양성과 고립성	1902~1903년도 보고
섬사람 성향	섬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의견	1902~1903년도 보고
자은도	자은도의 특징과 신도 현황	1902~1903년도 보고서
비금도	비금도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품평	1903~1904 성사집행
일본해군	자은도에서 일본 해군의 횡포	1903~1904 성사집행
정약전	천주교인 정약전의 유배 생활 흔적	1902년 06월 06일

먼저 섬 지역 천주교 전파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1900년 기록에 섬 지역에 새로 세워진 교우촌과 세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섬의 명단이 적혀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⁶⁷⁾

<표 5> 1900년 섬 지역 교우촌과 세례 지원자 지역 목록

새로 세워진 교우촌 이름		세례 지원자가 있는 곳
지역	영세자	지역
안창도(An-tchang-to)	40명	팔금(Hpal-keum)
도초도(To-cho-to)	52명	시아도(Sia-to)
비금도(Pi-koum-to)	23명	반월도(Pan-ouel-to)
자은도(Tja-eun-to)	55명	백의도(Paik-eui-to)
암태(Amtai)	13명	하의도(Ha-eui-to)
압해도(A-pei-to)	18명	장산(Tjyang-san)
소귀도(Sokouito)와 기좌도(Kitjoa to)	5명	쥐도(Tjui-to)
합계	206명	흑산도(Heuk-san-to)
		가거도(Ka-ke-to)

대부분 현재의 신안군에 속한 섬이다. 소귀도는 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창도와 기좌도는 현재의 안좌도이다. 지금은 두 개의 섬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분리되어 있었다. 쥐도는 지도이고, 반월도는 현재 안좌면에 속한 반월도이다. 백의도는 반월도와 나란히 있는 박지도를 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아도는 현 시하도를 표기한 것으로 목포에서 신안 섬 지역으로 가는 해로 상에 있으며 행정구역은 해남군 화원면에 속한다.

<도표 5>을 보면 1900년에 이미 목포 주변 섬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6명이나 되었다. 섬 지역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면 꽤 많은 숫자이다. 세례를 희망하는 지역에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흑산도와 가거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현 신안군의 전체 섬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이후 1902~1903년도 목포지방 관리현황 보고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10개의 섬들이 새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섬들의 이름은 상태도(Sang-tai), 하태도(Ha-tai), 흑산도(Heuk-san), 팔금도(Hpal-keum), 자라도(Tjarato), 장산도(Tjang-san), 가사도(Kasado), 진도(Tjinto), 가란도(Karanto), 기좌도(Keui-tjoa) 등입니다. 또한 지도(Tjito) 한 지방에서만 적어도 2,000여 명의 가장들이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⁶⁸⁾

상태도, 하태도, 가란도, 자라도, 가사도, 진도 등의 섬 이름이 추가되었다. 상태도와 하태도는 현 흑산면과 신의면에 같은 이름이 있어 위 기록이 정확히 어느 섬을 칭하는지는 모호하

67) 『드에 신부 보고서』, 1900년~1901년 목포지방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도표로 정리하였다. 영문은 원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68) 『드에 신부 보고서』, 1902~1903년도 목포지방 관리현황 보고서 기록

다.⁶⁹⁾ 가사도와 진도는 현 진도군에 속한 섬이고, 가란도는 신안군 압해면, 자라도는 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섬이다. 지도에서만 2,000명이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기록을 보면 섬에서 천주교 신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예 신부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섬 지역 천주교 전파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자은도였다. 1904년 3월 7일에는 “자은도의 교인들은 신부를 위한 거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집은 20칸짜리 집입니다. 저는 가끔 몇 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160명의 영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비 신자가 약 130세대 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섬의 3분의 2가 교인들입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자은도의 한 교우촌은 기와로 지붕을 만든, 일곱 칸 자리에 배당이 있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는 내용도 등장한다.⁷⁰⁾

20세기 초 이처럼 섬 지역에 천주교 신자가 급격히 늘어났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2017년 발간된 『신안군지』 천주교 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드예 신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서지역에 천주교가 확산되어 가던 중 천주교 입교를 희망하는 섬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 소문이 있었다. 그것은 관리들이 천주교인에게는 규정된 세금만을 요구했으나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3~4배의 세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도서지역에서 천주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일부 섬에서는 집단 개종이 일어나기도 하였다.⁷¹⁾

이는 1896년 지도군이 설립된 이후 사회상과 연관이 있다. 1896년 2월 3일 칙령 제13호로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沿海諸島에 郡을 설치하는 건” 이 반포되면서⁷²⁾ 지도군·완도군·돌산군이 신설되었다. 지도군에는 그 전에 나주·영광·부안·만경·무안 5군에 분산되어 있던 섬들이 편제되었다. 섬으로 이루어진 郡을 창설한 목적에 대해 지도군의 초대 군수를 맡은 오홍묵은 “섬과 육지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보살피겠다” 는 의지라고 해석했다.⁷³⁾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섬 주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은 늘어났고, 이를 집행하는 관리와의 갈등은 심해졌다. 이 시기 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김윤식이 지은 시 「智島菴谷村」에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근래에는 세금으로 징수해가는 것이 끝이 없어, 관리를 만나면 원숭이처럼 놀란다. 줄줄이 내려온 서울 벼슬아치들은 저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한다” 는 표현이 등장한다.⁷⁴⁾

지도군이 신설된 후 지방관청이 섬 주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각종 세금을 무분별하게 걷어 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전파된 천주교는 섬 주민들의 새로운 보호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지도군의 관리와 천주교 신자 사이 갈등으로 인한 발생한 교안 사건이 하나의 예시가 된다. 흔히 ‘教案’ 사건은 1866년 천주교회가 포교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 교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도와 지방관리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말한다.⁷⁵⁾ 주로

69) 전체 기록의 흐름상 현 신안군 신의면에 속한 하태도와 상태도를 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2개의 섬이었고, 현재는 하나의 섬으로 이어진 상태이다.

70) 『드예 신부 보고서』, 1904년 6월 26일 기록.

71) 신안군지편찬위원회, 『신안군지(제2권 삶의 환경과 사회상)』, 연기획 2017, 720쪽

72) 『고종실록』 34권, 1896년 2월 3일(양력) 1번째 기사.

73) 김정섭·김형만 역,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2008, 46쪽, 1896년 2월 6일 기록.

74) 김상수 역, 『운양시선집』, 이회, 2004, 421~422쪽.

20세기 초에 발생했다. 목포권에서는 1901년에 이른바 ‘智島教案’ 사건이 일어났다. 드예 신부의 섬 관련 기록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초기 선교활동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사건 개요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군 자은도에 속한 한국인 천주교인들이 지도군에서 징수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부터 출발했다. 자은도 천주교도들은 지도군 관속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신부에게 하소연하였다. 드예 신부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이 있는 지도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드예 신부를 수행한 한국인 福師를 지도군 관원들이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다. 드예 신부는 뫼텔주교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결국 福師를 구타한 지도군의 관원 6명은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 졌다.⁷⁶⁾

지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섬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천주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06년 6월 6일 기록에는 “지도의 폭행 사건에 이어 많은 시련을 겪었던 자은도의 교인들은 저에게 성사를 주러 오라는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개월 전에 그들에게 저를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는 내용이 남아있다.⁷⁷⁾ 그러나 결국 지도의 관원들이 실형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자 다시 섬 지역의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천주교가 지방 관원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뫼텔 주교도 목포 본당을 방문했다. 드예 신부의 1902~1903년도 보고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교님의 친절하고 다정한 배려로 지도(Tjito)에서의 사건은 교우촌의 명예를 끝내 회복하는 선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주교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주었고, 신자들의 열성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해주었습니다.⁷⁸⁾

실제 뫼텔 주교 일기에도 1902년 8월 19일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⁹⁾ 지도 교안 사건은 섬을 다스리는 지도군과 목포 천주교의 대립에서 시작하여 대한제국 정부와 프랑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발전했고, 결국 프랑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당시 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김윤식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프랑스인의 세력이 성하여 감히 어길 수 없어서 이처럼 지나친 벌을 당하게 되었으니 탄식할 일이다.” 고 기록했다.⁸⁰⁾ 그 결과 섬사람들은 천주교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지도군수에 대한 언급도 자주 등장한다. 물론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다. 1900년 1월 29일 기록에는 당시 지도군수 박용규의 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박용규는 파면의 위기에 있었는데, 지도군수직을 도로 사기 위해 6만냥이 필요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강제로 거두어 들였다는 내용이다. 섬 주민이 돈을 내지 않으면 군수는 그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그를 체

75) 고석규, 「20세기 자은도의 시련과 화해」, 『도서문화』 2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3, 46쪽.

76) 김윤식, 『續陰晴史』, 1901년 9월 11일(29일) 일기.

77) 『드예 신부 보고서』, 1902년 6월 6일 기록.

78) 『드예 신부 보고서』, 1902~1903년도 보고 기록.

79)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 주교 일기 3(1901~190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61쪽.

80) 김윤식, 『續陰晴史』, 1902년 10월 5일(초4일) 일기.

포하도록 사람을 보냈고, 도망가면 대신 그의 아내를 잡아가 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도군 설립 이후 지방관청의 행정의 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⁸¹⁾

가난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드예 신부는 그 근거지가 압해도였고, 이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⁸²⁾ 이러한 내용은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제국기 섬 지역의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다. 1904년 10월 16일 기록에는 “지도(Tjito)의 군수는 세상이 다 아는 도적놈인데, 그는 한 사람의 교인을 체포하려고 47명의 나졸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도군의 관리 외에도 민간의 세력자들과의 갈등도 존재했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천주교가 섬에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의 반대 세력이 등장한다. 하나는 섬마을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던 토호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친일 단체인 일진회이다.

먼저 섬의 토호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압태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관련 내용인 묘사되어 있다. 1903년 10월 30일 기록에는 압태도의 문선생이라는 자가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공소의 방 안까지 쳐들어와서는 손에 칼을 쥐고 교리교사를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욕설을 퍼부으며, 천주교가 자기 섬에 전파되는 것을 막겠다고까지 공언했습니다.” 는 내용이 등장한다.⁸³⁾ 1904년 2월 4일 기록에는 문선옥(Moun Syen-ok)이라는 실명이 등장한다. 그는 “학자들의 향약소(hyang-yak-so)를 다시 건립했습니다. 그들은 6~7백 명은 됩니다. 그는 부상(pou-sang)의 소집을 추진했습니다. 3~4백 명에 이릅니다. 신자들에 대항하는 몇몇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회합을 연 다음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만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교우를 잡아다가 때리고 주리를 틀었습니다.” 고 되어 있다.⁸⁴⁾ 또한 기좌도에서는 “문선생의 경쟁자인 김봉균이라는 자가 교리교사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부상을 조직하여, 교인들의 집을 약탈하였습니다.” ⁸⁵⁾

이러한 기록은 천주교가 섬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섬 토호세력과의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섬에도 기존의 유교적 질서 속에 주도층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존재했다. 위 기록은 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향약소를 건립하거나 교인들을 구타하는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1904년 이후 드예 신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섬마을까지 깊숙이 퍼진 친일단체 일진회였다. 천주교의 종교활동을 방해하는 일진회의 횡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1905년 8월 2일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일진회라는 급진주의자들(progressistes)⁸⁶⁾의 더러운 패거리들이 안창, 기좌, 팔금, 장산, 도초도, 상태의 교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약탈 했습니다. 24명의 교인들이 감리에게 호소하기 위해 안창도로부터 왔습니다.⁸⁷⁾

81) 『드예 신부 보고서』, 1900년 1월 29일

82) 『드예 신부 보고서』, 1899~1900년도 기록.

83) 『드예 신부 보고서』, 1903년 10월 30일 기록.

84) 『드예 신부 보고서』, 1904년 2월 4일 기록.

85) 앞의 주와 같음.

86) 일진회의 단체 성격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다. 정황상 이 시기 결성된 친일단체의 지방조직으로 보인다. 원문에 일진회 참여자를 ‘progressistes’로 표기했다.

일진회는 관리의 지시나 법원의 판결은 안중에도 없는 무법 단체였다. 드예 신부는 이 사건을 광주의 도장관에게 알려 체포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실행되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⁸⁸⁾ 같은 기록에는 “일진회의 또 한 사람의 우두머리는 기좌도의 김봉균(Kim pong-kyoun)입니다.”는 내용도 남아 있어 실명도 확인된다.⁸⁹⁾

섬 지역 일진회 회원들의 세력은 점점 커졌다. 1905년 8월 4일 기록에는 “도초도에 그들의 회원이 2백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밤을 세워가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⁹⁰⁾ 그들은 교인의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안창도에서는 일진회의 교리교사 김봉균이 한 교인의 아내를 강제로 끌고가기도 했다는 세부적인 증언이 남아 있다.⁹¹⁾ 1905년 8월 25일 기록에는 일진회의 최태석이라는 자가 “한 밤 중에 남편들과 함께 자고 있는 5명의 여신도들을 강간하러 왔습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⁹²⁾

그들의 무법 행위는 심각했다. 심지어 교인들이 목포로 호소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섬의 선착장과 부두를 지켰키기도 했다. 드예 신부는 “일진회 회원들이 프랑스는 교인들과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일본은 그들 일진회 편이라는 등등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고 당시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였다.⁹³⁾

1901년 지도교안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섬 내의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지도의 관청을 상대할 때는 프랑스 공사가 영향을 발휘했지만,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일본의 입지가 완전히 굳어진 상황에서 친일 단체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었다. 점점 일진회의 횡포는 심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민중의 적이다. 선교사들은 우리의 습관과 관례에 반대되는 교리를 전도하려고 한국에 온 것이다. 그들은 위패를 부수게 했고, 우리의 쌀을 먹고 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떠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을 죽이자.”라고 대중을 선동했다.⁹⁴⁾ 이러한 양상은 섬 마을에서 천주교 전파에 큰 장애로 작용했다. 1900년 섬마을 선교가 시작된 이후 신도수가 급증했으나, 1904~1905년 일진회와의 충돌 이후에는 천주교 신부가 섬 주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⁹⁵⁾

이제 드예 신부가 섬으로 선교활동을 다니면서 느낀 섬사람들의 생활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1902~1903년도 목포지방 관리현황 보고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서양인의 시선에서 본 당시 섬사람들의 사회상과 성향에 대한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먼저 섬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섬 여성의 생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87)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2일 기록.

88) 앞의 주와 같음.

89) 앞의 주와 같음.

90)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4일 기록.

91) 앞의 주와 같음.

92)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25일 기록.

93)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4일 기록.

94) 『드예 신부 보고서』, 1905년 8월 7일 기록.

95) 신안군지편찬위원회, 『신안군지(제2권 삶의 환경과 사회상)』, 연기획 2017, 724쪽.

섬 지역의 부인네들은 대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도 없으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낮이고 밤이고 아무런 불평없이 일을 합니다. 벼를 심고, 잡초를 뽑고, 벼를 베어, 나락을 타작하고, 그것을 도정하는 것은 부인네들입니다. 산에서 땀감을 해오는 것도, 목화를 따다가 실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녀들입니다. 육지의 부지런한 주부들이라도 겨울에는 바느질을 하는 일밖에 없는데 반해, 섬의 부인네들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새벽 한 시나 두 시까지 면과 비단을 짜서, 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의 부인네들에 대한 복음전도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럼에도 금년에는 부인네들 중에서 12명의 영세자를 배출시켰습니다. 이 중 아무도 편지를 읽을 줄 모릅니다. 책 읽기를 배운다는 것은 젊은 처녀들에게는 오히려 수치가 됩니다.⁹⁶⁾

섬 여성들의 생활상을 동물에 비교하고 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 한 것이다. 육지 여성들의 경우 겨울에는 바느질 외에는 일이 많지 않은데, 섬 여성들은 겨울에도 끊임없이 일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한 현실에도 섬 여성들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했다. 섬 여성들의 이러한 바쁜 일정이 복음을 전도하는데에 제약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기록은 정말 귀한 자료이다. 20세기 초 섬 여성의 생활상을 서양인의 시선에 비친 그대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한편 당시 섬의 남자들은 두 아내를 동시에 거느린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기록에 등장한다. 자은도를 설명하면서 “이 섬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 자기 처를 버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동시에 거느리지만, 한 지붕 밑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아내와는 절대로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 기록했다.⁹⁷⁾ 이러한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당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섬 여성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에 비해 남성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을 내렸다. “남자들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운문(en-moun)으로 된 책을 읽을 줄 압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문을 해독할 줄 알고, 쓸 줄도 압니다.” 고 표현하고 있다.⁹⁸⁾ 여성에 비해 섬 남성들의 교육수준은 양호하다는 인식이다.

드예 신부는 섬사람들의 성향에서 느껴지는 결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섬에 대한 국내 기록은 소략한 내용이면서도 대부분 통계와 현황 위주다. 드예 신부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힌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섬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큰 결점은 이기주의입니다. 모르는 자들을 환대하는 법이 절대 없으며, 세금이나 개인적 부채의 지불이 자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중략)

섬사람들의 주된 특성은 권력 당국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들 가련한 자들은 육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수평선만큼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리의 비천한 하인들이나, 그들 속을 해매고 다니는 12번째 계급의 세리들에게도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⁹⁹⁾

96) 『드예 신부 보고서』, 1902~1903년도 목포지방 관리현황 보고서 기록.

97) 앞의 주와 같음.

98) 앞의 주와 같음.

99) 『드예 신부 보고서』, 1902~1903년도 목포지방 관리현황 보고서 기록.

드예 신부는 섬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인식했다. 세금이나 부채를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러면서도 권력에는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고 육지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다고 서술했다. 드예 신부는 “섬사람들의 성격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습관이나 열정, 또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통에서 오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고¹⁰⁰⁾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섬사람들이 겪어왔던 고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매우 객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주요 섬마다 별도로 현황과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 섬의 문화다양성과 고립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자은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만약 섬마다 각각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정신이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이 다르며, 관습들이 상충되어 격렬한 파도처럼 서로 밀고 부딪쳐 제멋대로 썰 새 없이 또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10대와 15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해협을 건너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풍문으로 밖에는 육지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도, 당나귀도, 노새도, 산양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한국의 쾌속 범선들에 그들의 생명을 맡기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¹⁰¹⁾

하나의 섬이라고 해도 공간에 따라 성향이 매우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요즘은 이러한 양상을 ‘문화다양성’¹⁰²⁾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런면에서 섬은 문화다양성의 공간이다. 한편 섬사람들의 고립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오래도록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육지 소식에 어둡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근대 선박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통 배를 선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섬별 특징과 관련하여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비금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도 남아있다. 비금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섬사람들로부터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완고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파렴치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비금도에서 온 사람이군.”¹⁰³⁾

왜 이러한 내용이 남게 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주민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할 것 같은 내용이지만, 드예 신부가 비금도로 선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평판을 적은 것이다. 당대에 섬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100) 앞의 주와 같음.

101) 앞의 주와 같음.

10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91호, 2014. 5. 2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는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03) 『드예 신부 보고서』, 1903~1904 성사집행 기록.

다음은 드예 신부의 기록에 담긴 이색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당시 자은도에 일본 해군이 주둔한 내용이 주목된다.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두 달 전부터, 일본 해군이 그곳에 참호를 지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마을을 쏘다니며, 닭과 돼지를 잡아 값을 치르지 않거나, 치른다 해도 헐값으로 빼앗아 갔습니다.¹⁰⁴⁾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러일전쟁에 대비한 팔구포 일본 해군기지 구축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 해군은 ‘八口浦’ 일대를 일본 해군의 비밀기지로 활용했다. 팔구포는 현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비금도·도초도·자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하의도·장산도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명 ‘八口灣’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일본 해군은 하의면 옥도를 중심으로 팔구포방비대를 설치하고 주변 섬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¹⁰⁵⁾ 자은도는 일본 해군의 급수지로 활용하기 위한 후보지였다. 자은 용소 부근에 일본 해군기지를 설치했는데, 드예 신부의 기록은 그 당시 일본 해군의 만행과 관련된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다음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현 신안군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정약전에 대한 언급이다. 1902년 6월 6일이 뒤텔 주교에 보낸 기록에 정약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흥미롭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저는 정약전이 흑산에 있는 천주교인이 된 박인수(Pak in syou)네 집에 귀향 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약전은 한국 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마자 주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교인에 대한 평판은 존경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실과 겸손과 정결함의 모범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¹⁰⁶⁾

정약전은 1801년부터 1806년까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정약전의 유배시절 관련 기록으로는 몇 종의 저서와 시문, 동생 정약용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흑산도의 누구 집에 살았는지, 천주교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파악할 자료가 없다. 반면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박인수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명이 등장하고, 정약전이 한국 성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다른 어떤 사료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섬 사회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다.

104) 앞의 주와 같음.

105)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졸고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옥도 팔구포방비대 설치와 활용」(『도서문화』 38,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106) 『드예 신부 보고서』, 1902년 6월 6일 기록.

5. 맺음말

개항 후 목포와 관련된 역사 연구는 비교적 꾸준한 편이다. 그러나 당시 목포에서 활동했던 서양인과 그들이 남긴 관련 기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이 글에서는 천주교가 목포에 진출한 후 초대 신부로 활동했던 알베르 드예의 기록을 토대로 그 안에 담긴 대한제국기 목포항과 다도해의 사회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연구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항 후 목포에 활동했던 서양인의 면모와 천주교의 진출 과정을 살핀 것이다. 목포 개항과정의 특징상 당시로서는 국내 최초로 ‘각국거류지’ 한 곳만 설치되었는데, 실제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서양 국가는 목포에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한 흐름 속에 목포에 거주하는 서양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각종 기록을 통해 대한제국기 목포에 거주했던 서양인 이름 24명을 정리하여, 관련 소속별로 목포에서의 활동 특징을 살폈다. 더불어 논지 전개를 위해 천주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목포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목포항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개항 초기 목포의 자연환경, 생활상, 기후정보, 개항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개항 후 목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부두노동운동에 대한 서양인의 인식도 살필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이를 ‘한국인의 통상방해사건’으로 명명하였던 점에 비해 드예 신부는 일본의 경제장악 음모에 한국인들이 맞서는 상황으로 묘사하였다. 지금은 목포의 원로들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1906년에 발생한 일본인 후지키 살해 사건에 대한 신부의 솔직한 심정도 확인하였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한국인은 원래 잔혹한 성격이 아니라 일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장성군수와 무안감리를 지낸 김성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다. 김성규가 지역에서 비교적 좋은 평을 들었던 인물임에 반해 드예 신부는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료로 주목되었다. 그 외에 개신교의 활동에 대한 기록도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당시 사회상 관련 정보로 분석하였다.

셋째, 목포 주변 섬 지역에 대한 사회상과 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폈다. 섬 지역으로 천주교가 전파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관리와의 갈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1901년 발생한 지도교안 사건의 해결은 섬에서 신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었고, 1905년 일진회의 횡포에 속수무책이 된 상황은 신자가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다. 드예가 활동하던 시기는 지도군이 설치되어 지도군수가 섬을 관리하여 특수한 시기였다. 그 시기 섬에서 일어난 세부적인 사회상과 관련하여 토호세력, 일진회 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섬 문화에 대한 신부 자신의 인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섬 여성들이 육지에 비해 매우 많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모습, 권력에 복종하는 섬 사람들의 성향, 남성들의 교양 수준과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사는 모습 등에 대한 서양인의 시선을 살펴보았다. 또한, 섬 문화 다양성과 고립성에 대한 드예 신부의 인식도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드예 신부의 기록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새로운 신흥도시 목포에서 활동했던 종교인이 남긴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관리나 권력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일반 지역민에 대한 시선은 연민의 정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부적인 지역 정보와 함께 객관적인 시선이 담긴 기록이라는 면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는 1897년 목포 선교부의 주임신부로 임명되었고, 실제 1898년부터 1909년까지 약 10년을 목포에 거주하였다. 목포에 거주했던 다른 서양인보다 길게 머물렀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시대의 한 단면이 담겨있다. 또한, 그 기간은 한국근대사에서 대한제국기라는 특수시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 시기와 맞물려 있는 목포 개항기의 사회상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음을 확인했다. 특히 섬 문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더 다양한 시각에서 드예 신부가 남긴 기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상을 살피고, 서양인과의 문화교류, 한국문화에 대한 서양인의 인식을 연구하는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록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자료>

- 알베르 드예, 『드예 신부 보고서』(1896~1909).
木浦商業會議所, 『統計年報』, 1935.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 역, 『목포기독교사료집(1)』, 2016.
최성환 외,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 신안문화원, 2010.

<단행본>

- 고석규·박찬승 역, 『무안보첩』, 목포문화원, 2002
김상수 역, 『운양시선집』, 이회, 2004.
김양호, 『목포 기독교 이야기』, 세움북스, 2016.
김정섭 역, 『목포지』, 향토문화사, 1991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목포시, 『목포시사(인문편)』, 향토문화사, 1987.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5권, 2017.
목포양동교회, 『목포양동교회100년사』, 셋별, 1997.
신안군지편찬위원회, 『신안군지』 1~4권, 연기획 2017.
안영로, 『전라도가 고향이지요』, 쿰란출판사, 1998.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50년사』, 빛고을 출판사, 1990.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 주교 일기(1~4)』,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논문>

- 고석규, 「20세기 慈恩島의 시련과 화해」, 『도서문화』 21,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03.
김태웅, 「해항도시 목포의 외래종교의 유입과 토속화 과정 연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3,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5
도민우, 「목포 개항 후 천주교의 진출과 운영 양상」, 『목포의 근대시설과 사회상』, 목포대학교 사학과 학생학술 심포지엄, 2020.
박찬식, 「舊韓末 全羅道 智島地方의 教案」, 『국사관논총』 58, 국사편찬위원회, 1994.
박현욱, 「근대 해양도시의 종교문화 교류-근대목포의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16, 부산대학교 일본 연구소, 2015.
최성환,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최성환,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옥도 팔구포방비대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38,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11.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목 차〉

1. 머리말
 2. 서양인의 동학농민혁명 기록
 3. 조선의 비극
 4.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5. 뫼텔 주교 일기
 6. 조선, 1894년 여름
 7. 상투의 나라
 8.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왕조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역사를 넘어 세계사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서양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조선에 있던 많은 서양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상황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에 서양인들이 19세기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연구논문, 단행본 그리고 전시의 결과물인 도록 등이 발간되었다.¹⁾ 이에 서

1) 지금까지 서양인들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연구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

김희영,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농민봉기 - 이사벨라 버드 벅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를 중심으로 - 」, 『동학연구』 23호, 2007.

임희국, 「1890년대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내한 선교사들의 이해-동학농민운동과 단발령을 중심으로」, 『선교의 신학』 2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9.

김희영, 「어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소래마을의 동학농민전쟁」, 『동학연구』 28, 2010.

김희영,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인식, - 기독교의 영향과 관련하여 - 」, 『동학연구』 30, 2011

이영호,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 맥켄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 」, 『한국기독교와 역사』 34호, 2011.

비온티노 유리안(Juljan Biontino),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 습격자인가 개혁자인가」, 『동

양인들이 기록한 자료 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서양인의 동학농민혁명 기록

서양인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또는 직후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한 기록물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서양인의 동학농민혁명 기록현황

자료명	저자	직업	원문출판	번역자	출판사	번역출판
조선의 비극	프레드 아서 맥켄지	언론인	1907	김창수	을유문화사	1984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행가	1897	신복룡	집문당	1999
뫼텔주교 일기 I	뫼텔 주교	선교사	1895	한국교회사 연구소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6
조선, 1894년 여름	에른스트폰-바르텍	여행가	1894	정현규	책과 함께	2012
상투의 나라	릴리아스 호른 언더우드	의사	1905	신복룡	집문당	1999
전환기의 조선	제임스 스가스 게일	선교사	1909	신복룡	집문당	1999
은자의 나라, 한국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학자	1907	신복룡	집문당	1999
대한제국멸망사	호머 베잘렐 헐버트	선교사	1906	신복룡	집문당	1999
1900, 조선에 살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	선교사	1900	문무홍	푸른역사	2008
동학백년사	벤자민 워스	학자	1955	홍정식	서문문고	1975

학학보』 28호, 2013.

비온티노 유리안(Juljan Biontino),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 - 서양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 『동학학보』 40호, 2016.

비온티노 유리안(Juljan Biontino), 「서양이 본 동학의 옛날과 오늘 - 영어권, 독어권, 프랑스를 중심으로 - 」,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과제』, 도서출판 선인, 2016.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칼 영(Carl F. Young), 「동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양인의 시각」,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단행본>

유영렬·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문화사, 2004.

정성화·로버트 네프, 『서양인의 조선살이』, 푸른역사, 2008.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최성락,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 페이퍼로드, 2019.

<도록>

『파란 눈에 비친 100년 전의 한국 코리아 스케치』, 국립민속박물관, 2002.

『19세기말~20세기초 서양인이 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2017.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표 1〉에 제시된 자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자료들로 1894년 직후 상황을 직접 보거나 듣고 이를 정리한 것으로 출판 시기는 그 이후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록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많고 언론인, 여행가, 의사, 학자로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조선의 비극』은 캐나다 언론인인 프레드 아서 맥켄지의 저작이며,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은 영국인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저작이며, 『뫼텔주교일기』는 천주교 조선교구장인 뫼텔 주교의 저작이며, 『조선, 1894년 여름』은 오스트리아의 여행가인 에른스트 폰-바르텍의 저작이며, 『상투의 나라』는 미국 출신 의사인 릴리아스 호른 언더우드의 저작이다. 이 자료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임스 스가스 게일의 『전환기의 조선』,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와 『은자의 나라, 한국』, 호머 베잘렐 헐버트의 『대한제국멸망사』, 제이콥 로버트 무스의 『1900, 조선에 살다』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많지 않다. 벤자민 워스의 『동학백년사』는 그의 논문을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직접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하고 기록한 자료는 아니지만 동학, 동학농민혁명, 천도교에 이르는 과정과 흐름을 매우 상세하고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연관된 당시 조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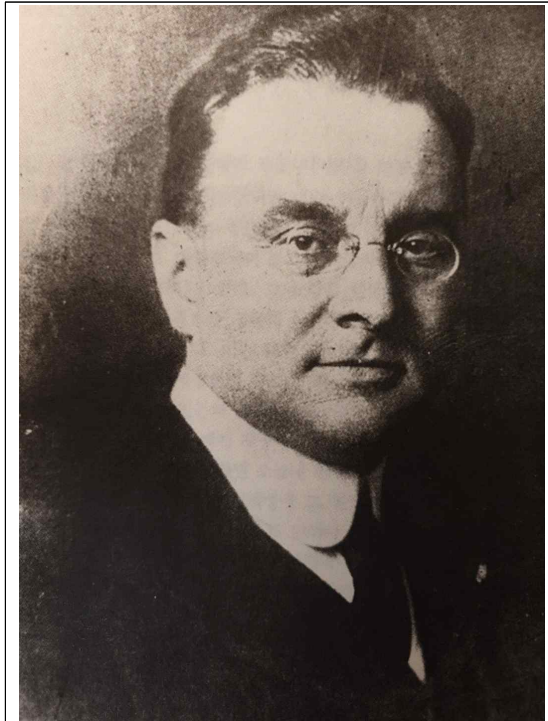
3. 『조선의 비극』

한말,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을 다룬 맥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 1869~1931)의 저서 『조선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 Hodder and Stoughton, London, 1908)은 저자가 39세의 한창 나이에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쓴 것으로서, 사서라기보다는 현장감이 생생한 르포 형식의 저술이다. 이 책은 전 11장, 31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호 개방 이후의 한국 정치의 변천을 서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외세의 등장,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을사조약, 통감정치,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강압정책을 설명하고, 그들의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의 산중에서 일본과 항쟁하고 있던 한국 의병의 활약상을 르포 형식으로 자

2)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 1930, 신복룡 역주, 『조선비망록』, 집문당, 1999.
 호레이스 뉴턴 알렌, 1908,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록』, 집문당, 1999.
 아놀드 새비지-랜도어와, 1895, 신복룡 역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프레드 아서 맥켄지, 1920, 신복룡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 집문당, 1999.
 엘리자베스 메컬리, 유영식 역, 『케이프 브레튼에서 소래까지』, 대한기독교서회, 2002.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 1903, 『코레야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막스 폰 브란트, 김중수 역,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 살림, 2008.
 루돌프 차벨, 이상희 역,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 여행 1904』, 살림, 2009.
 제노네 볼피첼리, 유영분 역,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 전쟁』, 살림, 2009.
 아서 저드슨 브라운, 류대영·지철미 역, 『극동의 지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세히 서술하였으며, 또한 일본 자본주의의 침투와 군국주의는 동양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군벌은 강하지만 아직 전능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여 군국주의의 불행한 장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드 아서 맥켄지(1869~1931)

맥켄지는 스코틀랜드 계 캐나다 인으로 1869년 3월 퀴백에서 태어나, 1931년 7월 온테리오 주 시데남시에서 63세의 생애를 마친, 신문 기자이며 저술가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신문 기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격동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준엄한 사필(史筆)을 휘두른 학자이기도 했다.³⁾

맥켄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때마침 동학당이 조선 남부에서 봉기해 매우 중대한 반란이 발발했다. 그들은 3만 명에 달하는 장정을 이끌고 수도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여 서울에서 100마일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건 주장은, 일본인은 물론 모든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것과 정부는 압제를 완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 반란이 중국과의 분쟁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획책하는 일본인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1894년 봄, 동학군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무기를 다시 입수하여 거리에서 거리를 침공하면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였다. 4월 말에는 약 800명의 정부군이 40명의 중국인 병사의 협력을 얻어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 중국 변리 공사 원장군은 반란군이 수도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게 직접 간섭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구실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조선 국왕에게 중국의 원조를 간청하여 군대 파견을 받아 그것으로써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조언하였다. 국왕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 말을 따랐으며, 6월 5일 중국군 1,500명이 서울에서 50마일 남쪽인 아산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중국군은 더 증강되어 결국 4,000명이라는 수에 다다랐다. 이 일에 대한 통고는 1885년 4월의 천진조약의 약정에 따라 일본 정부에 보내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조선을 속방으

3) 프레드 아서 맥켄지 저, 김창수 역, 『조선의 비극』, 을유문화사, 3~5쪽

로 한 것을 이유로 이 통고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군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후 1,200명에 달하는 일본군대가 서울 공사관에 800명, 서울과 제물포 사이에 200명, 그리고 제물포에 200명이 배치되었다. 일본군의 증파는 계속되어 3,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도착하였다.⁴⁾

맥켄지는 동학농민군의 봉기 목적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것과 조선정부의 폐정을 개혁하라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청일전쟁으로 발전하였음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문에서 “나는 이 저서에서 한 나라의 흥망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야기는 극히 짧은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껏해애 30년 남짓한 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은 영국의 에드워드 왕(1901~1910년 재위) 즉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근대 조선의 극히 짧고 비극적은 역사는 중대한 국제적 사건과 연결되어 왔다. 그것은 20세기의 중요한 세계적 분쟁 - 개화된 중국과 야심만만한 일본 간의 투쟁 - 의 서장을 열 구실이 되었으며, 곧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정의와 평화, 공정에 대하여 일본이 공언한 것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⁵⁾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을 거쳐 러일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정에 대해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

4) 프레드 아서 맥켄지 저, 김창수 역, 『조선의 비극』, 을유문화사, 43~44쪽

5) 프레드 아서 맥켄지 저, 김창수 역, 『조선의 비극』, 을유문화사, 7쪽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의 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31년 10월 15일 아버지인 에드워드 버드 목사와 어머니 도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영국 요크셔의 브로브리지이며, 어려서부터 독실한 빅토리아풍의 기교적 가정 교육을 받았다. 몸이 늘 허약하고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자 의사는 그에게 장기 선박 여행을 권유했다. 이사벨라는 1894년 1월에 요코하마를 경유하여 1894년 2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때 이미 그의 나이는 63세의 노령이었다. 그는 1897년까지 극동에 머물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장기 체류를 했다. 그는 뗏목을 타고 남한강을 답사하고, 노새를 타고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마적단의 습격을 무릅쓰고 시베리아의 한인촌을 탐사했으며, 뼈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봉천(奉天)을 여행했다. 한국의 이 시기는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청일전쟁과 갑오경장, 그리고 을미사변을 겪은 한말 풍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성 증언은 그 시대 연구의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될 수 있다.⁶⁾

이사벨라는 청일전쟁을 설명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남쪽에서 일어난 반란은 서울에 경종을 울렸다. 비록 작은 규모의 그러한 운동들이 이 반도에서 발생했으나 관리의 수탈에 격분한 농민들이 한두 지방에서 일어나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면서 공격적인 관리들을 몰아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왕이 새로운 관리를 보내면 그는 백성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번갈아 수탈하다가 쫓겨나면 농촌은 다시 안정되었다. 비록 더 중요한 문제의 등장으로 그 존재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동학 운동은 여느 민란보다는 중요한 운동이었으며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분도 뚜렷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초에서부터 그 지도자를 「모반자」라기 보다는 차라리 「무장한 개혁자」(armed reformer)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 당시 왕의 권위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동학은 왕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말로써 선언을 시작했고 매우 부드러운 용어로 자신의 비통함을 피력했다. 동학은 조선에서 관료들이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왕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잘못된 모든 소식과 보고들을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었다. 조정 대신과 방백 수령들은 나라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주력했으나 그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⁷⁾

이사벨라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파악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 매우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즉 동학농민혁명은 여느 민란보다도 중요한 운동이었으며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분도 뚜렷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모반자라기 보다는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동학농민군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관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왕의 귀와 눈을 멀게하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잘못된 모든 소식과 보고들을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시 조선의

6)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5~7쪽

7)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174쪽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무장포고문의 내용을 직접 보았으며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당시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무장포고문이다.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리다 [茂長縣謄上東學人布告文]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에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이 깊고 자애로우며 신명하시고 충예하시어서, 어질고 곧은 신하들이 잘 도와 다스리게 한다면, 곧 요순의 정치와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의 치세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랄 수 있다.

오늘날 신하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첨하는 말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언(妖言)’ 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비도(匪徒)’ 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들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안으로는 즐겨 생업을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보호하고 베풀어줄 대책이 없다. 학정은 날로 더 심해가고 원성은 서로 이어져,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윤리, 상하간의 분수가 드디어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펼쳐지지 않으면 국가는 곧 망한다” 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형세가 옛날보다 심한 것이 있다. 공경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처한 위협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을 꾀하고 있다.

관료를 선발하는 것을 돈을 벌어들이는 길로 여겨서 과거를 보는 시험장을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모두 만들었으며, 수많은 재물과 뇌물들은 국가의 창고에 바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사로이 차지하여 국가에는 부채가 쌓여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만과 사치와 음란과 안일에 빠져 두려워하거나 거리끼지 않으며, 전국을 짓밟고 으깨어 만민은 도탄에 빠져 있다. 수령방백의 탐학함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옳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협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 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살기를 맹세하였으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랄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 움직이지 말고 각기 본업을 편안히 여기며 태평세월을 함께 빌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⁸⁾

이상에서 이사벨라의 인식과 무장포고문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전봉준과 손화중의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위의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공경대부에서 방백수령까지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탐학하고 이 때문에 백성의 삶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봉기를 일으켰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민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임금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다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다. 따라서 당시 조선사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만

8) 『隨錄』, [茂長縣謄上東學人布告文]

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했다.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작성된 것이 무장포고문이므로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공경이하 수령방백들에게 돌렸던 것이다. 무장포고문의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동학농민군이 국왕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당시 농민군이 처한 상황과 조건속에서 농민군의 지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사벨라는 갑오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에서 육군과 해군에 의해 승리한 일본은 그 전쟁 이전부터 청국에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던 조선의 내정개혁을 단독으로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1894년 7월에 일본이 궁궐(경복궁)을 강점한 이후 조선의 국왕 고종은 단지 하나의 봉급 받는 로봇에 불과했으며, 한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민씨 일파는 정권에서 축출당했다.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패한 행정부에 대한 쇄신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894년 9월 17일, 청국과의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자신들의 세력을 침투시켜 침략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정부의 내정개혁을 자유롭게 단행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 조선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인 감시자들이 배치되었다. 군대는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을 받았고, 경찰은 잘 맞지도 않는 일본식 제복으로 치장되었거나 일본식 조직으로 편성되었고, 최고 입법기관의 성격을 지니면서 실권을 가진 군국기무처가 내정 개혁안을 심의·결정하여 실시케 하도록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고문 자격을 가진 이노우에 공사는 언제나 국왕을 알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통역사와 속기사를 대동하여 내각 회의에도 참석했다. 날이 갈수록 일본의 지배권은 새로운 관리의 임명, 규칙의 제정, 법령의 폐지, 제도의 개편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내가 조선을 떠날 때인 1895년 2월 12일까지 갑오경장의 일련의 개혁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 당시 관보는 그 짧은 기간의 유례없는 변화를 기묘하게 반영했다. 어느 날 포고령은 서울의 양반층에게 그들의 상징이자 애연의 커다란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3피트의 장죽을 폐지했고, 또 다른 날에는 서울 주변의 벌거숭이 민둥산을 치산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도록 명령하는 계몽법을 발표했다.⁹⁾

이사벨라는 여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였다.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내용은 갑오개혁(갑오경장)에 대한 서술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갑오경장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침략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정부의 내정개혁을 단행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커다란 과실 중의 하나는 개혁 실행의 기술상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1894년 7월에 일본이 궁궐을 강점하고 국왕을 비롯한 왕비, 대원군을 농락한 것은 비록 갑오개혁이 의심스러운 정치적 필요, 즉 조선 지배의 목적 하에 반봉건적인 근대화 개혁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실제로 주권국 조선에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치욕감을 느끼도록 만든 과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과거 갑신정변의 모반자들은 무리하게 요직에 앉힌 것은 하나의 중대한 실수였다. 그리고 장죽 담뱃대의 폐지, 왕실과 민간의 의복 개조, 광범위한 사회 관습의 폐지, 사소하고 성가신 제재 규정과 법규 등과 같은 사려 깊지 못한 조치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다.¹⁰⁾

이사벨라는 갑오경장이 성공하지 못하였음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국민들

9)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57~260쪽

10)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57~260쪽

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실시된 갑오경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녀는 파악했다. 한편 그녀는 일본이 조선 지배 목적 하에 반봉건적인 근대화 개혁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여 갑오경장이 동학농민군의 근대화 개혁의 결과물임도 파악하고 있었다.

동학혁명은 외세를 조선에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국왕에 대한 사군이충의 관계를 조심스레 벗어나 반봉건, 반민중, 반외세라는 별도의 주체적인 독립 자주국을 강하게 표방하여 일어났으나 1895년 1월 초에 진압되었다. 그리고 한 충직스러운 장수는 동학군 대장인 전봉준의 머리를 베어 잘라서 서울로 압송했다. 나는 서울의 서소문 밖의 가장 사람의 왕래가 잦은 북경로에 전봉준의 목 잘린 머리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 다른 사람의 목 잘린 머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머리는 마치 야영 솔걸이처럼 세 발 장대에 조잡한 장치로 허공에 높이 매달려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도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구 이상의 또 다른 목 잘린 머리는 세 발 장대에 걸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고, 개들은 몰래 숨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먼지투성이의 길 위에 버려져 있었는데, 몇몇 어린애들은 그것을 집어 들고 손으로 조각조각 찢어서 그들에 던지며 거무튀튀한 입으로 조롱하듯이 지껄이고 있었다. 이러한 야만적인 광경은 일주일 내내 계속 이어졌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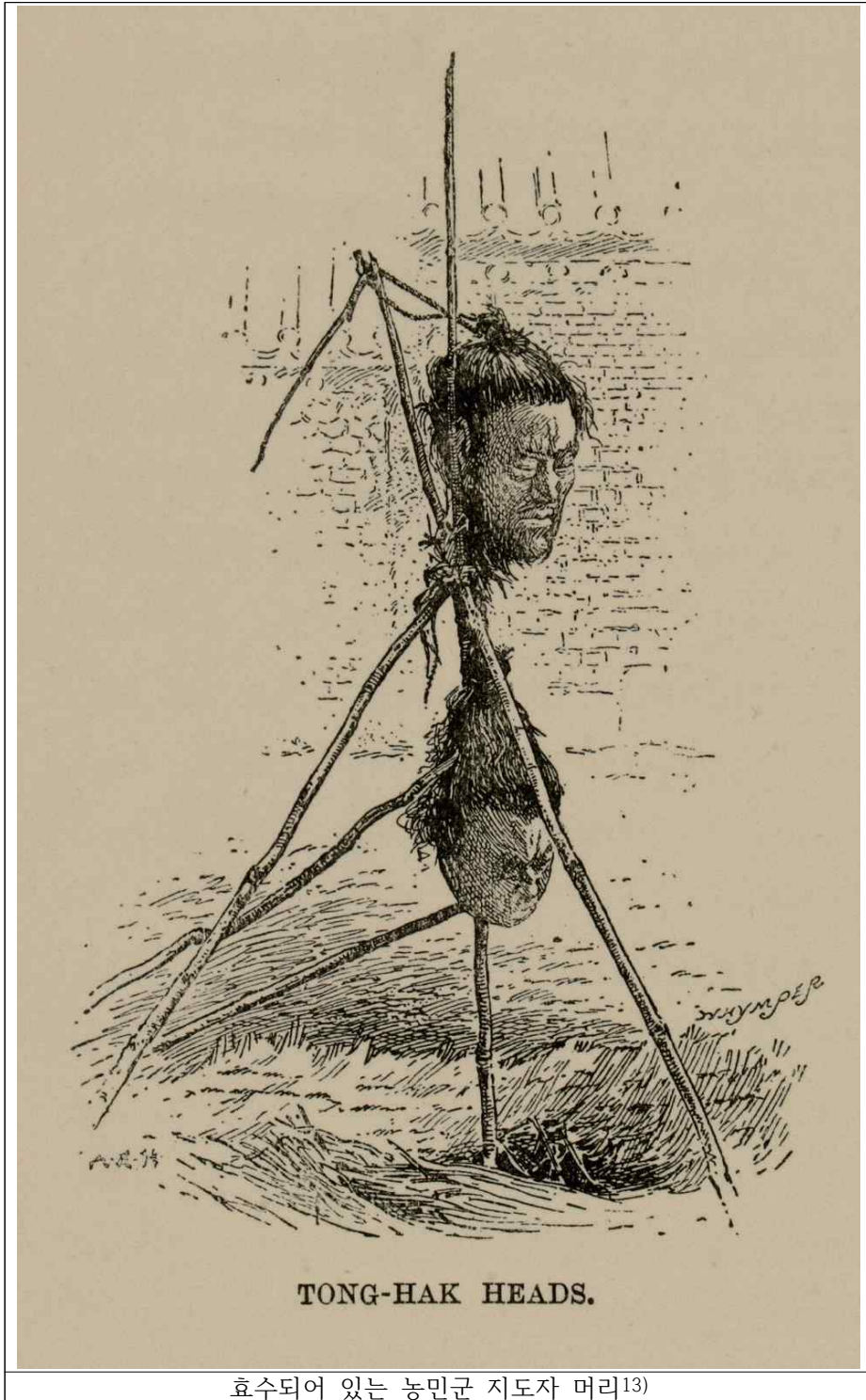
이사벨라는 동학농민혁명이 국왕에 대한 충성을 전제하지만, 반봉건, 반외세라는 별도의 주체적인 독립 자주국을 강하게 표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가장 정확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과 그 외의 지도자들을 호시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봉준을 목을 베어 저자 거리에 내걸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봉준은 1895년 3월 29일(음력, 양력으로는 4월 23일) 재판을 받고, 3월 30일(음력) 새벽 2시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사벨라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은 1895년 1월 초(양력 기준)이다. 따라서 이사벨라가 다른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착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 지도자 중 김개남이 체포되어 전라감사 이도재에 의해 전주에서 처형되어 그 머리가 서울로 압송되었고 그의 머리가 서소문 밖에 호시되었음이 확인된다. 김개남을 체포하기 위하여 1894년 11월 29일 황헌주 등 심영(강화진무영) 병사들이 전라감영에 도착하였고, 전라감사 이도재는 11월 30일 김개남이 있는 태인 종송리로 이들을 보내 12월 1일 김개남을 체포하였으며, 12월 2일 전주로 압송하였다. 12월 3일 전라감사 이도재는 김개남을 전주 서교장에서 참형시키고 그 머리를 꿰착에 넣어 양호도순무영으로 보냈다. 양호도순무영이 김개남의 머리를 받은 것은 12월 12일이었다. 순무영은 경기감사에게 김개남, 성재식, 안교선, 최재호를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3일 동안 매달았다가 김개남의 머리는 양호지방에 조리 돌리게 하고 성재식의 머리는 해서지방에 조리 돌리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12월 24일(음력, 양력 1895년 1월 19일) 실행되었다.¹²⁾ 이사벨라가 본 농민군 지도자 머리는 이때 처형되어 효수된 농민군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동학농민혁명 기간을 전후해서 일본과 조선 및 시베리아에 머물면서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민중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11)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57~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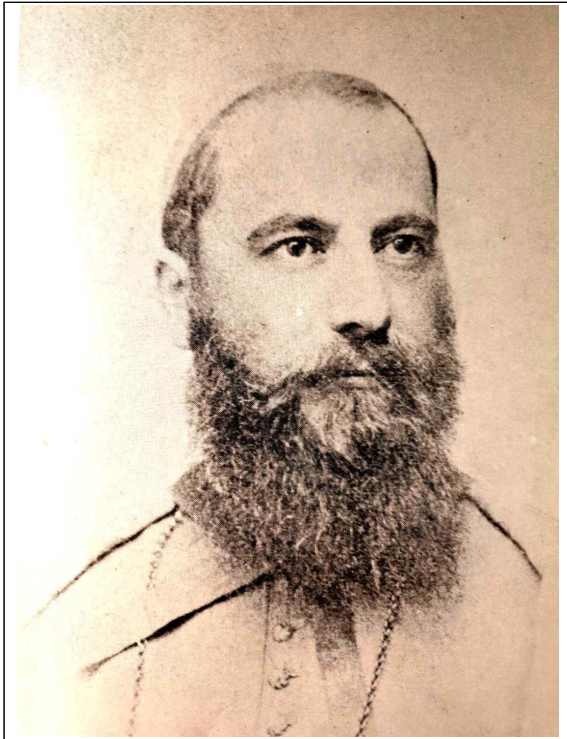
12) 『갑오군정실기』, 12월 24일조

된 이유와 원인을 매우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의 관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재의 관계와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제3 차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선과 이웃 나라들』, 집문당

5. 『뫼텔 주교 일기』



천주교 조선교구장 뫼텔 주교(1854~1933)

『뫼텔주교 일기』는 천주교 제8대 조선교구장이었던 뫼텔 주교(1854~1933)가 자신이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소식에 접한 날(1890.8.4.)부터 그가 사망하기 직전인(1933.1.23. 사망) 1932년 12월 31일까지 42년간 거의 매일 같이 써놓은 일기이다. 뫼텔주교가 42년간 한국 천주교회를 맡았고(1891년 2월 ~1911년 3월까지)는 조선교구장으로, 대구교구가 분리된 1911년 4월 초 ~1933년 1월까지)는 서울교구장으로) 이 이간 동안에 한국 천주교회가 정부로부터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공인받아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사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의 일기는 사료(史料)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인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한국에서 살았던 뫼텔주교는 한국의 정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민비시해사건, 3.1운동 등등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뫼텔 주교의 일기 1책은 1890년 8월 4일부터 1895년 12월 31¹⁴⁾일까지의 일기를 수록하고 있다.¹⁵⁾ 뫼텔 주교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이에 대해 시기와 주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4) 『뫼텔주교일기』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15)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천주교 명동교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 1892년 조선 천주교 교우수와 동학 포교 현황

- 1월 14일 : 전라도에서는 고산현감이 그의 고을 각 마을에 보낸 동학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그 부근에 동학이 대단히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이다.¹⁶⁾
- 1월 17일 : 일본에서 온 파발꾼은 조조신부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는 계량(전남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에서 악의에 찬 벽보를 한 장 압수하였다. 그것은 고산에서 압수된 사학에 대한 벽보를 본떠 만든 것인 듯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학이란 일반적으로 서양인을, 특히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유생들이 천주교에 대한 비방문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온갖 종류의 적들이 모든 움직임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모양이다.¹⁷⁾
- 9월 27~28일 : 현재 조선의 각 도별 교우수는 아래와 같다. 경기도 5,521명, 강원도 2,380명, 전라도 4,659명, 황해도 611명, 충청도 4,186명, 평안도 298명, 경상도 2,886명, 함경도 289명, 총 교우수 20, 840명¹⁸⁾
- 12월 18일 : 오전 11시에 전주에서 우도 신부가 발송한 전보가 1시 반에 도착. “서울 외국인들 조심하시오. 싸움시오” 이것이 정말 있을 일인지 나에게 물어보면서 보내온 전보다.¹⁹⁾

뤼텔 주교의 일기에 따르면 1892년 9월 조선의 천주교 신자는 총 20, 840명이며 도별로는 경기도 5,521명, 강원도 2,380명, 전라도 4,659명, 황해도 611명, 충청도 4,186명, 평안도 298명, 경상도 2,886명, 함경도 28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뫼텔 주교는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조선 전역의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을 것이다.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들과 뫼텔 주교는 전보 또는 파발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소식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신자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라도였다. 특히 1892년경부터는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도로부터 올라오는 보고 또는 전보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1892년을 살펴보면 처음 등장하는 동학 관련 내용은 고산현감이 각 마을에 동학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때 즉 1892년 초에 고산지역에 동학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천주교의 경우, 동학이 서학을 반대했으며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선교 또는 포교의 측면에서 경쟁자였기 때문에 동학 교세의 확장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1월 17일 일기와 12월 18일 일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16) 『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0쪽~31쪽

17) 『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1쪽~32쪽

18) 『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83쪽

19) 『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96쪽

□ 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서양세력 반대

- 1월 6일 : 수원에마저도 동학도들이 있으며, 그중 몇 명은 대집회가 열릴 예정지인 남쪽지방을 향해 최근에 길을 떠났다는 소문이다.²⁰⁾
- 3월 24일 : 알릭스 신부의 편지를 검토, 과거시험 때를 기해 동학 교도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온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교도들에게 못된 일에 가담하여 서울에서 외국인들을 쫓아내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밀거사의 날짜는 음력 2월 8일, 그러니까 내일인 3월 25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²¹⁾
- 4월 1일 : 저녁 9시에 프랑댕 씨가 편지를 보내오다. 프로테스탄트 목사 집의 벽에 동학 교도들이 벽보를 붙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대한 내용은 없는지? 물론 전혀 없다. 사실 얼마 전부터 동학 교도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거리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은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서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청원서 안에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도 한다. 왕은 그 상소를 받지 않으려 하였다고 하며, 심지어는 그 주모자들이 투옥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들이 과연 벽보 때문에 복수를 당하는 것일까?²²⁾
- 4월 4일 : 아침에 조선 사람들이 원래의 벽보를 가져왔다. 그러더니 저녁에는 또 다른 선비 그룹에게서 나온 동학을 힐난하는 내용의 다른 벽보의 원본을 가져오다.²³⁾
- 5월 5일 : 서울 장안에 또 다시 동학에 대한 말들이 수없이 나돌고 있다. 관변측 소문 중에는 전라도, 충청도 두 감사가 이 교도들임을 자처하는 의심할 나위 없이 특히 반역적인 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소홀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보은 속리산에 모여 야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이달 음력 25일에 거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궐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왕세자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팔순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다.²⁴⁾
- 5월 13일 : 동학도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반면에 쌀값이 폭등하여 지방에서 피란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왕은 공격이 있을 경우에 피신처로 북한(산성)을 지정하여 준비시키고 있다고들 한다. 알릭스 신부는 동학도들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²⁵⁾

동학교도들은 1892년 11월(음) 전라도 삼례에 모여 교조 최제우의 신원과 동학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월 16일자 일기는 이러한 삼례집회에 참여한 동학도들이 참여한 정황을 보여준다. 3월 24일, 4월 1일, 4월 4일자 일기 내용은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광화문 복합 상소와 서양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과거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뫼텔 주교는 특히 동학도들이 서양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5월 5일자 일기 내용은 1893년 3월(음)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2만여의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 속리산에서 척왜양의 기치를 걸고 집회를 연 보은 집회와 관련된 것이다. 뫼텔 주교가 볼 때 당시 조선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배세력이 매우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뫼텔 주교와 천주교 인들은 동학도의

20)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02쪽

21)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20쪽

22)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21쪽

23)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22쪽

24)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30쪽~131쪽

25)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133쪽

움직임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894년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 5월 6일 : 또 다시 동학도들이 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전라도 감사가 전보를 보내 왔다. 수많은 동학도들이 집결하여 벽보를 붙이고, 양반과 부자들을 습격하고 있는데, 감사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서 병사들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였다. 따라서 수 백명의 병사들이 배편으로 전라도 감사에게 파견되었다. 동학도들은 특히 태인에서 많이 숙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²⁶⁾
- 5월 9일 : 동학도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되는 병사 800명이 어젠가 그저께에 한양호, 창릉호 등 2척의 증기선에 나눠 타고 군창을 향해 제물포를 출발했다. 역시 병사들을 때운 청국 군함 한 척이 두 증기선과 함께 떠났다. 소문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도 1,200명의 병사가 파견되었다고 한다.²⁷⁾
- 5월 19일 : 전라도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른바 동학도들이 봉기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고부지방에서 시작된 민중의 봉기가 그렇다. 그 곳 주민들은 소금에 대한 세금의 폐지와 장터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²⁸⁾
- 5월 26일 : 전라도의 선교사들로부터는 아직 소식이 없다. 그렇지만 나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같다. 전주 감사는 파직되고, 그 후임으로 통리아문 독관이었던 김이 임명되었다. 고부군수는 목에 칼을 차고 유배길을 떠났다. 5월 23일, 군창에 병사 400명과 군수품, 대포 등등이 또 보내졌는데, ……²⁹⁾
- 6월 3일 : 어제부터 나돌기 시작한 소문이 오늘 확실해지다. 즉 폭도들이 전주에 들어갔으며, 그들은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전신주를 부서 버렸으며 전화기까지 철거하였다는 소문이다. 파직된 전임 감사는 구금상태에 있으며, 왕은 금부에 그를 포박한 채 서울로 데려와 재판받을게 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는 폭동이 일어나자 도망했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한 교우의 말에 의하면 6개 고을 군수가 출행량을 놓았다고 한다. 그 중에 고부, 태인, 고창 군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교우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³⁰⁾
- 6월 4일 : 왕이 전라도의 사건들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궐에서는 기생들의 춤과 노래로 매일 밤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곳 서울에서 무슨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어쩔 것인지! 백성들은 고위 관리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³¹⁾

1894년 5월과 6월은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시작하여 전주성을 점령하는 과정으로 뫼텔 주교는 당시 상황을 전라도에 파견된 선교사와 전보와 파발을 통해 파악하고 대처하였다. 특히 농민군의 동태, 토벌대의 규모와 이동상황, 조선 관리들의 행태,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다.

26)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29쪽

27)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0쪽

28)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2쪽

29)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3쪽~234쪽

30)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4쪽

31)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5쪽

□ 1894년 천주교인의 대응과 농민군 인식

- 6월 6일 : 오늘 아침에 빌모 신부가 고산에서 6월 1일에 쓴 편지가 당도하다. 폭도들이 지난 31일 아침에 전주를 점령하였다는 소식이다. 그들은 성 밖의 지역에 불을 놓고 남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한다. 보두네 신부는 제 때에 4개의 짐꾸러미를 들고 도망나올 수 있었다고. 그의 집은 아마도 불에 타버렸을 것이라고 한다. 빌모 신부도 거처를 버리고 남몰래 다른 교우들의 집으로 가서 정착하였단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조 신부는 위협에 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 르메르 신부가 편지를 보내오다. 그의 집에서 1km 쯤 떨어진 고개에도 적들이 진을 치고 여행자들을 강탈하였다는 내용이다. 그의 마을의 교우 한 사람이 500냥과 옷을 잃어버렸다고. 그는 그것도 동학도와 관계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지방 어른들도 폭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동학도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신부는 그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내게 편지를 쓰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적고 있다.³²⁾
- 6월 9일 : 저녁에 전라도에서 파발꾼, 세 신부의 편지를 가지고 오다. 전주가 함락될 당시, 감사의 영에 따라 교외에 불이 놓아졌으며 곧 이어서 감사는 군사권 또는 민사권을 가진 군수들과 도망을 쳐서,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고. 백성들은 달아났으나, 곧 동학도와 합류하여 되돌아왔다. 31일에 전주에 들어온 폭도들은 수천 명에 달했다 한다. 1일에는 홍재희 또는 계훈 장군이 서울의 군사들을 이끌고 부(府) 주의의 고지대에 당도하여 부의 일부가 포위되고, 부내에는 3발의 대포 포격이 가해졌다. 빠져나가던 동학도들 1,000명 중 일부가 죽었으며, 도망하던 자들은 다시 부내로 들어왔고 산야에 흩어져 있던 다른 자들은 도망하던 전주 사람들의 의해 몰살당하였다 한다. 그 소식을 들은 동학도들은 부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복수하고 있다고. 그들은 전주부를 지키며 거기에 가까이 오는 자들을 죽이고 있다 한다. 6월 1일 저녁에 버런 보두네 신부의 집에 들어가려던 신학생 김도마는 턱에 총을 한 발 맞았다고. 보두네 신부는 돈과 옷 그리고 제의들을 감춰 두고 전주에서 20리 떨어진 마재(전북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로 피신하였다. 조조신부는 성사집행을 조금 하였는데, 배재(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의 높은 산악지대여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 빌모 신부는 이틀간 종적을 감추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교우들이고 외교인들이고 문란하기 이를 데 없으며, 농사는 버려진 채라 한다. 얼마 전에는 그의 본당 예비자 7명과 신임 교우 1명이 석유불에 머리털을 그을리고 동학도들에게 머리털을 잘랐다고.³³⁾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 천주교 신부들은 전주에서 몸을 숨겼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동학농민군에 대해 우호적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로 이해했다고 보여진다. 뫼텔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부는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한편 천주교 신부들은 동학농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학농민군이 약탈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천주교 신부들은 전주 인근의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이와 함께 당시 전라도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들에 안전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32)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5쪽

33)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37쪽~238쪽

□ 1894년 천주교인을 위협하는 농민군과 신부의 살해

- 7월 2일 : 흩어진 동학도들은 2~300명씩 무리를 지어 부자들을 노략질하고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청국군 선발대는 6월 26일에 전주에 도착하였으며, 그 뒤로 더 대규모의 병사 대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다.³⁴⁾
- 7월 6일 : 저녁 때 전주에서 전보가 도착. “신자들에게 위협이 임박해 있음. 죠조·보두네” 어디서 위협이 오는 것일까? 분명히 수고스럽게 전주를 빠져 나가지 않고 노략질을 시작한 동학의 무리들로부터 오는 것일 게다.³⁵⁾
- 7월 8일 : 정오에 보두네 신부로부터 답신 전보 “신자들은 약탈당하고 매 맞고 죽을 위협에 처함. 죠조 신부 근처의 중국인 1만명 적들이 그대로 떠남” 이것야말로 갈수록 불분명해진다. 적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어제 같아서는 청국인들이었는데, 오늘 보니 그들은 떠나 버렸다 한다.³⁶⁾
- 7월 9일 : 저녁에 세 신부의 편지를 지닌 전라도의 파발꾼 도착. 각자 7월 3일, 4일, 6일자 편지이다. 고창, 정읍, 순창, 장성 등지에서 아줄 별나게 교우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동학도들이다. 보두네, 죠조 신부들은 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감사는 그들의 편지를 받아들이지조차 않았다고 한다.³⁷⁾
- 7월 19일 : 전라도에서 파발꾼. 보두네 신부와 죠조 신부의 편지를 가지고 오다. 동학도들의 수가 대단히 많다고 한다. 50,000명이라는 말들도 있고 심지어는 100,000명이라는 말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 숫자는 과장된 것이다. 교우들도 외교인들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파발꾼이 도착한 조금 뒤에 죠조 신부로부터 전보. “마침내 감사의 보호, 신자들의 살육과 방화가 시작됨. 회답 요망. 죠조”³⁸⁾
- 8월 6일 : 저녁에 대구에서 8월 1일자 우편물 도착. 7월 31일, 보두네 신부가 전주에서 로베르 신부에게 전보를 쳤다. “죠조가 청국인들에게 피살되었음. 서울에 알리시오. 보두네”³⁹⁾
- 8월 28일 : 저녁 때 빌모 신부의 복사인 바오로와 다른 3명의 전라도 교우가 도착. 그들은 두 신부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10일 저녁 앵콩스탕 호에서 상륙시킨 파발꾼은 마량에서 동학도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틀만에 탈출에 성공하여 14일에는 보두네 신부의 빌모 신부에게로 갈 수 있었다고. 동학도들에게 포위된 채 산 속에 있던 두 신부는 포위망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르페브르 씨가 외아문독판에게 전하고 독판이 다시 전주 감사에게 내린 명령, 즉 위협에 처한 선교사들에게 호위대를 조직해 주고 통행증을 발부하라는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그러한 영을 받은 집사는 보두네 신부의 집에 있던 교우들에게 이를 알렸고, 교우들은 19일에 전주에 온 신부들에게 이를 전했다. 전주에서 신부들은 다시 수단으로 갈아 입고 가마편으로 조그만 항구, 함열 성당진을 향해 떠났다. 집사 한 명이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과 함께 관자에 대한 답신을 지닌 서울의 특사와 선교사들을 서울까지 인도할 성당의 책임자, 그리고 동학도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기로 예정된 동학도의 우두머리(두명)이 출발하였다.⁴⁰⁾
- 9월 17일~20일 : 코스트 신부가 전라도 및 충청도의 신부들과 함께 르페브르 씨를 찾아가다. 죠조 신부의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동학도들로부터 강탈당하고 학대받는 남부지방 교우들의 불행한 운명에 조선 당국자들이 관심을 갖게 해

34)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44쪽

35)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44쪽

36)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45쪽

37)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46쪽

38)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50쪽

39)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61쪽

40)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68쪽~269쪽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⁴¹⁾

1894년 7월에서 9월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전라도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이 주체적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천주교 세력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뮌텔 주교의 일기에서 이러한 상황이 확인된다. 이때는 천주교 세력이 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동학농민군에 의해 천주교세력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천주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협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뮌텔 주교가 파악한 당시 상황은 동학도들이 약탈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뮌텔 주교와 천주교 세력은 자신들은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에 연결하여 천주교 세력을 탄압하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민군 세력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부가 살해되기도 한다. 당시 천주교세력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동학도들을 폭도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뮌텔주교의 일기에서 이러한 인식은 많은 지점에서 등장하고 있다.

□ 1894년 대원군과 농민군의 관계

- 9월 24일 : 코스트 신부가 르페브르 씨를 보러 가다. 르페브르 씨는 **대원군이 황폐한 지방에 평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포고문을 보내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가 우려하는 대로 그러한 권고만으로 불충분하다면 지방에 군사를 보내겠다는 통보가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군사를 파견하려면 일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조선인들에게서 징발해 간 군대를 조선인들에게 되돌려 보내야만 한다.⁴²⁾
- 10월 5일 : 르페브르 씨, 케르베르그, 체스토코프 씨 들을 방문하다. **대원군이 폭동이 일어난 지방에 보낸 포고문**을 황해도에도 보내게 할 수 없느냐고 르페브르 씨에게 물어 보다. 전라도에서 바다를 통해 송화로 건너온 동학도들의 선동으로 황해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⁴³⁾
- 10월 15일 : 양씨라는 평안도 출신의 한 신입 교우가 동학도들에게서 얻은 동행허가증 및 통행증을 가지고 남부 지방에서 오늘 당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동학도들의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들과 보름 동안 관계를 맺어 왔으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그들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노라고 얘기한다. 그가 온 목적은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또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것이란다. 그 어느 모로 보나 이 교우의 태도가 수상쩍고 또 진실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 그를 보기를 거절하고 그가 그 비밀들을 안고 돌아가게 내버려 두었다. 동학도들에 다녀온 첩자로 자처하는 이 사람은 동학도들을 위해 우리를 또 염탐하러 올 만한 자는 못 되는 것 같다. **그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것은 대원군이 폭도들과 공모했다는 얘기다. 동학도들에게 자중을 요구하기 위한 공식 문서를 보내고 또 그들을 뒤쫓으라고 병사를 파견하면서, 그는 비밀리에 그들에게 봉기하여 대거 서울로 올라와 일본인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음력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서 서로 다른 다섯 갈래의 길로 올라와 수적으로 일본인들을 압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이러한 정보가 최근에 강원도의 한 교우를 통

41) 『뮌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76쪽

42) 『뮌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77쪽

43) 『뮌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79쪽

해서, 다시 말하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다.
44)

- 10월 19일 : 17일 수요일에 동작리에서 200명의 일본군들이 중대를 이루어 한강을 건너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동학도들을 진압하려 가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철사와 여러 가지 전신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곳의 전신줄을 수리하고 살피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 저녁에 용산에서 또 다시 소식이 들려온다. 1,000명의 일본인들이 남부 지방의 폭도들을 향해 제물포를 출발하였다고 한다.⁴⁵⁾
- 10월 26일 : 조선 병사들(4~500명)이 오늘 동학도들을 무찌르러 떠났다. 나돌고 있는 새로운 얘기들이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폭도들에게 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전투를 중지하도록 유도하라는 임무를 띠고 파견된 대원군의 특사가 남원에서 폭도들에게 체포되어 죽음까지 당했다고 한다. 조선 정부가 동학도들에게 그 유명한 비밀 명령을 내렸다고 할 때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폭도들이 유도한 갖가지 문서들의 원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그 비밀 명령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한다. 46)
- 11월 27일 : 며칠 전 대원군이 일본인들로 인해 하야하고 말았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아니지만 그의 자리에 김홍집이란 자가 임명되었다. 앞서 시행된 개혁 가운데에 좌우포도청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경찰관서가 이 두 포도청을 대신하게 되었다. 또 공조와 호조도 폐지되었다고 한다.⁴⁷⁾
- 12월 31일 : 벌써부터 사건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보다 밝은 희망을 품게 된다. 모든 고을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현재 전라도에서는 맹렬하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관보는 거의 매일 동학도들의 우두머리 몇 명을 생포했다든지 사형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방의 신부들도 외교인 주민들이 그들에게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동정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동학도들이 만연시킨 공포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서양 사람을 보아도 마음을 놓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이 북음으로 향한 마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다 넓게 열어 주시기를 !⁴⁸⁾

1894년 10월에서 12월은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일으킨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천주교세력은 안정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뫼텔 주교는 대원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기에 따르면 대원군이 효유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실제로 봉기를 유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뫼텔 주교 입장에서는 당시 조선의 정세에 있어서 대원군의 역할이 매우 비중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대원군이 쇄국정책과 함께 천주교의 직접적인 박해의 주체이므로 만약 그가 정권을 장악할 경우 천주교 세력이 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이나 일본과 연합하게 될 경우, 곤란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뫼텔주교와 천주교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동학도를 폭도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한 일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 진압 상황과 일본군의 규모의 이동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44)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82쪽

45)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85쪽

46)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86쪽~287쪽

47)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92쪽

48)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97쪽

□ 1895년 농민군의 처형

- 1월 3일 : 소위 새 왕국의 왕 김개남이 강화 군사들에 의해 태인에서 붙잡혔다.⁴⁹⁾
- 1월 7일 : 동학도들의 우두머리 전 녹두가 생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다. ⁵⁰⁾
- 1월 12일 : 전라도의 교우들이 저녁 때 두 신부를 찾으러 오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라도 지방의 상황이 충청도의 상황만큼 좋은 것 같지 않다. 신임 감사가 동학도들에 대해 너무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이다. 주민들은 병사들이 떠날 경우, 또 다시 봉기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또 불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종파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이다. ⁵¹⁾
- 2월 20일 : 마침내 동학도의 우두머리 전녹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의 몸으로 서울에 당도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사형에 처해질 것 같다는 소문이다. ⁵²⁾
- 4월 20일 : 홍계훈이 얼마 전에 방문을 하겠다며 내게 명함을 보내 왔었다. 그가 극비밀리에 안내자로 교우 한 사람만을 데리고 저녁 8시 반에 찾아왔다. 그는 조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오늘의 사건들에 대한 얘기가 오가다, 그는 이준용이 예의 음모를 자백했다고 솔직히 얘기해 준다. 대원군이 그 음모의 핵심인물이었으며, 그는 처음부터, 말하자면 청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의 어떤 개입이 있기 전부터 동학도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 홍계훈은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관계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명확한 사람인 것 같다. 그의 방문은 왕과 왕비의 지시에 의한 것인 듯하다. ⁵³⁾
- 4월 25일 : 어제, 전녹두(전봉준)와 다른 4명의 동학도 우두머리들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후 왕이 사형선고를 인준함으로써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⁵⁴⁾
- 10월 9일 :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필시 대원군의 복수극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 우리는 그 제1막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 대원군은 지금의 왕세자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자로 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마도 그의 손자 이준용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이런 의도에서 여론의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지방에 밀사들을 파견했다고 한다. 저녁 무렵, 시찰관을 지낸 한 양반이 나에게 피신처를 부탁한다. 직책으로 보아 그는 대원군의 음모 및 동학도들과의 결탁 사실을 조선 정부에 알려야 했을 사람으로 대원군의 추적을 받고 있다.⁵⁵⁾

1895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농민군들은 진압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처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체포와 재판 및 처형, 김개남의 체포와 처형, 그리고 농민군 진압책임자인 홍계훈과의 관계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원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을미사변의 책임이 대원군에게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천주교 제8대 조선 교구장인 뫼텔주교는 당시 조선의 정세와 지역의 상황 그리고 천주교인들의 관한 내용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다른 자료에

49)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98쪽

50)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99쪽

51)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299쪽

52)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06쪽

53)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15쪽

54)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18쪽

55) 『뫼텔주교일기 1(1890~1895)』, 앞의 책, 378쪽

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민중봉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뮌헨일기에는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1892년~1893년에는 동학도의 포교상황과 교조 신원운동의 움직임 그리고 서울에 등장한 서양을 배척하는 궤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서학으로서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동학도들이 서양세력을 배척하는 움직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1894년에는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에는 농민군의 천주교인에 대한 공격과 천주교인들의 대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천주교 신부가 살해됨에 따라 더욱 더 부정적으로 농민군을 바라보고 있으며 천주교인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이기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뮌헨일기에 서술된 내용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대원군과 농민군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천주교가 파악하기에 대원군이 겉으로 농민군을 효유하면서 몰래 농민군에게 밀서를 보내 봉기를 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매우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천주교 측에서 대원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대원군이 과거 천주교를 박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천주교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원군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대원군이 농민군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원군이 더 이상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원군은 갑오개혁 과정에서 등장하였지만 중간에 실각하게 되는데, 뮌헨일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6.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1851~1918)은 1894년 여름 조선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겼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등 여러나라를 여행하다가 1894년 부산항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제물포, 서울 등을 여행하면서 조선의 왕과 왕실, 정치 사회적 상황, 교육제도, 장례의식, 조선 여성들의 삶 등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경험하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90년대까지 관직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팔렸다. 이 기간이 끝나면 지역의 모든 관리는 관찰사에 의해 새로운 관리로 대체되었다. 물러나는 관리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자리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강력한 귀족 가문인 민씨 일가가 속해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파가 임기를 1년으로 줄이자, 관리들은 과거에 2~3년간 해먹은 것을 1년 동안에 마쳐야 했다. 바로 이러한 조치가 지난 해인 1894년 초에 일어났던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때 전 지역이 정부에 대항해 일어났고 관리를 쫓아내거나 죽였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수도로 점점 가까이 밀고 들어오자, 정권을 쥐고 있는 당파는 태도를 바꿔야만 했다. 이들은 역도를 진압하기 위해 중국에 호소했고, 다른 한편

으른 억압받는 백성 편에 서느 척하며 탐관오리 몇몇을 태형에 처하고 추방하는 벌을 내렸다. …… 망국의 책임은 이미 얘기했듯이 귀족들에게 있다. 조선 귀족에게는 고유의 칭호가 없다. 귀족은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던 최고 지휘관과 정치가의 자손들이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수많은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 수백 년간의 세습으로 인해 백성들은 귀족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까지는 결코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한다.⁵⁶⁾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1851~1918)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은 동학농민혁명이 관리들의 수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민씨 정권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더군다나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청국을 끌어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 탐관오리에게 태형에 처하거나 귀향을 보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간파하고 있다. 그는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귀족들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짚고 있다.

56)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저, 1895, 정현규 역, 『조선, 1894년 여름』, 2012, 책과 함께

7. 『상투의 나라』

『상투의 나라』의 저자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1851년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태어났으며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지금의 노스 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을 졸업했다. 졸업과 함께 그는 1888년 미국 장로교 선교국에 의해 최초의 의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민비의 총애를 받아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어의로서 활약하면서 궁중의 많은 이면사를 목격할 수 있었다. 1889년에 릴리아스는 이미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던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1859~1916)와 결혼 했으며 신혼여행을 관서지방으로 다녀왔다.⁵⁷⁾ 그녀는 15년 동안의 조선에서의 경험했던 것을 『상투의 나라』로 정리하였다. 그녀는 『東學』이라는 타이틀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릴리아스 호른 언더우드(1851~1921)

東學

동학집단은 청일전쟁의 시작에 분명한 작용을 했다. 그들의 명분은 문자 그대로 동방의 신조를 의미했으며, 그들의 목표는 간단히 말해서 동방인을 위한 동방 또는 조선인을 위한 조선이었다. 그들은 모든 서구인들, 서구적 사상, 개혁과 변화를 물리치고 옛날의 법과 관습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요구와 뜻을 선언했다. 이 집단의 갑작스러운 조직과 놀라운 정도의 인기는 물론 많은 부패한 관리들이 포획한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관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강요하여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불안감과 심한 불평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57) 릴리아스 언더우드 저,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7쪽~8쪽

동학교도들은 청국에서의 의화단 사건 때의 사람들과 많은 면에서 흡사했으며 자신들이 죽음에서 면제되었고 총알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을 중지시킬 힘이 없었다. 그들은 모든 작은 신위를 숭배하기를 그만두고 오직 하늘의 주신만을 경외했다. 그들은 각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열에 합세할 것과 상하 귀천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그들이 지지를 위해 기부하라고 강요했다. 다른 많은 운동처럼 동학은 관리의 탐학을 없애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훌륭한 애국적인 결심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전국에서 커다란 해악과 폭력으로 변했다. 각지의 있는 그 무리 중에는 악질적이고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침착하지 못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변화를 약속하는 어떠한 것에도 스스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동학교도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합세했기 때문에 이름이 동학 교도이지 강도와 다를 것이 없었다. 조선 정부는 그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청국의 원조를 요청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명목상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악용했다. 일본인들은 서로 간에 개전의 이유가 되는 사태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어느 쪽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상호 협정이 청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즉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서 왕궁을 포위하고, 청국인들을 신도 제물포로 오는 수송선을 침몰시켰다. 58)

릴리아스 언더우드도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하였다. 그녀는 동학이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고 조선을 위한 조선을 추구했다고 파악하였다. 동학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관리들의 포악한 행위 때문이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학이 처음에는 관리의 탐학을 없애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훌륭한 애국적인 결심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전국에서 커다란 해악과 폭력으로 변했다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즉 동학교도들을 이름이 동학교도이지 강도와 다를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조선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녀는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조선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58) 릴리아스 언더우드 저,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161쪽~163쪽

8. 맺음말

이상에서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먼저 기록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구체적인 서술내용이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양인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레드 아서 맥켄지는 동학농민군의 봉기 목적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것과 조선정부의 폐정을 개혁하라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청일전쟁으로 발전하였음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사베라 버드 비숍은 동학농민혁명 기간을 전후해서 일본과 조선 및 시베리아에 머물면서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민중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의 관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관계와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제3차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제8대 조선 교구장인 뫼텔 주교는 당시 조선의 정세와 지역의 상황 그리고 천주교인들의 관한 내용을 매일 일기로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민중봉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뫼텔일기에는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1892년~1893년에는 동학도의 포교상황과 교조신원운동의 움직임 그리고 서울에 등장한 서양을 배척하는 궤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서학으로서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동학도들이 서양세력을 배척하는 움직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1894년에는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에는 농민군의 천주교인에 대한 공격과 천주교인들의 대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기에 천주교 신부가 살해됨에 따라 더욱 더 부정적으로 농민군을 바라보고 있으며 천주교인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이기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뫼텔일기에 서술된 내용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대원군과 농민군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천주교가 파악하기에 대원군이 겉으로 농민군을 효유하면서 몰래 농민군에게 밀서를 보내 봉기를 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매우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천주교 측에서 대원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대원군이 과거 천주교를 박해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천주교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원군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대원군이 농민군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원군이 더 이상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원군은 갑오개혁 과정에서 등장하였지

만 중간에 실각하게 되는데, 뫼텔일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은 동학농민혁명이 관리들의 수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민씨 정권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더군다나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청국을 끌어들이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 탐관오리에게 태형에 처하거나 귀향을 보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간파하고 있다. 그는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귀족들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짚고 있다.

릴리아스 언더우드도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하였다. 그녀는 동학이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고 조선을 위한 조선을 추구했다고 파악하였다. 동학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관리들의 포박한 행위 때문이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학이 처음에는 관리의 탐학을 없애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훌륭하고 애국적인 결심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전국에서 커다란 해악과 폭력으로 변했다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즉 동학도들을 이름이 동학교도이지 강도와 다름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녀는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조선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성직자, 의사, 여행가, 기자, 학자 등 다양한 인물의 서양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의 동학농민혁명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매우 깊이 있게 당시의 조선의 상황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이 매우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강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그런데 130년 전 조선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K-culture에 매료되어 있다. 세계인은 한국을 향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역사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세계의 역사를 선도하는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참고문헌

<번역서>

- 『조선의 비극』, 프레드 아서 맥켄지, 1907, 김창수 역, 을유문화사, 1894.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1897,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뫼텔 주교 일기 I』, 뫼텔 주교, 1895,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조선, 1894년 여름』, 에른스트 폰 바르텍, 1894, 정현규 역, 책과 함께, 2012.
『상투의 나라』, 릴리아스 호른 언더우드, 1905,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전환기의 조선』, 제임스 스키스 게일, 1909,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은자의 나라』, 한국,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1907,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대한제국멸망사』, 호머 베잘렐 헐버드, 1906,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1900, 조선에 살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 1900, 문무홍, 푸른역사, 2008.
『동학백년사』, 벤자민 워스, 1955, 서문문고, 1975.
『조선비망록』,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 1930,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조선견문록』, 호레이스 뉴튼 알렌, 1908,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아놀드 새비지-랜도어와, 1895,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한국의 독립운동』, 프레드 아서 맥켄지, 1920, 신복룡 역, 집문당, 1999.
『케이프 브레튼에서 소래까지』, 엘리자베스 메컬리, 유영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2.
『코레야 1903년 가을』,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 1903, 개마고원, 2006.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 막스 폰 브란트, 김중수 역, 살림, 2008.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 여행 1904』, 루돌프 차벨, 이상희 역, 살림, 2009.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 전쟁』, 제노네 불피첼리, 유영분 역, 살림, 2009.
『극동의 지배』, 아서 저드슨 브라운, 류대영·지철미 역,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연구논문>

- 김희영,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농민봉기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를 중심으로 - 」, 『동학연구』 23호, 2007.
임희국, 「1890년대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내한 선교사들의 이해-동학농민운동과 단발령을 중심으로」, 『선교의 신학』 2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9.
김희영, 「어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소래마을의 동학농민전쟁」, 『동학연구』 28, 2010.
김희영,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인식, - 기독교의 영향과 관련하여 - 」, 『동학연구』 30, 2011
이영호,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 맥켄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 」, 『한국기독교와 역사』 34호, 2011.
비온티노 유리안,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 습격자인가 개혁자인가」, 『동학학보』 28호, 2013.
비온티노 유리안,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 - 서양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 『동학학보』 40호, 2016.
비온티노 유리안, 「서양이 본 동학의 옛날과 오늘 - 영어권, 독어권, 프랑스를 중심으로 - 」,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과제』, 도서출판 선인, 2016.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칼 영(Carl F. Young), 「동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양인의 시각」,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단행본>

유영렬·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문화사, 2004.
정성화·로버트 네프, 『서양인의 조선살이』, 푸른역사, 2008.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최성락,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 페이퍼로드, 2019.

<도록>

『파란 눈에 비친 100년 전의 한국 코리아 스케치』, 국립민속박물관, 2002.
『19세기말~20세기초 서양인이 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2017.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광주 여선교사가 본 호남의 풍속과 여성

이정선(조선대)

〈목 차〉

1. 머리말
 2. 광주의 여선교사들
 3. 타자에 대한 계몽적 시선
 - 1) 질병과 죽음에 대한 ‘미신’
 - 2) 학대당하는 여성들
 4. 일상적 관계 맺음의 시선
 - 1) 조선인의 ‘정’
 - 2) 자기 상대화의 노력
 5. 맺음말
-

1. 머리말

1884년 고종이 개신교 선교사의 한반도 내 의료 및 교육 활동을 용인한 이래, 개신교 선교사는 가장 먼저 지역의 조선 사람들과 합법적으로 만난 서양인들이었다. 이들과 조선 사회의 만남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선교사들의 활동이 조선 사회의 근대화·문명화에 기여했다는 시각으로, 주로 각 교파의 교회사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반해 선교사들 역시 서양인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을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열등하고 미개한 이교도들로 보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의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일률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체류 기간과 개인적 성향,¹⁾ 지역민과의 충돌·우호 관계²⁾ 등에 따라 서양인 선교사와 조선 사회의 관계도 달라졌음을 밝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선교사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편향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는 주로 미국 남북 장로교·감리교 선교사가 활동했으며, 선교 지역의 중복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

1) 이수기, 「1880년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인식: 10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55, 2015.

2) 김선필, 「종교와 지역 사회의 공존: 20세기 전반 천주교 선교사들의 제주 문화 인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0-1, 2020.

을 피하기 위해 선교 구역을 분할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교세가 강했던 서울·경기, 황해·평안 지역이 대개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 구역이었으므로, 이들 지역과 교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감리교에 대한 연구도 많다. 그에 비하면 전라도에서 활동한 남장로교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³⁾ 또한 남선교사의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강선미는 여선교사가 남선교사의 거의 두 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선교사의 활동을 광범위한 (남성) 선교사업의 일부로 다뤄왔음을 비판하고, 여선교사의 실태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내었다.⁴⁾ 교회사에서도 장로교 여성사,⁵⁾ 또는 여선교사와 함께 한 한국 전도부인⁶⁾의 역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선교사, 여성 교인 연구에서도 여전히 남장로교와 전라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전라도, 그중에서도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남장로교 여선교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양인이 기록한 전라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기록은 남선교사가 보기 어려운 지역 사회와 가정의 일상을 풍부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광주 선교 초기인 1900-1910년대부터 10-20년 간 장기 체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던 3명의 여선교사가 남긴 편지, 소설, 기록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2. 광주의 여선교사들

남장로교의 광주선교부는 1904년에 설치되었다. 광주의 기독교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주목한 목포선교부의 유진 벨, 오웬 선교사가 현재의 양림동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시초였다. 광주선교부는 광주교회(1904)에 이어, 광주제중원(광주기독병원, 1905)과 광주나병원(1912, 여수 애양원)의 의료시설, 광주남학교(송일학교, 1908)와 광주여학교(수피아여학교, 1908)의 학교를 설립하였다.⁷⁾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여러 선교사들이 광주에 파송되었다.

여선교사는 두 집단으로 나뉜다. ‘주부 선교사’는 해외 선교 남선교사의 아내로서 동반 파송되어, 선교사 가정의 주부이자 교회에서 무급으로 남편을 보조하기도 한 선교사였다. 그에 비해 인도·중국 등 아시아 선교 과정에서 남선교사 중심의 활동이 갖는 한계가 드러나자, 여성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 여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전문직 여선교사는 교육·의료 분야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고, 여선교회에 속하면서 유급으로 장기간 해외 선교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미혼이거나 사별하여 독신인 여성들이 전문직 여선교사로 취업했다.⁸⁾

3) 남장로교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송현강,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가 있다. 이 책에 대해 이재근은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퍼즐을 완성한 역작이라고 평가하였다(이재근, 「‘한국 기독교 역사’라는 퍼즐의 완성에 기여한 역작」, 『기독교사상』 724, 2019).

4)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서양여선교사와 조선여성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푸른사상, 2005.

5)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2019(초판 1979).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여성사연구회,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 2010(초판 1999); 장성진, 『한국교회의 잊혀진 이야기: 초기한국 개신교 선교와 교회 성장에서의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 1892~1945』, 한국학술정보, 2008.

7) 송현강, 앞의 책, 2018, 73~74쪽, 121~123쪽, 141~145쪽.

광주에서도 전문직 여선교사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우선 엄언라(Graham, Ellen Ibernica, 1869~1930) 선교사는 38세였던 1907년 처음으로 해외 파송되어 광주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피아여학교의 초대 교장(1908~1911)을 역임하였으며, 1930년에 사망하여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될 때까지 줄곧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엄언라가 1907년부터 1927년까지 남자 형제에게 보낸 편지들을 연도순으로 모아 간행한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⁹⁾은 그의 선교 활동과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속에서 엄언라는 자신을 지역 최초의 ‘순회 전도 여성’ (itinerating lady)이라고 자부하는데(1908.5.29.), 그에 걸맞게 여선교사와 지역 사회의 첫 만남을 전하는 흥미로운 일화가 많다.

서서평(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 선교사는 광주의 여선교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서서평 역시 1912년 광주기독병원에 근무하면서 해외 선교 활동을 시작했으며, 군산(1914)과 서울(1917)을 거쳐 1919년에 다시 광주에 복귀하여 광주기독병원에 근무하며 순회 전도 활동을 했다. 그동안 불우한 여성들을 위한 한글·성경학교인 이일학교(한일장신대의 전신), 부인조력회(여전도회의 전신),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의 전신)를 조직하였고, 1934년에 사망하자 역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묻혔다.¹⁰⁾ 스와인하트(Lois Hawks Swinehart, 1874~1957)는 남장로교 장로였던 남편 서로독(Martin Luther Swinehart)과 함께 광주에 온 주부 선교사였는데, 1911~1937년 사이에 서서평과 간호학교나 순회 전도 활동을 같이 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자료는 일부 겹친다. 서서평 자료는 편지와 선교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 스와인하트가 보낸 편지가 있고,¹¹⁾ 스와인하트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3편의 선교 소설을 남겼다.¹²⁾ 그중 한국어로도 번역된 ‘Sarangie, a child of Chosen’ 는 조선인 아이 ‘사랑이’ 를 구하는 여선교사 ‘서부인’ 의 이야기로 서서평을 모티브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¹³⁾

엄언라, 서서평, 스와인하트는 모두 1907~1912년 사이의 광주 선교 초기에 광주에 와서 20년 가량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순회 전도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과정에서 목격한 호남의 풍속과 여성에 관해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다만 호남의 풍속과 여성의 현실을 대하는 자세에는 다소 차이가 엿보이는데, 이는 교육·의료 분야의 전문직 여선교사와 주부 선교사라는 위치, 개인의 출신 계층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강선미, 앞의 책, 2005, 73~79쪽, 82~83쪽.

9)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earl Digital Collections(<https://digital.history.pcusa.org>).

10) 백춘성, 『천국에서 만납시다』,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96(초판 1980); 양창삼,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Serving the People, 2012; 백춘성,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두란노, 2017.

11) 양창삼, 위의 책, 2012 부록; 광주기독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병원선교회, 2015.

12) 서양어 자료총서 편찬위원회,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212: Korea calls!/ Jane in the orient/ Sarangie, a child of Chosen by Lois Hawks Swinehart』, 경인문화사, 2015.

13) 이 소설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로이스 H. 스와인하트 지음, 송창섭 옮김, 『조선의 아이 사랑이: 선교사(서)부인이 구한 조선의 아이들』, 살림, 2010.

3. 타자에 대한 계몽적 시선

1) 질병과 죽음에 대한 ‘미신’

무지한 동양인(조선인)을 깨우치고 구제해야 한다는 서양인의 사명감은 광주 여선교사의 자료에서도 도처에 드러난다. 그들이 보기에 조선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지’, 위생 관념의 결핍이었다. 엄언라는 고용한 조선인 남성 요리사에게 위생 문제 때문에 누차 파리가 음식에 닿지 않게 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며 “오, 그들은 많이 먹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전한다.¹⁴⁾ 또 김장철이 되면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개울가에서 야채를 씻으면서도, 그와 같은 물줄기에서 세탁을 하는 모습에 개의치 않는 것을 신기하게 보았다.¹⁵⁾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의지하는 침술마저도 비위생적이었다. 침은 전혀 살균되지 않았고 대개 녹슬었던 것이다. 침을 맞고 오히려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을 엄언라는 “불쌍한 희생자(poor victim)” 라고 불렀다.¹⁶⁾ 1930년대 광주기독병원에서 활동한 변마지(Margaret F. Pritchard, 1900-1988) 선교사도 일반적으로 나쁜 세균이 더러운 침에 묻어 주사되어서, 1931~32년 겨울 병원 환자의 1/3이 침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추정하였다.¹⁷⁾

그와 함께 여선교사들은 질병과 죽음에 관한 풍속의 대부분을 ‘미신’ 으로 해석했다. 엄언라의 자료에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목격한 독특한 장례 풍속들이 있어서 흥미롭다. 하나는 1908년 목포에서 목격한 것인데, 죽은 아기의 시신 4구가 짚으로 쌓여 나무 기둥에 새끼줄로 묶여 있는 광경이었다. 이것은 “아이가 어떤 재앙(scourge)으로 죽었을 때, 때때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끔찍한 풍습은 한국의 남쪽 외에는 어디에서도 실행되지 않는 것 같고, 이쪽에서도 일반적이지 않” 았다고 했다.¹⁸⁾ 뿐만 아니라 12~13세 가량의 결혼할 만한 나이인 소녀의 시신을 길 한가운데 묻는 것도 “한국 남부에 특징적인 이상한 장례 풍습” 이었다. 엄언라는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 계속 마모된 무덤들을 여러 번 보았고, “이 풍습의 정확한 이유를 배우지 못했지만, 물론 관련된 어떤 미신이 있다” 고 추정하였다.¹⁹⁾ 조선인의 떠들썩한 장례도 혼령이 “당신이 슬퍼함을 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괴롭힐 것” 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즐거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위한 것” 이라고 보았다.²⁰⁾

질병과 죽음에 대한 조선인의 풍속을 귀신과 관련해서 해석한 만큼 한의와 무당의 치료 및 구제 행위도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엄언라는 “전혀 훈련받지 않은” 한의들의 침술을 “단순한 미신 덩어리” 라고 비난했다. 그의 목표는 “몸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고 추정되는 마귀(devil)의 위치를 찾아서 쫓아내는 것” 이었다.²¹⁾ 침술에 대한 이 같은 해석은 거의

14)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9.11.30.)

15)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24.11.15.)

16)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8.2.25.)

17) 광주기독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2: Levie, Brand, Pritchard, Preston』, 광주기독병원선교회, 2018, 184쪽.

18)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8.8.2.)

19)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9.8.25.)

20)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7.11.12.)

21)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8.2.25.)

모든 의료 선교사의 기록에 나타난다. 역시 침을 “나쁜 공기와 악령을 쫓아내는” 것으로 본 변마지는 “주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상습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침을 맞으러 다니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²²⁾ 또한 엄언라는 우물에 빠져 죽은 9살 소녀의 영혼이 우물에 남아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해서, 부자와 재혼한 소녀의 어머니가 마을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비용을 대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²³⁾

여선교사들이 보기에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받는 한의와 무당은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존재들이었다. 서서평은 치료비 대신에 여성을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위 한의사”에게서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한 소녀를 구했다.²⁴⁾ 서서평은 팔려 가는 많은 여자 아이들을 구출하고 무려 14명의 양자녀를 길렀다고 하는데, 스와인하트의 ‘Sarangie, a child of Chosen’도 이러한 구도를 갖고 있다. 사랑이의 엄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돈 많은 남자들의 변덕과 욕정에 얽매인 창부이자 무희”가 되었는데, 미모가 시들자 “귀신 불러내는 일을 시작”해서 “밑바닥 세계의 사람들한테서 먹고 살 돈을 뜯어냈다.”²⁵⁾ 그러다 아이에 대한 정까지 잃어버려서 6살 난 사랑이를 망설임 없이 기생집에 살아버렸고, 서부인이 그를 구하는 줄거리이다.

한편 조선인의 미신과 한의·무당의 무능은 의료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엄언라는 순회 전도 중에 만난 눈먼 지 23년 된 중년 여성을 교회에 초대했고, 백내장 수술을 통해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회복시켰다. 이후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는 여성을 보면서, “백내장의 성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맹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라. 그것은 우리 병원에 큰 명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썼다.²⁶⁾ 광주 제중원에서 활약한 노라노(Joseph Wynne Nolan) 선교사는 1906년에 보다 직접적으로 “여러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의사가 이와 같이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병을 일으키는 많은 악귀들을 없애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²⁷⁾ 1921년 서서평은 한 마을에서 “당신이 내 아기의 두 눈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눈먼 여성을 만났다. 아이의 눈은 한쪽밖에 구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되찾아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했다. 서서평이 보기에 “‘기독교’를 더 많이 배우려는 그녀의 열성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았다.²⁸⁾ 엄언라는 순회 전도 중에 전도부인과 함께 아픈 여성 신도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는데, 며칠 후 환자가 “내(=엄언라)가 그녀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다니는 ‘억울’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²⁹⁾ 엄언라는 자신의 행동을 조선인이 기도의 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지만, 나머지 사례들에서는 의료 행위가 선교 활동에 보탬이 되는 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22)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2: Levie, Brand, Pritchard, Preston』,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8, 185쪽.

23)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3.5.15.)

24)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26쪽.

25) 로이스 H. 스와인하트 지음, 송창섭 옮김, 『조선의 아이 사랑이: 선교사(서)부인이 구한 조선의 아이들』, 살림, 2010, 10~11쪽.

26)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9.3.15.)

27)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8쪽.

28)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05쪽.

29)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4.5.20.)

2) 학대당하는 여성들

서양인 선교사들은 조선의 결혼 관습이나 내외법,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낮은 지위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성차별의 문제보다는 문명과 비문명,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대립 문제로 파악하여, 조선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다.³⁰⁾

조선 여성의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역시 여성 선교를 담당한 여선교사의 기록에 풍부하게 등장한다. 엄언라는 1908년 부유한 비기독교인의 전통 혼례에 참석하여 관찰한 혼례의 절차를 상세히 기록한 후, 여성에게 혼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신부의 어머니는 때묻은 옷을 입고 멀리서 하인들을 부릴 뿐 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행위였다. 결혼한 여성은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놓여서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음 세대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³¹⁾ 결혼한 젊은 여성이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건 설 명절 때뿐이었고,³²⁾ 밖에 다닐 때는 장옷이나 양산으로 머리를 가려야 했다. 이때 서울 여성들은 끝부분이 빨간 녹색 비단 코트(green silk coat with red cuff, 장옷?)로 머리를 가렸는데, 남쪽에서는 완전히 치마처럼 만들어진 하얀 린넨(white linen made like a full dress skirt, 쓰개치마?)을 사용했다고 차이를 지적하였다. 엄언라는 이것이 사라져야 할 “굴욕적인 관습”이라고 보았지만, 기독교의 평판을 해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은 예의범절에 너무 충격을 주지 말고 천천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³³⁾ 초기 교회에서 커튼을 이용해서 남성과 여성의 예배 공간을 분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³⁴⁾ 1927년에도 커튼은 거의 사라졌지만 “나이 들고 못생긴 여성들(the oldest and ugliest women)” 이 소년 소녀들 사이에 두 세줄 끼어 앉았다고 한다.³⁵⁾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가. 엄언라는 기독교를 믿는 남편이 혼자 공부할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아내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사례를 들었다.³⁶⁾ 이는 선교부에서 제시한 세례의 조건이기도 했다. 선교부에서는 남성에게 세례를 줄 때, 아내에게 글을 읽도록 가르쳤는지, 안식일을 지켰는지, 누군가를 1명이라도 전도했는지, 법적으로 결혼한 1명의 처 이외에 나머지 아내들을 모두 포기했는지 등을 확인했다.³⁷⁾ 그러나 다른 가족보다 여성이 먼저 기독교를 접하게 된 사례도 많았는데, 이 경우 이들은 (시)아버지나 남편의 박해를 받았다. 서서평은 부부와 딸만 기독교인이었던 가정이 “불신 친척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했다. 시아버지도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며느리가 이들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야 하는데도 집에서 자기에게 결코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내외를 미워하여 구타했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쳤다.³⁸⁾ 1922년 보성에서 순회 전도할 때는 어머니가 찬송가

30) 김소영,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 여성 인식과 여성론」, 『민족문화논총』 77, 2021.

31)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8.5.15.)

32)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25.2.20.)

33)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0.9.18.)

34)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8.5.29.)

35)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27.11.19.)

36)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9.11.30.)

37)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2.2.25.)

와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아버지가 비기독교인과 강제 결혼시키려 했던 19세 여성을 광주학교로 데려오기도 했다.³⁹⁾ 첩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남편을 떠나려면 부양을 포기해야 했고,⁴⁰⁾ 가족 중 자신과 딸만 교회에 다녔던 여성이 사망하자 가족들은 그 시신을 화장했다.⁴¹⁾ 스와인하트 역시 ‘Jane in the orient’에서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이 여성은 큰딸의 이름을 ‘안식일’로 지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남편의 폭행으로 뼈까지 찢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다시 얼굴에 상처 입은 채 교회에 나타났다. 소설의 주인공 제인은 분노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했지만, “어떠한 남성도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불려가지 않는다”는 것이 ‘관습’이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선교사 미리엄은 조선의 가정 문제를 “절망적인 혼란”이라고 단언하였다.⁴²⁾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학대받고 이탈한 여성들은 여선교사의 선교 대상이기도 했다. 이 분야에서는 서서평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서서평은 가족에 의해 인신매매되던 소녀들을 데려다가 기독교 교육을 시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다. 1927년에는 친아버지에 의해 만주로 팔려가던 소녀를 구해 ‘우리 학교’ (이일성경학교로 추정)에 데려왔고, 1929년에도 부모 사망 후 “사악한 외부 사람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간 15세 여성을 구출했다. 1932년에는 장로교 여전도회 회원들이 빛 대신 식당에서 여급으로 일하던 여성을 서서평에게 데려왔으며, 이 해 서서평은 도망갔던 중, 포주의 딸 등을 학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가르친 후에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⁴³⁾

또한 여선교사들은 조선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여성을 기독교인으로 등록하고 성경학교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으므로, 조선 여성 대부분에게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선교 활동에도 큰 불편을 주었다.⁴⁴⁾ 서서평은 여성들에게 실제 불릴 수 있는 이름들을 붙여서 등록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천연두 환자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는 여성에게도 이름이 쓸모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개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⁴⁵⁾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기혼 여성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존중을 표하는 방식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조선의 풍습을 해석한 것일 따름이다.

38)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03쪽.
 39)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10쪽.
 40)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2.2.25.)
 41)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7.11.12.)
 42) 서양어 자료총서 편찬위원회,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212: Korea calls!/ Jane in the orient/ Sarangie, a child of Chosen by Lois Hawks Swinehart』, 경인문화사, 2015, 59~62쪽.
 43)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15쪽, 119쪽, 129쪽, 130쪽.
 44)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2.2.25.)
 45)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문서선교부, 『제중원 편지 1: Nolan, Wilson, Shepping』,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2015, 106~107쪽.

4. 일상적 관계 맺음의 시선

1) 조선인의 ‘정’

앞서 살펴본 내용은 여선교사들이 호남의 풍속과 여성을 타자화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렇지만 여선교사들은 순회 전도를 통하여 조선 여성들과 가장 일상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선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은 엄언라다. 엄언라는 편지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조선의 풍경과 순박하고 정겨운 조선 사람들을 기록했다. 1912년에는 순회 전도를 하다가 그 지역의 성경학교 학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날달걀 두 개를 받았다. 하지만 먹지도 버리지도 못한 엄언라와 일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치는 배고픈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 소년에게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 몫으로 남겨두고 길을 재촉하는 사이에, 또 다른 조선 여성에게서 날달걀 두 개를 다시 받았다.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엄언라는 결코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 조선 여성의 정을 익살스럽게 그렸다.⁴⁶⁾

1913년의 한 편지에는 비록 매우 가난하지만 극도로 넉넉한 조선인의 일화를 모아놓았다. 그중 인상적인 세 개만 소개해보자. 첫째, 엄언라는 5명의 교회 여성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 소고기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소고기는 자기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비싼 음식이었지만, 선교사들에게 선물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둘째, 수업을 마친 어느 날 기독교인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그들이 우렁이(mud snail)를 대접했다. 엄언라는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에 따르라(when you are invited to a turkey dinner you eat turkey)는 마음으로 우렁이를 먹었는데, 우렁이를 좋아한다고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우렁이를 계속 보내주었다. 셋째, 어느 날 낯선 젊은 여성이 달걀 한 바구니를 가지고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2년 전 아파서 식욕이 없는 부부를 위해 두세 번 요리해준 적이 있는데, 그들의 며느리였다. 그 사이 사망한 시어머니가 엄언라의 친절을 기억하고 며느리에게 보답해달라고 유언해서 찾아온 것이었다.⁴⁷⁾ 엄언라는 이처럼 가난하지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친절을 잊지 않는 조선인 여성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바라보았다.

2) 자기 상대화의 노력

조선인과 가까이 접하며 그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려는 엄언라의 태도에는 선교사이면서 기독교마저도 상대화하는 지점이 있었다. 엄언라가 조선에 온 첫해인 1907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을 본 한 한국인 하인이 “나는 왜 당신들이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방식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도 나무에 물건을 매달아 두는데.” 라고 말했다. 그

46)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2.6.20.)

47)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13.7.12.)

는 마을 수호신인 서낭신을 모시는 나무에 물건을 매다는 서낭당을 연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엄언라는 “그녀의 생각은 꽤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머리카락 뭉치, 조그만 쌀 주머니,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을 걸어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⁴⁸⁾ 심지어 1920년에는 콜레라 퇴치 의식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연상했다. 이 해 콜레라가 유행하자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40년 전 풍습이 재등장했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길고 무거운 기둥을 짊어지고 와서 미리 준비해둔 구덩이에 세우는 것이었다. 이 미신의 핵심은 여성이 기둥을 흠쳐서 옹기고 세우는 것으로 남성은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힘이 부족할 때는 여장을 한 남성들이 도왔다. 그리고 기둥의 갈라진 부분을 형겁으로 감싸고 붉은 염료로 얼룩을 만들어 피를 흉내냈는데, 그러면 콜레라 귀신이 기둥에 들어갈 것이었다. 엄언라가 보기에 두 갈래로 갈라진 기둥은 십자가, 그 교차된 부분에 묻은 붉은 피는 면류관에 박힌 예수의 피와 유사하였다. 이에 대해 “나무에 매달려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모든 디테일에서 그와 유사한 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거나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썼다.⁴⁹⁾ 엄언라는 이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조선인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비치는지, 조선의 ‘미신’이라 치부하던 전통적인 신앙과 기독교가 어떻게 유사하고 또 다른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선의가 기도의 이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와인하트는 ‘Jane in the orient’에서 조선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3명의 서양 여성을 등장시킨다. 미리암(Miriam)은 이미 조선에서 활동하던 여선교사였는데, 미국에 돌아갔다가 새로운 여선교사 앤(Anne), 자신의 친자매 제인(Jane) 등과 함께 광주로 돌아왔다. 여기서 여선교사가 아닌 제인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흥미로운데, 심지어 제인은 목사의 딸로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낯선 땅으로 향한 호기심 많은 인물이었다. 앤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오리엔탈리즘에 충만해서 동양 문화를 혐오하고 동양인(일본인, 조선인)과 어울리지 못했다. 스와인하트는 제인과 앤의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대조한다. 부유한 비기독교인 남성이 선교사들을 중매로 맺어진 부부의 전통 혼례에 초대하자, 앤은 도덕적 이슈에 맞지 않는다고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인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뒸다. 결국 조선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원래 삶과 사고방식을 경험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기존 선교사 중 한 명인 댄(Dann)의 조언을 받아들여, 앤은 제인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다. 하지만 앤과 제인의 행동 패턴은 너무 다르다. 이들에게 흥미를 보이며 다가오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앤은 ‘인내’ 하지만 제인은 이것저것 몸으로 설명하며 어울린다. 제인이 바닥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친해진 조선의 소녀들과 머리핀을 교환하자 앤은 버리라고 한 반면, 제인은 그것을 머리에 꽂는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앤은 피곤에 찌들었지만 제인은 조선에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조선의 언어를 배우면서도 앤은 책을 봤지만 제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익혔다.⁵⁰⁾

48)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07.12.26.)

49) 『Two Decades in the Hermit Kingdom』(1920.3.4.)

50) 서양어 자료총서 편찬위원회,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212: Korea calls!/ Jane in the orient/ Sarangie, a child of Chosen by Lois Hawks Swinehart』, 경인문화사, 2015, 201~217쪽.

한편 제인은 자매인 여선교사 미리암과도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안식일’의 어머니를 보고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제인을 보고, 미리암은 나서지 말라고, 조선의 가정 문제에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암은 조선의 이 ‘절망적 혼란’에서 질서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자리잡게 하는 것뿐이라며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인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안식일’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폭행의 현장에서 구출해서 자기 집 사랑채에서 지내도록 했다.⁵¹⁾

스와인하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세 여성의 태도를 광주에서 활동하던 여선교사들과 비교해보자. 조선인의 풍속을 바꿔야 하지만 먼저 그를 이해하고 천천히 바꿔야 한다는 댄, 학대당하는 조선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기독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미리암 등, 광주에서 이미 활동하던 이들 두 여선교사의 시각은 엄언라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또 강한 사명감과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여선교사 앤은 서서평과 접점이 있다. 서서평의 자료에는 조선인을 이해하려 하거나 자기를 상대화하려는 시각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전기에는 서서평이 교육이나 생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다른 선교사나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들이 전한다.⁵²⁾ 스와인하트가 전문직 여선교사가 아니라 주부 선교사였으며 제인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할 때, 스와인하트는 그에 감정이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설에서 제인은 성경 공부를 열망하는 제주 여성의 모습에 감동해, 결국 남성 의료 선교사와 결혼한 후 조선에서 활동하는 길을 선택한다. 물론 댄·미리암은 엄언라와 서서평을 바로 모델로 삼았다기보다는 여러 속성을 추출하여 유형화한 인물일 것이다. 제인 역시 조선인을 타자화하거나 전도를 우선하는 보통의 전문직 여선교사와 달리, 조선인과 마주보며 일상에서 접촉하면서 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새로운 여선교사의 모습을 꿈꾸는 스와인하트의 이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겠다.

5. 맺음말 (생략)

51) 서양어 자료총서 편찬위원회,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212: Korea calls!/ Jane in the orient/ Sarangie, a child of Chosen by Lois Hawks Swinehart』, 경인문화사, 2015, 217~231쪽.

52) 백춘성은 이를 엄격하고 단호해야 하는 의료 선교사의 특징으로도 설명한다.

토론문

<대통령 통해서 본 서로의 얼굴> 토론문

김덕진(광주교대 교수)

“하멜 보고서”는 하멜이 조선에서 13년간 생활하면서 겪은 경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전라도 생활이 11년 정도 된다. 그리고 본 행사는 “전라도 세계화 학술대회”이고, 필자는 본인의 글을 통해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토론자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멜이 전라도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크게 기대하였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당시 전라도의 행정체계 또는 사회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그것이 논문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왜 병영에서 남원, 순천, 여수로 이배되었는지, 그리고 ‘여수’를 좌수영이라고 하지 않고 ‘여수’라고 표현하는지 등등이 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야기’ 또는 ‘구절’ (‘동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하필 ‘구절’이란 단어를 구사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 전라도 땅에서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도 해당된다.

②하멜 일행은 이방인이 아니고 성명(南○○)과 호패를 부여받은 ‘조선 국민’으로써, 서울에서 강진 병영으로 유배되었다. 따라서 유배에 대한 개념과 유배인의 존재양태에 대한 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왜 강진이 유배지로 선택되었고 다른 유배인은 없었는지, 유배인이 강진 땅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는지 등등이다.

③하멜 일행은 병영에서 7년간 생활하였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생활한 곳이 바로 강진이다. 그들은 강진에서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까지 두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도 더 심도 있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가족들의 향배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운데 한국전쟁 때 인민군 총참모장 南日이 병영 출신이라는 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도 있다(김덕진, 『손에 잡히는 강진역사』, 주희춘, 『강진 인물사』).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공개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된 글이라고 읽혀진다. 앞으로 이 글을 포함하여 이 분야 연구자께서 하멜 일행의 전라도에서의 생활모습 또는 네덜란드 등의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면 인류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884년 미국 외교무관 포크의 전라도 조사 검토〉 발표문

김윤희(한남대)

1884년 포크의 여행기록은 1876년 개항 이후 서양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조선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선교사 등의 여행기는 일찍부터 발굴되고 번역되었던 데 비해 포크의 여행은 최근에서야 번역되었고, 여행기록의 가치가 점차 발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발표문은 포크 여행기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굴했던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행기록은 다양한 내용이 여행지,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전개에 따라 등장하기 때문에 맥락을 잡아 내용을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자료적 특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기록 형태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와 활용성을 갖고 있다.

발표문은 포크 여행기록의 특징, 기록의 가치, 내용에서 발견되는 특이점 등을 소개하고 전라도 지역을 전주, 나주, 남원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여행기록의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포크 여행기록 전체를 번역하여 출판한 발표자의 내공이 느껴진다.

발표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항기 비전공자의 손에 이 기록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 개항기 전공자로서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자료의 가치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토론문은 논문 완성을 위해 약간의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1. 〈1880년대까지의 서양인 자료〉 중 표에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기술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포크 기록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1876년 이후 기록으로 한정하고, 서양인 저서의 성격을 여행기, 조사보고서(필드워크를 전제로 한) 등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리피스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882<1907〉)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일본에 있을 때 한국 관련 사진과 기록 등을 입수해서 쓴 것이다. 직접 여행하거나 조사한 기록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2. 〈포크 조사 기록의 특징〉 중 포크의 기록은 국가의 공식적 허가를 받아 발급된 호조를 지참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비공식적인 선교사의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서술했다. 당시 개항장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호조를 발급받았다. 각국 영사관에서 발급요청을 하면 통리기무아문(외아문)에서 승인도장을 찍어 발급했고, 발급할 때는 방문지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숍의 경우도 호조를 발급받아 진행되었고, 방문지에 도착하면 지방관아에 호조를 제시하여 체류를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 서술은 당시 호조발급 절차, 선교사 여행방법 등을 참조하여 수정했으면 한다. 또한, 포크 이전 미국인의 호조발급 사례는 구한 국외교문서 美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포크와 김성근의 대화 중 포크가 미곡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1884년 7월 미국이 기선 회사 설립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타운센드가 매입한 미곡을 수송하던 선박 2척이 김제에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당시 조선의 세곡 수송에 대해 조선의 미국인이 관심을 보였고, 그 상황은 구한국외교문서 미안 1권, 93, 121 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포크의 여행을 좀 더 자세하게 구성할 자료가 구한국외교문서 미안1에서 확인된다. 먼저 호조발급을 요청한 문서(107번, 1884년 9월 20일)가 있다. 또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 지역 관아에서 빌린 여행경비를 반환을 조선 정부에 의뢰한 문건이 있다(136번, 1884년 12월 24일). 이 문서를 보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방문지역과 빌린 돈 내역이 나와 있다. 포크는 2차 여행 도중 총 62,000문을 빌렸고, 그중 전주에서 5000문, 나주 10,000문을 빌렸다.

김천식 연구원의 “미국 남장로교와 호남선교” 에 대한 토론문

김 양 호 (목포기독교역사연구소장)

한국 기독교역사는 이제 130여년을 넘어 140주년을 앞두고 있다. 1884년 알렌과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미국의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이후에 우리나라엔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남감리회, 그리고 미남장로교회에서도 선교사들이 속속 들어와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삼천리 강산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각 선교회 대표들이 모여 ‘예양협정’을 맺으며 지역별 사역지를 분할하였고, 우리 전라도 지역은 미 남장로교단 선교회가 맡게 되었다.

소위 ‘7인의 선발대’가 1892년 서울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였으니, 전라도 교회역사도 130여년을 앞두고 있다. 물론 그들이 준비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전라도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은 시간 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역사의 기점을 정해야 할 것이다. 레이놀즈, 전킨, 테이트 등 첫 선발대들이 호남 지역 곳곳에 처음 선교부를 설치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 사역을 전개하였고 이 지역에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김천식 연구원의 발표문, “미국남장로교와 호남선교”는 그런 점에서 이들 초기의 사역과 진행과정을 잘 정리하고 있다. 미국교회의 형성과정과 서울중심의 초기 선교진행과정을 서두로 밝혀 이해를 돕고, 본문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선교, 교육선교, 병원선교의 초창기 설립과정과 진행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100여년전 궁핍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전라도와 한국인 사이에서 인내하며 섬겼던 선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충성된 모습을 찾아 이를 드러내는 연구자의 노력은 참 값지다.

오랜 역사 속에 풍성하고 무궁무진할 수 밖에 없는 전라도 교회역사의 귀함을 인식하고 이를 찾아 밝히고 연구하는 일에 오래도록 수고하는 발표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토론자는 이 학술회의와 관련하여 발표된 글에 대해 작은 소회를 몇가지 덧붙인다.

첫째, 금번 학술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이 발표문이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서양인이 기록한 전라도”를 주제로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 보자는 목적의 학술회의이다. 그런데 본 발표문은 전라도의 당시 모습이나 형편, 전라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교회를 소개하고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 선교사들이 전라도에서 거주하며 일하면서 보고 알게 된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인문 지리적 인상이나 평가를 밝혀야 한다.

이번 학술회의가 외국인의 눈에 드러난 전라도의 면면을 살펴보고 전라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응당 그에 부합하는 연구물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라도 자체보다 전

라도에 외부인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 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 아쉽다. 전라도를 재평가하는 연구들을 통해 세계화하는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이니, 한국인 전라도민의 삶과 문화를 밝혀야 한다. 전라도에서 1980년대까지 일한 미남장로교 선교사는 사백여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편지나 보고서 등은 상당한 분량이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기록 속에 드러난 전라도의 면면을 살피는 노력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둘째, 학술대회 취지와 무관하게 발표문 자체 만을 놓고 살폈을 때, 하나는 본문 내용에 비해 제목 설정이 과하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호남에서 사역한 지역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일원이다. 공식 선교부는 전주를 비롯해 군산, 목포, 광주, 순천 등 5개 지역이었다. 본 발표문은 전주에 대한 이야기 만을 소개하고 있으니, 제목을 “미국남장로교와 전주선교” 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예전엔 전주가 호남의 수도이긴 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전주’ 만의 이야기로 모든 ‘호남’ 을 다 말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두 번째로 지적한 공간적인 문제와 함께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 이의를 표한다. 서론에 밝힌 것처럼 전주와 호남의 기독교교회 역사가 130년에 이른다. 긴 시간동안 이뤄진 수백여 선교사들의 활동과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랴. 발표문은 전주 일대에 펼쳐진 선교 활동의 개척 당시 상황에 제한되어 있다. 사실 짧은 호남기독교역사 연구 안에서도 이런 내용은 많이 연구되어 왔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교사들의 전주선교 초기 활동과 이를 새삼 재정리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 이후의 수많은 일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는 노력과 열심은 토론자도 그렇고 발표자와 우리 모두가 분발할 일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취지는 참 의미깊다. 우리는 오래도록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우리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월하게 여기는 경향이 짙었다. 위축되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일들로 우린 계속해서 타존재에 뒤처지는 결과들을 이어왔다. 특별히 역사 분야에서 잘못되고 뒤틀린 이해와 저자세로 오욕의 역사를 잇고 이어온 게 사실이다. 선교사나 외지인의 열심과 긍정적인 활동은 귀하나 우리 안에 있는 더 멋지고 훌륭한 면면들을 찾아내고 밝히는 일에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관련 연구자로서의 사명감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성환, 「대한제국기 알베르 드예 신부가 기록한 목포항과 다도해」에 대한 논평문

서종태(해미국제성지 신앙문화연구원)

발표자의 「대한제국기 알베르 드예 신부가 기록한 목포항과 다도해」 논문은 드예 신부가 교구장 뮈텔 주교와 주고받은, 불어로 쓰여 있는 사목 서한 125편을 한글로 번역하여 자료로 활용한 점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사와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논평자의 의무는 발표자의 논문 가운데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찾아내 지적하여 더욱 좋은 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므로 주어진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신교에 관한 자료와 논문 및 단행본 등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컨대 드예 신부의 사목 서한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발표한 박찬식, 「구한말 전라도 지도지방의 교안」(『국사관논총』 58, 국사편찬위원회, 1994)과 이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한국교회사연구소, 2007)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논문에서 주된 자료로 활용한 드예 신부의 사목 서한은 신안군 하의도 공소에서 활동하던 곽 요셉 신부로부터 발표자가 입수한 것으로, 드예 신부와 교구장 뮈텔 주교가 주고받은 서한 125편을 복사 제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집은 앞 장에 드예 신부의 약력이 소개되어 있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프랑스어 번역가 이지영에게 한글 번역을 의뢰하여 자료총서로 발간하려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드예 신부가 교구장 뮈텔 주교와 주고받은 사목 서한의 필사본 원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이미 작고한 지정환 신부에게 의뢰하여 필사본 원본을 판독한 타자본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발표자가 연구에 활용한 복사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원본이거나 판독한 타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복사본 자료집이 필사본 원본인지 아니면 판독한 타자본인지, 드예 신부가 교구장 뮈텔 주교와 주고받은 사목 서한 전체인지 아니면 그 일부인지, 그리고 그 소장처 등을 각주에서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복사본 자료집의 번역본을 발간할 때, 소장처인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고, 필사본 원본과 대조하여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 완전한 번역본으로 출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제2절 3쪽에서 이전의 개항장에 복수의 거류지가 설치된 것과 달리 1897년 10월 1일 개항된 목포 개항장에는 ‘각국거류지’ 하나만 설치되었는데, 이 점이 목포 개항장 거주지의

달라진 양상이고, 이러한 사례는 목포항이 최초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배경도 아울러 살펴 서술해야 좀 더 깊이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한다.

넷째, 제2절 5쪽 대한제국기 목포에서 활동한 서양인을 정리한 〈표 2〉에 보면, 영국 성공회 선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강길원, 「무술·기해(1898-1899), 고부 등 제읍의 농민 봉기」(『한국사연구』 85, 1994, 87쪽)에 보면, 1897년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 스마트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대상의 순회 선교 도중 목포 등지를 순회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제2절 7-8쪽에서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목포문화원, 2011)와 목포시 편, 『목포시사(인문편)』(향토문화사, 1987), 도민우, 「목포 개항 후 천주교의 진출과 운영 양상」(『목포의 근대시설과 사회상』, 목포대학교 사학과 학생학술심포지엄, 2020) 등을 활용하여, 천주교의 목포 진출 과정을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 문헌보다는 천주교의 목포 진출 과정을 상세히 규명한 김진소, 『전주교구사』 I(도서출판 빅벨, 1998, 469~473쪽), 변주승 등이 번역한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흐름출판사, 2017) 등을 참고하여 서술하는 것이 더 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목포선교구’는 ‘목포 본당’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섯째, 제3절 11쪽에서 드예 신부의 기록을 인용하여, 조선 시대에 유달산에 우거진 소나무가 배를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개항될 당시에는 황폐해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귀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왜 귀중한 자료가 되는지, 그리고 우거졌던 유달산의 소나무 숲이 개항 당시 황폐해진 까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곱째, 제4절에서 섬 지역 천주교 전파의 상황, 지도 교안, 토호세력·일진회와 천주교회의 갈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드예 신부의 사목 서한을 주된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드예 신부의 사목 서한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다른 선행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박찬식, 「구한말 전라도 지도지방의 교안」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거나 견해가 다른 내용만 드예 신부의 서한을 활용하여 서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덟째, 제4절 23쪽에서 드예 신부의 사목 서한에 “이 섬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 자기 처를 버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동시에 거느리지만, 한 한 지붕 밑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아내와는 절대로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섬의 남자들은 두 아내를 동시에 거느린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예 신부가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두 아내를 동시에 거느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으면서 딴 사람을 하는 특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 토론문

박정민(전북대)

본 발표문은 프레드 아서 맥켄지를 비롯한 여러 서양인이 경험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참고문헌에도 나타나듯이 서양인의 시각으로 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도 새롭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정 인물 혹은 자료, 지역을 통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종합했다고 보기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5명의 저작을 통해 이들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인식 등에 집중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론자는 매우 흥미롭게 이들의 동학농민혁명의 시각과 관세 분석 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양인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발표문은 선행연구와 다른 성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문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의문점

1) 뫼텔 주교의 일기는 1892년 1월에 고산 지역에서 동학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마 관련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본 발표문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94년 1월부터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바로 전주성 점령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일기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기록이 소략한지 알려주면 좋겠다.

2) 12쪽에 뫼텔의 일기에서는 ‘각 도별 교우수는 경기도 5,521명 …(중략)… 전라도 4,659명’이라고 하였고, 필자는 전라도가 가장 많은 교우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1000여 명 더 많은데, 실제 경기도가 더 많은지 전라도가 많은지 알고 싶다.

논문 제목의 변경

본고의 제목은 「서양인이 기록한 동학농민혁명」이다. 하지만 이 글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저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록한 것보다 바라본, 혹은 인식한 쪽에 방점을 두고 “서양인이 바라본 동학농민혁명” 혹은 “서양인의 동학농민혁명 인식” 등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한다.

3. 사료비판과 분석을 통한 논문의 확장

본고의 내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5명의 서양인이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술과

시각 등을 다루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서 충분히 중요한 사실들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본고 혹은 선행연구에서는 엄밀한 사료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9쪽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전봉준의 머리를 잘라서 서울로 압송했다.” 고 기록하였지만 발표문에서는 여러 정황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김개남 혹은 그와 같이 처형되어 효수된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당대의 실체와 함께 사료비판을 하면서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료로서 효용성이 있다고 서술해주면 논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뫼텔 주교의 일기는 다른 자료들이 후대에 작성된 것과 달리 당시 본인에게 제공된 사실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보다 훨씬 좋은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일기는 사료비판과 함께 그가 동학농민군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뫼텔 주교의 일기만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하여 그가 기술한 사건들과 실제의 일치 여부, 간극, 불일치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1쪽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기에는 다른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가진 시각이 천주교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저에 두고 분석해보는 것 역시 동학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5명은 동학농민혁명이 미친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들과 함께 차이점 등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그 지도자를 ‘모반자’ 라기 보다는 차라리 ‘무장한 개혁자’ 라고 부르고 싶었다.” 등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뫼텔 주교는 18쪽에서 언급한 것처럼 “폭도로 규정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 이라고 인식하였다. 물론 천주교도 등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동학교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겠지만, 이러한 차이점 등을 파악하여 서양인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랐다는 내용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광주 여선교사가 본 호남의 풍속과 여성〉(이정선) 에 대한 논평

윤선자(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많은 품을 들인 원고를 읽었고, 필자의 고민도 느꼈다. 필자가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개의 의문을 제기하고 더불어 제안도 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의무를 하고자 한다.

1. 송현강 선생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미국 남장로교가 1892-1982년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422명이고 그중 여성 선교사는 263명이며, 여성 선교사 중 20년 이상 장기 사역한 선교사는, 선교사 부인을 제외하고 17명이다.(송현강, 〈19세기 내한 남장로교 여성 선교사 연구〉, 《남도문화연구》 4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p.138) 필자는 “1900-1910년대부터 광주에 10-20년 장기 체류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다”는 것을 이유로 3명의 여선교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3명의 여선교사보다 짧은 기간 광주에서 활동했던 여선교사들과 이들 3명의 여선교사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장기 체류’라는 것을 이유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들보다 짧은 기간 활동했던 여선교사들과의 차이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선행연구 : 각주 2번에 언급한 김선필 선생의 논문은 천주교 선교사에 대한 것으로, 비교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정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3. 자료 활용 : 분석한 자료가 3명 여성 선교사들의 편지, 소설, 기록(선교 보고서)인데, 이들 각 자료의 특징, 차이, 한계가 있다. 엄언라의 자료는 남자형제에게 보낸 편지들이고, 스와인하트의 자료는 선교소설이다. 소설과 편지를 같은 서술 선상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 서서평의 자료는 편지와 선교보고서인데, 편지와 선교보고서의 형식과 내용도 다르므로 같은 서술선상에서 평면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1908년, 1910년, 1925년의 사료를, 하나의 사례를 서술하는데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2) 학대당하는 여성들 : 5쪽의 각주 31, 32, 33번”) 재고가 요구된다. 1900년대와 1910년, 그리고 1925년의 한국사의 변화상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4. 3명의 여성 선교사는 순회전도와 더불어, 엄언라는 학교, 서서평과 스와인하트는 병원과 간호학교가 그들의 주요 선교 활동 공간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만나는 한국인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필자는 이들을 전문지 여선교사와 주부 선교사라는 측면에서 구분하였는데, 그들의 선교활동 영역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5. 호남지역 여성선교사와 호남 외 지역 여성 선교사, 남장로회 여성선교사와 남장로회 외

여성선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본고의 목적인 “호남의 풍속과 여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 어디에나 해당되는 것들이다. 4쪽에서 “이런 끔찍한 풍습은 한국의 남쪽 외에는 어디에서도 실행되지 않는 것 같고” (1908년), “12-13세의 소녀의 시신을 길 한가운데 묻는 것도 한국 남부의 특징적인 이상한 장례 풍습” (1909년)이라 하였는데, 이것도 호남만의 풍속이었을까 궁금하다. 호남의 풍속이었다면 호남에서 자주 있는 일이어야 하고, 호남에서 활동한 다른 선교사들의 기록들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6. 비그리스도교 국가인 한국의 풍습은,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에게 미신이었고, 그러한 풍속을 행사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야만이고 비문명이었다. 또한 서양의학을 공부하였고, 그래서 의료의 기준이 서양의술이었던 의료선교사들에게, 침술을 포함하여 한국인들의 전통(혹은 한방) 의료는 무지한 것이고 비위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호남에서 활동한 남장로교 선교사만의 시각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문명화를 외쳤던 식민통치자 일본인들의 시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범위를 좁혀 호남을 분석 대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